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신비의 라오스 6일
8월 23일, 30일 단 2번 8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6월 15일(음력5월 9일) 수요일 (주간) 제530 호

“내원암 땅 내놔” “안될 말”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인, 남양주 내원암 상대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해당토지는 국유지, 소유입증 할 수 없어”

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사찰을 대상으로 번짐에 따라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친일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해창(李海昌)의 후손 21인은 2004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에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주지 재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103-1번지로, 내원암 경내지 전체가 포함된다. 토지 면적은 4만8천 평이며 시가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해창 후손들은 “내원암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승소할 경우 내원암은 법당과 요사채를 제외한 경내지 전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해창은 1910년 당시 공로자로 일제로부터 후작작위와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으며, 김희선 의원이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이 1990년대 이후 30여건 이상 진행돼왔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은 드문 일인데다, 사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도 처음이다.

소장(訴狀)에서 이해창의 후손들은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 및 증조부인 이해창이 1917년 10월 사정(査定:조사하여 결정하는 것)받아 소유해왔으며, 이를 상속받은 이덕주가 사망한 1962년 후손들이 공동상속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제 당시 제작된 <양주군별내면임야조사부(이하 임야조사부)>. <임야조사부>에는 토지의 국·사유 여부와 소유자 및 연고자가 기재돼 있다. 임야조사이에 따르면 청학리 산103번지의 소유자 및 연고자란에 이해창이라는 이름이 기재돼 있다.

내원암 측은 해당 토지가 이해창의 반민족행위 대가로 무상대여 받은 땅으로 소권행사가 부적법하며, 현재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해창 후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최용규 의원 등의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정부로부터 훈작을 받거나 을사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임야조사부>에 해당토지가 국유로 표기돼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이해창이라는 이름은 소유자가 아닌 연고자에 불과해, 일제당시 해당토지의 소유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증거제출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친일파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법감정과는 무관하게 증거에 바탕한 사실관계만 따져 심리하는 법정에서 증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은 확정판결이 끝난 16건의 땅 찾기 소송 가운데 8건(부분승소 포함) 가량 승소했다.

내원암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의 한 관계자는 “항일투쟁 선봉에 섰던 운허 스님의 얼이 서려 있는 이 지역에서 친일파 후손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사찰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교계 전체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락산 내원암은 신라시대 창건된 절로, 경내에는 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석불입상이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법장 스님 14일 평양行

6·15축전 명예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명예대표로 참가한다.

지난 6월 8일 6·15남북공동행사 남측준비위 백낙청 상임대표에게 요청을 받고 명예대표직을 수락한 법장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불국사 주지 종상,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 등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남측 참가단은 북측의 요청으로 300명만 행사에 참가한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성보박물관 설립·운영 ‘강화’

조계종, 관련 ‘령’ 입법예고… 필수시설 등 명문화

지난 3월 23일 개정된 조계종 성보보존법과 관련 ‘성보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과 ‘사찰부동산관리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성보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성보박물관이 항온·항습 공조시설, 적정 규모의 수장고 등의 필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제4조)하는 한편, 성보박물관 설립 계획 타당성을 총무원 문화부가 심사(제5조)하도록 했다. 박물관의 1년간 운영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기획 없이 이뤄지는 박물관 난립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정안은 또 성보박물관관장회의와 성보박물관협의체를 구성(제22·23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성보박물관 상호협력 및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정안에는 불교중앙박물관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은 총무원장이 중앙종무기관 부장급으로 임명하며 임기도 보장(제16조)된다.

그밖에 △성보박물관 종사자의 임기와 신분 보장 △항온·항습 공조시설, 적정 규모의 수장고 등 필요시설 구비 △총무원의 성보박물관인가 및 취소 권한 △성보박물관 운영경비는 해당사찰의 지원금과 자체사업비로 충당할 것 등의 조항이 삽입됐다.

한편 성보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화부의 심사절차가 포함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해진 ‘사찰부동산관리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는 재무부가 문화부에 성보박물관 설립 승인신청 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과 박물관 설립시 필요한 구비



어린이 위해 선체조 배워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제39차 연수회가 ‘명상과 함께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6월 4~6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및 컨설팅, 마술의 세계, 초기불교 수행법, 호흡과 걷기 명상, 선체조 등의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사진은 연수회에 참가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정여스님(여여선원 원장)의 지도로 어린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선체조를 배우는 모습. 관련기사 31면 사진=천미희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그림·조태호

도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복지부, 미인가 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방침

시설 일제 점검 뒤 인권침해시설은 폐쇄키로

‘미인가복지시설’ 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6월 3일 ‘선별적 양성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월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일부시설은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국 미신고시설에 전달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해당 미신고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날 발표는 7월까지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복지시설의 폐쇄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미신고시설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수혜자가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인가시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양성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인가시설을 관리하는 관청이 시설별 양성화를 위한 합당한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 미인가 시설은 현재 36개소인데 이 중 4곳을 뺀 32곳이 신고시설 전환을

강원 학인 논문 공모

조계종 교육원 10월 한달간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학인들의 수행기풍 진작을 위한 ‘제1회 전국 강원 학인 논문공모전’을 시행한다.

수행 교육 포교를 비롯한 강원교과목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강원 사집(2학년)반 이상의 학인으로 팀제로 응모도 가능하다. 논문 제출은 10월 1일~31일 한 달간. 대상(200만원) 1편, 금상(150만원) 은상(100만원) 각 2편, 동상(50만원) 3편을 시상한다. 02)732-4923 sisim@buddism.or.kr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신세대 장병 '맞춤포교'로 공략해야

조계종 포교종책 연찬회서 장성화법사 주장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비구니 스님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이외 학교를 졸업한 스님을 군승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군 포교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이하 군종교구)의 출범을 6월말로 앞두고 포교원이 6월 9일 개최한 제2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발표된 의견이다.

이번 연찬회 토론자로 나선 정범 스님(불교신문 주간)은 새로운 군 포교 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단은 동국대 뿐만 아니라 타 대학 출신 스님과 비구니 스님을 군 포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화 법사(군승회의 의장)는 이에 대해 "가톨릭은 이미 군 선교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수녀를 활용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교연찬회에 참관 중이던 중앙승가대 포교학과 원중 스님은 "여성 성직자로서 비구니 스님이 군포교에 강점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며 군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정범 스님은 "군종교구 발족을 앞두고 군 법당에 대한 태고 천태 진각종 등 타종단 지원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성화 법사도 "조계종이 타종단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화 법사는 이날 연찬회 발제문을 통해 변화하는 군 포교 환경에 맞는 '방법론 개발'을 주문했다.

'장병 포교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 법사는 "6월 출범하는 군종교구는 애니메이션 기초 교리서 개발, 불교 음악 밴드 창설 및 군법당 순회 공연, 찬불가 경연회 개최, 군불교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신세대 장병의 종교성향에 맞는 새로운 포교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법사는 "군종교구가 질 높은 포교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때 한국불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군 포교의 장래가 신임 군종교구 집행부를 어떻게 꾸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군종교구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가 의결권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군종교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범 스님은 또 군종교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자립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군종교구가 개신교와 가톨릭처럼 십일조를 받거나 특별분담금 군법당을 지정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일백 스님(연등국제선원 주지)은 "체계적인 군승 교육 시스템을 확립할 때"라고 제안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군승후보생과 예비군승에 대한 교육은 군 포교의 막중한 책임을 진 군승을 키워내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며 "군종교구는 군승을 비롯한 군포교 자원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백 스님은 또 "단일한 교리와 수행 방법론, 의식통일 등을 위한 메뉴 파일의 제작도 신경써야 한다"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승에 대한 엄격한 상벌권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운 스님(고양 정혜사 주지)은 군승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은 제2회 종조도의국사 다례재를 6월8일 조계사에서 5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 사진=남동우 기자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8일 조계사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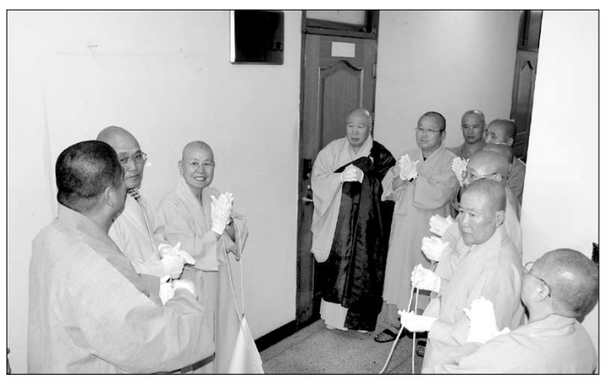
제2회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가 6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행장을 소개에 이어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 스님은 "오직 정법의 당간(憧竿)에 풍번(風幡)을 더욱 높이 거양(擧揚)해 만세(萬歲)에 빛나게 해야 지은(知恩) 보은을 했다 할지니, 모든 조계종도는 국사의 분신처(分身處)를 알아야 출신활로(出身活路)를 얻을 것이니 각자의 입각처(立脚處)를 살필지어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은 우리가 아직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부족한 탓이어서 참괴무량(慙愧無量)할 뿐"이라며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시비마저 일거에 발거(拔去)하고 오직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종단의 면모를 갖추는데 가일층 정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부 상단불공(의식) 2부 법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활안 · 초우 · 혜정 스님,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법진 스님(왼쪽 첫번째) 등이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을 개원하고 6월10일 현판식을 거행하고 있다.

선학원 '한국 불교선리연구원' 개원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도형)이 선학원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을 중앙선원 2층에 개원하고 6월 10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선리연구원은 근현대 한국불교사는 물론 선학원 설립조사와 선사들의 역사사료 발굴 및 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해 선리연구원은 매년 1~2회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총서 발간, 우수논문공모 및 월례발표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 '선학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개설

28일부터 불교학과 10명 신입생 모집

조계종종립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총장 종범)이 대학원(원장 정인)에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6월 28일부터 7월1일까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2002년 11월 대학원 설립 후 3년여만의 일로 스님 전문 정규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학사-석사-박사까지의 학제를 모두 완성한 것.

2005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신입생은 불교학과(불교 · 역경 · 실천불교(포교)학 전공) 10명을 선발하며, 이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승가대는 이를 위해 이미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전임 교원(7명)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김포캠퍼스 내 유휴 교육시설 등의 활용 계획을 세워왔다.

그러나 박사과정 신설을 준비한 학교당국의 의욕과는 달리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조계종 교육위원 한 스님은 "종단의 정체성을 밝히는 종립대학에 최고급학위과정이 생긴 만큼 우수교수진 확보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앞으로 승가교육발전을 위한 학문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이번 2학기부터 석사과정 정원을 30명으로 10명 증원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불교문화재관리학과 불교문화학과 포교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등 총 4개과 50명 정원으로 특수대학원(재가자 입학가능)도 문을 연다. 031)980-7777

조용수 기자

서해교전 3주기 위령제 제2함대 해웅사서

서해교전 3주기를 맞아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한 6명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해상위령제가 봉행된다.

해상 위령제는 6월 24일 6인의 위패가 봉안된 평택 2함대 사령부 영내 법당 해웅사에서 천도재를 올리고,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으로 이동, 제문 낭독과 해상 헌화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천도재에는 전사자 6명의 유가족, 357 전우회 장병 20명,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강유신 기자

선암사 주지에 금용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제 26대 주지에 금용 스님(장흥 장원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부주지에는 승조 스님(선암사 운영위원)이 선출됐다.

6월 10일 선암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에서 만장일치로 주지에 선출된 금용 스님은 "종단 의 수행풍토를 조성하는 수 사찰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용 스님은 1941년생으로 55년 성환(석운)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했다. 59년 선암사 강원 수료했다. 1987~2001년 태고종 광주전남 종회의장, 2000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 장흥 장원사 주지이다.

김원우 기자

'박물관' 계약금 관련 영담 스님 등 기자회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 지준 · 이암 · 지홍 · 영배 스님은 6월 9일 송현클럽 1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중앙박물관 계약금으로 지급된 18억 8천여만 원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L모 퍼스디자인 대표 겸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영담 스님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나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바른처신 아니다" 청정교단비상회의 지적

청정교단수호부패근절 비상회의(공동대표 박광서 등)는 6월9일 영담 스님등의 기자회견과 관련 "내용의 진전 없이 이를 외부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종단운영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해야 할 바른 처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철주 기자

보광사 가처분 '기각' 현중 스님측 본안소송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건과 관련, 현중 · 황운 스님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5월 31일 기각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 선학원측은 "승가전통의 원융살림으로 갈등과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정관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음이 밝혀졌다"고 7일 주장했다.

그러나 현중 스님측은 "진정한 창건주 권한 승계에 대한 논의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한편 현중 스님은 5월 11일 중앙지법 민사 17부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은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을



문화축제에 참가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전통음악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고영배 기자

외국인 문화축제 14개국 1만5천명 참가 성황
지원시설, 개신교 20 · 가톨릭 14 · 불교 2곳
대다수 불교국 출신…지원→포교로 연결해야

불교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월 5일 열린 '외국인노동자 문화축제 2005 Migrants Arirang(이하 문화축제)'에서도 불교계의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대다수가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이 곧 포교'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대부분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문화축제는 스리랑카와 네팔,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시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그러나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미약했다. '작은손길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만이 네팔과 미얀마 공동체를 지원해 행사에 동참한 정도다. 나머지 12개 국가는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들은 불교계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냈다. 스리랑카 노동자 프렘씨(32)는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 등을 건립하는 등 불교계가 해외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의 노동자에게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어리알씨(30) 역시 "안산지역의 경우 개신교 단체가 활발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다보니 주위 사람들이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네팔노동자들을 격려한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교를 국교로 하거나 불교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나라"라며 "어느 종교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불교계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듯해 씁쓸하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불교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은 개신교와 가톨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현재 종교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 40곳 중 개신교는 20곳, 가톨릭 14곳, 불교계 2곳이다. 최근 들어 조계종이 외국인노동자 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교를 신앙하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한국에서 타종교로 개종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화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껄끄러워하던 정부마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지금, 종교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유철주 기자

경천사지10층석탑 이건기 빼내

국립중앙박물관, 조계종 요구 수용

5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조립 · 복원 중인 경천사지10층석탑 사리공에 사리가 아닌 이건기만을 안치한 데 대해 불교계가 반발, 6월 7일 뒤늦게 이건기(移建記)를 다시 빼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계종은 "사리를 넣는 공간에 사리는커녕 이건기만 넣어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탑을 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 규정하고, 6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물관은 불교계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안치한 지 12일만인 6월 7일 이건기를 다시 빼내고 복원작업을 재개했다.

김유식 학예연구관은 "사리공을 비워두는 것이 옳다는 조계종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며 "8월 15일까지 복원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경복궁 야외에 전시돼 있는 석탑 9점에 대해서도 현 상태 그대로 옮겨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은 8일 종무회의에서 종단의 요구대로 이건기를 빼냈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익순 기자

연등축제 최우수상 '국제포교사회'

봉축위, 우수상에 도선사 · 능인선원 선정

불기 2549년 연등축제 최우수상인 봉축상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가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지난 1966년부터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2000년부터는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연등축제의 발전과 국제적인 축제로서의 위상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를 불기2549년 연등축제 최우수상인 봉축상에 선정한다"고 6월 9일 발표했다.

우수상인 연등상에는 능인선원과 도선사, 장려상인 정진상에는 진각종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연합행렬로 불자다운 화합의 모습을 보인 단체에 시상하는 보현상에는 소림사를 비롯한 15개 단체, 부문별 시상인 원력상에는 한마음선원 연희단을 비롯한 10개 단체, 개인별 시상부문은 동대부속여중 권진영 교법사를 비롯한 8명, 특별상에는 광주 봉축위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조를 갖추지는 못했다"고 진단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적 기여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인제대 강재규 교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도 '도롱뇽 소송을 통해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 '천상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경청한 지율 스님은 "세분 학자들의 의미 있는 지적에 감사드리며, 향후 대형 국책사업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천성산, 미성숙한 민주주의 드러내"

동국대 홍윤기 교수 에코포럼서 주장

"한 비구니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밟지 못한 채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마치 기록경기 하듯이 내던져야만 대한민국 시민의 공적 시선과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의사소통 구조'는 아직도 수준에 한참 미달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4일 열린 동국대 에코포럼 '제2회 쟁점심포지엄: 천성산이 제기한 문제와 그 해법'에서 동국대 홍윤기 교수는 천성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의사소통구조 탓이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올해 초 지율 스님의 단식이 "국가와 사회가 의존하는 의사소통의 공적 체계가 온당한 작동 구

대흥사서 체험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대흥사에 가면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만날 수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대흥사의 산사체험 새벽숲길은 사찰체험 위주의 템플스테이와는 성격을 달리해 문화체험 등 대흥사만의 독특한 색깔이 가미시켰다.

한국전통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산사체험 새벽숲길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진행되며 둘째주에는 남도문화체험 산사체험 새벽숲길이, 넷째주에는 주5일 수업에 따른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수 있는 산사체험 새벽숲길이 새로이 신설됐다.

갯벌체험, 들꽃길 걷기, 남도문화체험, 공룡유적탐험등 매월 색다른 주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유혹한다. (061)535-5775 강지연기자

종교계 투명사회협약 동참

지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부문 대표자들이 합의한 '투명사회협약'에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백도웅 · KCRP)는 6월 9일 종로 한일관에서 투명사회협약 설명회를 열고 종교인 대표들의 투명사회협약을 9월경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으로부터 투명사회협약 진행경과와 각 부문별 진행 현황을 보고 받은 각 종단 대표자들은 KCRP 내에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협약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7월초에 열기로 했다.

유철주 기자

승가원 장애인복지관 수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2007년 개관할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수탁 법인으로 선정돼 '장애인 특화법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성북구청이 5월 17일 위탁운영 심사에서 승가원을 위탁법인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확인됐다.

현재 승가원은 성북구청과 하월곡동 부지에 건설될 성북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설계중이며, 건평 6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체력단련실 상담실 치료실 및 장애인주간보소센터와 공동작업장까지 마련해 전천후 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포교 원력 되살리자" 불광사 제2창건 선언

신도교육 강화 · 중창불사 계획

광덕 스님의 '도심대중 포교' 원력으로 창건된 서울 불광사가 제2의 창건을 기치로 전면적인 중창불사와 대중포교에 나서고 있다.

불광사(회주 지홍)는 최근 법당이 있는 송파구 석촌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중창불사'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동안 신도가 지속적인 증가로 공간이 협소해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현대화된 시설에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도회의 규모와 활동도 확연히 달라졌다. 매주 일요법회에는 2~3000명의 신도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부처님오신날 불광사 법당에만 1만개에 가까운 등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월 6일 평창 월정사에서 실시한 '2005년 봉축행사 회향 및 불광 중창불사를 위한 정진발원 순례 대법회'에는 30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했다.

초심자들을 위한 입문교육(4시간)과 기본교육(3개월), 불교대학(2년), 불교대학원(2년) 등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별로 조직된 법등이 자원봉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광사는 향후 '시민선방'을 개원해 보다 내실화된 신행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해인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회장 일면)는 6월 7일 이사회를 열고 해인사 동문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장학재단의 명칭은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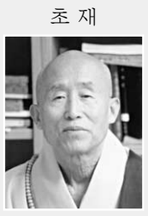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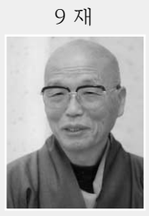
현재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4억여 원을 조성한 상황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 기금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장학재단 이사장 일면 스님은 "1200여 동문의 정성을 모아 후학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선찰대본산 범어사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소원성취 하는 불자님의 가정이 되시길 발원합니다.
금번 본사에서는 자성의 빛을 밝히는 지장 100일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지장 백일기도 봉행 동안에는 각 재일(열흘에 한번) 마다 큰스님들을 모시어, 고승대법회를 개최하여 범어사를 찾는 불자와 부산시민들에게 귀하고 알찬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력 충만한 청정한 법문을 통해 어두운 마음의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여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고, 나와 더불어 인연 있는 선망부모 형제, 유주무주고혼의 영가들이 천도되는 기도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입 재 : 6월 24일(음 5.18) 회향 10월 3일(음 9. 1) - 총 11회 ⊙시 간 : 오전 10시~ ⊙장 소 : 설법전

입 재	초 재	2 재	3 재	4 재	5 재	6 재	7 재	8 재	9 재	회 향
										
6월 24일 (金 음 5. 18) 지유 대선사 범어사 조실	7월 3일 (日 음 5. 27) 월운 큰스님 봉선사 조실	7월 13일 (水 음 6. 8) 무진장 큰스님 前 포교원장	7월 23일 (土 음 6. 18) 현애 큰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8월 2일 (火 음 6. 27) 각성 큰스님 삼일불교교육원 원장	8월 12일 (金 음 7. 8) 정무 큰스님 前 용주사 주지	8월 22일 (月 음 7. 18) 혜정 큰스님 법주사 회주	9월 1일 (木 음 7. 28) 지관 큰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9월 11일 (日 음 8. 8) 천운 큰스님 대흥사 조실	9월 21일 (水 음 8. 18) 보성 큰스님 조계총림 방장	10월 3일 (月 음 9. 1) 고산 큰스님 쌍계사 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梵魚寺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Fax. 051)508-3229 www.beomeosa.co.kr / beomeosa@hanmail.net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6>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일시 : 불기 2549년 6월 5일
■강사 : 정현숙 교수(상명대 가정복지학과)
■주제 :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부부는 희생 아닌 협력의 수평 관계

사회는 변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도 변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든 가장 기초적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가부장적인 틀로써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일까? 다정한 연인들이 결혼 뒤에는 소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아져만 가는 이혼율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 수 있는 구체적 기술로는 무엇이 있을까?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구국구세대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의 여섯 번째 강사로 나선 정현숙 교수(상명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e-가족연구소장)를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 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열정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관계' 놓치기 쉬운 중요성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가치, 즉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부부간의 확고한 믿음과 유대는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자식 역시 부부가 만나야 비로소 생긴다는 점에서, '부부' 라는 수평적 관계가 새로운 가족의 핵심 키워드라고 정 교수는 말한다.

"가정복지학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전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배워야 하느냐' 고 묻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배워본 적조차 없는 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죠."

정 교수는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자녀를 적게 양육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오롯이 부부가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배우자와의 관계가 '화두' 로 떠오른 것이다.

정 교수는 "결혼이란 마치 도자기와 같다"고 말한다. 한번 깨진 도자기에는 물을 담지 못하듯이, 부부관계 역시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부부관계 역시 조심스럽게 노력을 기울이며 닦고 아껴야 하는 것이다. 수백 년 된 도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결혼생활 역시 햇수가 지날수록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

부부들을 대상으로 돈 · 자녀 · 성 · 가사일 · 친척관계 · 여가시간 등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이혼한 부부와 행복하게 오래 사는 부부들이 느끼는 부부간의 불만 요인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들을 차이 나게 하는 것일까. 정 교수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자기자신을 알라

각 개인이 살면서 갖는 관계를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로서의 관계, 일 관계, 친구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들로, 그 중에서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는 있지만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맺을 때에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 속에 사적인 만남이나 개인적인 관계들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한다.

정 교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가족과 나 자신을 지치게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서 정 교수는 나의 취미,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라고 조언했다. 내 꿈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관계를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2.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멀고도 가까운 부부사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일단, 기꺼이 시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들고 날 때 인기척이라도 내는 것이다. 고3인 아이를 둔 부모들은 "나오지 말고 안에서 공부해라"라고 말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인사를 하느라고 공부가 망쳐질리 없다. 오히려 가족 간의 예절을 가르치고, 모든 관계에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바탕이라는 사실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가족들끼리는 반드시 서로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도록 습관화한다.

3. 뭐든 함께 공유하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집이 풍족해도, 부부가 서로 헐뜯고 질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정의 근본은 바로 서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잘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양보다 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답은 '질만큼이나 양도 중요하다' .



그림 : 박구원

정 교수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모님의 일화를 슬며시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공군이셨어요. 퇴역하고 나서야 두 분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친구들을 못 만난다' '때마다 밥 차려야 한다' 며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적응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분은 치열하게 싸운 뒤 '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을 찾았다고 한다. 바로 지역 노인복지관에 가서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것. 따져보면 부부이면서도 일이나 자녀돌보기 등에 쫓겨,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주말에 낚시를 혼자 가기 보다는 부부가 함께 취미나 종교활동을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라

살면서 감사한 일은 무척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 강의를 나가 "아내나 남편에게 고마운 때를 떠올려 보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부부들은 "아내가(남편이) 용돈 줄 때"라고 말하거나 그나마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나 '뭐가 고맙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폭은 훨씬 줄어든다. 고마움도 표현해야 한다. 굳이 고맙다고 말할만한 행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살아있어서 고맙고,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자. 통째로 월급을 가져와서 맡겨준 남편에게, 돈 봉투를 열고 액수를 확인하기 전에 "돈 벌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뭐 먹고 싶어? 내가 2만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 쓸께!"라고 말하면 금상첨화이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부부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정 교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주문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기 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대신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관계의 초점을 부부에게 맞추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낯간지럽고 실천하기 어려워도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 교수는 " '아는 것은 남의 일이고 깨닫는 것은 나의 일이다' 라고 숭산스님이 말씀하셨듯, 가족 사이에서도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다음 주제: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강사 최혜경 · 6월 19일)

■질의 응답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여겨지던 가부장적 가족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은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회로 변화했다. 전통적이고 중요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새롭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관계에 종교생활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부가 같은 종교를 믿으며 종교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즘 사찰에 가보면 청년부, 어린이부, 일반부 등으로 법회를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서 안타깝다. 부부관계 학자로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법회가 보다 많이 개설되기를 바란다.

■정현숙 교수는



1981년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아동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아동학과 가정학석사 과정을 밟았다. 9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가족관계 및 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 가족상담 교육연구소 연구부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로 있으며, e-가족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이혼과 가족문제><가족학이론> <결혼학> <결혼완전정복> 등이 있다.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이름·얼굴없이 평생 무주상 보시

美 교포 허백 거사, 장학금 25년간 전달
5월 28일 타계 … 전북불교대서 추모법회



6월 4일,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법당에서는 아주 특별한 법회가 봉행됐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평생 장학사업을 펼친 어느 재미동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그를 추모하고자 서울, 서산, 울산 등 전국에서 달려온 이들은 대부분 추모법회에 참석하고서야 그의 이름이 해인(海印) 허백 거사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허백 거사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평범한 교포였다. 허 거사는 1981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에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약속하며 추천을 부탁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과 함께였다.

이날 추모법회에서 강건기 학장은 "불자였던 허백 거사는 종교를 초월해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았고, 한번 추천한 이는 공부가 끝날 때까지 도와주었다"며 "그의 삶은 무주상 보시를 실천한 진정한 보살의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25년 동안 허백 거사의 도움을 받아 공부한 이들은 수십 명에 달하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물론 교육계, 공무원 등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법회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가 허백 거사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30여 년 전부터 하루 10원 아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승룡 초원장학회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생면부지의 허백 거사가 1989년 인터뷰 기사만 보고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해 이제까지 매년 1만불씩 보내고 있다"며 "후원금의 일정액을 모아 공익법인 초원장학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이사장은 "회보에 불자인 허백 거사의 이니셜을 따 'H연꽃'으로 소개하다가 우연히 송금 수표가 그대로 인쇄되는 바람에 이름이 나간 적이 있어 호된 꾸지람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허백 거사는 지난 5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향년 76세로 입적했다. 이날 초재를 겸한 추모법회에 참석한 허백 장학생과 불교대학 학인들은 발원문을 통해 "허백 거사의 보살행은 멋진 불공이었고, 그 뜻을 이어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전주=이준엽 기자**

허백 거사의 생전 모습.

"印·中·韓 역대조사 한자리에"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내부에 조성된 한국과 인도, 중국의 역대 조사 진영들.

과거칠불에서 인도, 중국, 한국에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이어온 69조사 진영이 한자리에 모셔졌다.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용성교육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온 70여 분의 조사 진영을 조성하고 6월 14일 '용성 스님 탄신 142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점안한다.

석가여래 부촉법 조사들의 진영이 한자리에 조성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불사여서 눈길을 끈다.

용성 스님의 유훈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도문 스님은 "불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연이 이어온 조사 원류를 밝히고, 한국불교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 조사 진영을 한자리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제대조사 진영은 108평 규모의 용성 교육관 내부 벽면에 전통 불화양식으로 조성되었으며, 80×130 cm 크기의 화폭에 조사 진영과 전법게가 쓰여있다.

동쪽 벽면에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7여래도와 삼처전심도가 자리해 있고, 이어 1세 가섭 존자에서 중국 초조 보리 달마, 해동 종조 태고 보우, 용성 스님에 이르는 진영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다.

또한 교육관 내,외 포벽에는 전법조사 이외에 인도, 중국, 한국의 제대조사와 스님, 재가불자 104분이 조성되어 있다.

죽림정사, 용성 교육관에 69분 진영 조성 … 6월 14일 점안

이번 조사진영 불사는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박시민 고문 · 한명옥 회장 부부가 후원하고 이들의 아들이자 불화가인 박태석(동국불교미술연구원) 원장이 2년간에 걸쳐 직접 조성해 일가족의 원력이 담겨있기도 하다.

박태석 원장은 "<조사원류> <불조진영집>은 물론 현존하는 조사 진영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자료가 없는 조사는 동시대 인물화를 참조했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원효사상 경주서 되살아난다

원효성사봉찬회, 기념관 · 성상 건립 추진

서라벌 천년 고도 경주에서 원효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성상을 건립하는 불사가 시작된다.

원효성사봉찬회(추진위원장 대오)는 6월 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원효성사봉찬회 결성 발기인회를 갖고 경주를 원효 사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발기인회에서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맞게 재조명하여 널리 선양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세계 최대규모(높이 33m)의 원효 성상 봉안과 3층 9백평 규모의 원효 스님 기념관 건립이라는 7년 불사 청사진을 발표했다.

불사는 경주 남산 기슭의 망월사 부지 6만여 평 중에서 전망과 주변경관이 좋은 최적지 1만평에 진행될 예정이며 원효 성사 봉찬 불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기금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효성사봉찬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원효성사 저술집 발간, 십만팔천 해동보살전 조성, 회원제 운영, 성상 복장용 사경문 모집 등의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원효성사봉찬회에는 신라대 총장을 역임한 부산 원효정사 회주 법산 스님,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스님, 요양효 부산대 의대 교수, 심봉근 동아대 박물관장, 박운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원효 스님의 사상으로 인류보편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운영시스템, 전문가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해 범종단 범종교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주=천미희 기자**

단신

홍법사, 홍법바라밀재 봉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신창농장에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천도재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했다.

매년 6월 6일 호국영령을 천도하기 위해 봉행해온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해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창건주인 하도명화 보살,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백련암 원산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문에 나선 백련암 주지 원산 스님은 "본래의 마름 자리를 깨달으면 누구가 부처"라며 "생사가 본래 없는 근본 마음 자리를 깨닫는 공부에 더욱 매진해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갚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홍법대상 수장자로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선각종, 불우이웃에 생필품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은 이달 초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10여 가구에 격려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불우이웃돕기는 지난달 선각종 복지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금한 성금 120만원과 라면, 쌀 등 생필품으로 종단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돌며 전달했다.

이날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선각종은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며 "전 종도와 함께 독거노인 연료비 지원,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옥천 대성사 복장유물 도난

전통사찰인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이 훼손되고 복장유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4일 오전 법당을 정리하던 중 지장보살의 손가락이 절단돼 있는 등 불상이 심하게 훼손돼 있어 살펴보니 복장유물까지 도난당한 상황이었다"며 "경비시스템 전원을 끄고 불전함까지 훔쳐갔다"고 전했다.

대성사는 현재 옥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가정 학교 사회 함께 해결해요"

부산 청소년쉼터 가출예방 토론회

부산시청소년쉼터(실장 지장)는 6월 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가출예방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스님, 최익두 부산시 행정관리국장, 부산시청소년쉼터 실장 지장 스님 등 청소년 시설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출 청소년이 2003년에 비해 26.3%나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소식"이라며 "늘어만 가는 가출률은 부산시 청소년쉼터가 8년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가출 양상에 맞추어 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과 대전 청소년쉼터 소장을 역임한 윤현영씨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은 가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리치 활용' '지역 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특성화와 체계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 김민자 여경기동수사대장은 가출 청소년 보호정책과 선도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서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며 경찰의 청소년 선도 대책으로 스쿨폴리스 운영 등을 내놓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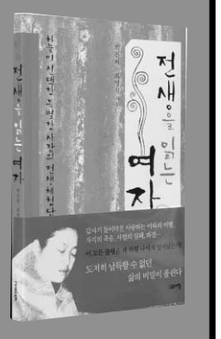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NK N-K NATURAL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묘향산 전 록 탕

건강! 최고의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동의학 박사 허 창 걸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 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

■여름 수련법회

지 역	사 찰	행 사 명	기 간	대상	전화번호
서울	길상사	'짧은 출가 긴 마음의 평화' 禪 수련회	7/24~27 7/31~8/3, 7~10 14~16	중 · 고등부 일반인 어린이	(02) 3675-2868
	광림사 연화원	불교여름캠프	7월말	청각장애인 및 가족	(02) 2202-5831
	불교환경연대	어린이불교생태학교	7/22~24	초등학생	(02) 720-1654
	도선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2~24	초등학생	(02) 993-3161
	진관사	여름불교학교	7/21~24	초등학생	(02) 359-8410
	법장사	어린이 자연캠프 청소년 숲속캠프	7/22~24 7/29~31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02) 971-0303
	봉은사	어린이 여름수련회	7월말 8월초	초등학생	(02) 511-6070
부산	혜원정사	여름수련회	7월말	초등학생	(051) 866-7771
	홍법사	어린이 여름수련회	7/30~8/1	초등학생	(051) 508-0345
	범어사	어린이불교학교 청소년 여름수련회 여름수련회	7/25~27, 29~31 8/1~3 8/5~8, 9~11, 13~15, 16~18, 27~29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	(051) 508-3122
대구	영남불교대학	어린이수련회	7월말	초등학생	(053) 474-8228
	법왕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2~24	초등학생	(053) 766-3747
	하동 연흥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2~24	초등학생	(053) 311-9937
	관오사	어린이 여름캠프	미정	초등학생	(053) 471-6640
	관음사	여름수련회	7월 중순	초등학생	(053) 473-5802
경기	수원포교당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월말	초등학생	(031) 245-7048
	김포 용화사	어린이 여름수련회	8월초	초등학생	(031) 984-3234
	여주 신륵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 청소년수련회 선 수련회	7/29~31 8/1~8 6/18~19, 7/22~25	초등학생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	(031) 885-2505
	남양주 봉선사	여름수련회	7~8월(2회)	초등학생 및 일반인	(031) 527-1962
	화성 신흥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청소년 여름수련법회 성인 여름주말수련회	7/22~24 7/26~28 8/6~7	유치원 ·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일반인	(031) 357-2695
	수원 용주사	효행수련회	7/17~19, 29~31, 8/1~3	초 · 중 · 고 및 일반인	(031) 234-0040
	경기 회룡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	7/23~24	초등학생	(031) 873-3391
강원	평창 월정사	여름 어린이 박물관 교실	7/23~25	초등학생	(033) 334-1817
	원주 구룡사	여름수련대회	7/19~22, 26~29, 8/2~5, 4~12	일반인	(033) 732-4800
	강릉 성원사	여름수련대회	7월말~8월초	초중고 및 일반인	(033) 661-5736
	강릉 현덕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7~31	초등학생	(033) 661-5878
	홍천 선문장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 수련회	7/17~20, 22~25, 7/29~8/1, 5~8	일반인	(033) 443-5845
충북	보은 법주사	여름수련대회	7/14~17, 22~24, 25~27, 7/29~8/1	일반	(043) 543-3615
	단양 구인사	천태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법회	7/22~24	대학생	(043)423-7100
	괴산 다보사	청소년 명상캠프	7/21~24	청소년 및 보호자	(043) 833-7789
	청주 관음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	7/23~25	초등학생	(043) 256-6254
충남	대전 자광사	어린이 여름수련회 청소년 여름수련회	8/6~8 8/13~15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042) 822-9220
	대전 광제사	청소년수련회	8/6~8	초 · 중 · 고등학생	(042) 627-8600
	예산 수덕사	여름 선 수련회	7/20~22, 27~30, 7/31~8/2, 4~6, 10~13, 27~28		(041) 337-6565
	공주 갑사	'부처님 품에서 여름나기' 어린이 · 청소년 여름수련회	7/29~31 7/12~14, 8/5~7	어린이 · 청소년 일반인	(041) 857-8921
경북	경주 골굴사	청소년선무도화랑수련회	7~8월	청소년	(054) 745-0246
	영천 은해사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7월 중 8월초(2회)	초등학생 초 · 중 · 고등학생	(054) 335-3318
	김천 청암사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3~24	유치부 · 초등학생	(054) 437-0038
	의성 고운사	여름수련대회	7월 중순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인	(054) 833-2324
	경주 기림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9~31	초등학생	(054) 744-2292
경남	양산 통도사	여름수련대회	7/23~26, 28~31, 8/2~5, 7~9, 18~24	초 · 중 · 고 및 일반	(055) 384-6380
	합천 해인사	'깨어있는 휴식' 여름수련법회 참선 수련법회 염불 수련법회 주력 수련법회 초중고등부 수련법회 기초수행 수련법회	7/4~8, 7/11~15 7/18~22 7/25~29 8/1~3, 3~5 8/8~12, 16~20, 8/22~26	일반	(055) 934-3110
	하동 쌍계사	'본 마음 참 나' 여름수련법회	7/14~17, 19~22	일반인	(055) 883-1901
	김해 다보선원	반나라마 여름 집중수행	7/13~17 7/20~24 7/25~29 7/29~8/2 8/3~7 8/10~14	대학생 일반인 교사 중 · 고등학생 초등학생 일반인	(055) 331-2841
	합천 백련암	어린이 여름수련회	7/18~21	초등학생	(055) 932-7300
전북	김제 금산사	여름수련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네!' 어린이캠프	7/22~24, 8/3~6 7/29~31	일반인 초중학생	(063) 548-4441
전남	순천 송광사	주말산사체험	7/10~14, 17~21, 24~28, 7/31~8/4 8/7~10 8/12~14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061) 755-0107
	구례 화엄사	일반인 선수련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8/1~4, 6~9, 11~14, 16~19 7/25~28		(061) 782-7600
	해남 대흥사	어린이 숲속마을 청소년수련대회 여름참선수련대회	8/4~7 8/11~14 7/27~31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일반인	(061) 535-5775
	나주 불회사	관음대참회수련회	7/16~20, 23~27, 7/30~8/3, 6~10, 13~17	일반인	(061) 337-3440
	해남 미황사	특별수행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어린이 한문학당	6/18~25 7/24~31, 8/3~10	청소년 · 일반인 초등학교 4~6학년	(061) 533-3521
	장성 백양사	하계 참사람 수련회	7/4~8, 11~15, 18~21, 25~29, 8/1~4	일반인	(061) 392-7502
	고흥 제석사	한국 선요가 수련회 '만법이 하나로 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7/31~8/4	일반인	(061) 835-9594
제주	우리절	동연어린이여름캠프	7/26~28	초등학생	(064) 746-4233
	원명선원	'삶의 체험-참선단식수련회'	7/27~8/2, 4~10, 17~23	일반인	(064) 755-3322

여름 산사 수련회 안내

반갑다 더위야, 근데 어떡하지? 나는 '나' 찾으러 절에 갈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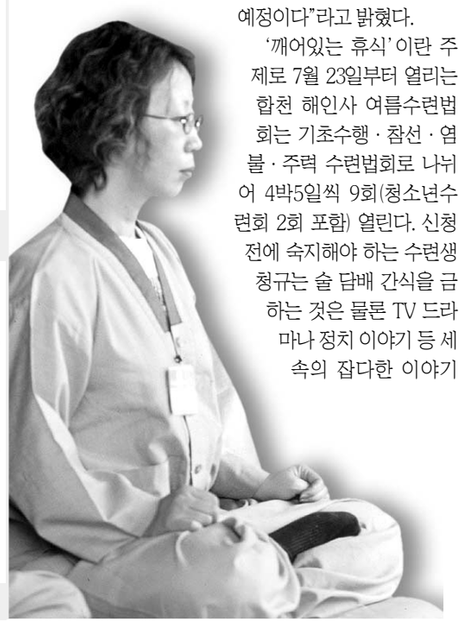
방학·휴가 이용 예절교육, 생태관찰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휴가 때는 마음을 다 비우고 내 자신과 만나고 싶다." "아이들이 방학동안 예절교육도 받고 자연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 없을까?"

여름휴가 계획을 고민 중인 불자라면,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수련대회에 눈을 돌려보자. 올해 불교수련대회는 한결 더 친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수행에 대한 높은 열기를 의식한 듯, 단순한 수련대회 일정에서 탈피해 집중수행기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찰들이 많다. 명상과 요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부쩍 늘어난 것 외에도,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대회 및 여름불교학교에는 사찰 주변 생태계 탐사나 인근 암자순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강도높은 수행…은산철벽 뚫기

짧은 휴가기간을 안거삼아 수행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제주 원명선원은 '삶의 체험-참선단식수련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는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6박7일간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수련대회 기간 중에는 선원장 대효 스님의 지도 아래 보식기간이 필요한 일반 단식과는 달리 수련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단식을 한다. 대효 스님은 "은산철벽을 뚫고자 하는 재가자들을 위해 짧지만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단식과 더불어 간화선 수행법의 기초를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깨어있는 휴식'이란 주제로 7월 23일부터 열리는 합천 해인사 여름수련법회는 기초수행 · 참선 · 염불 · 주력 수련법회로 나뉘어 4박5일씩 9회(청소년수련회 2회 포함) 열린다. 신청 전에 숙지해야 하는 수련생 청규는 술 담배 간식을 금하는 것은 물론 TV 드라마나 정치 이야기 등 세속의 잡다한 이야기도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까다롭다. 주력 프로그램 신청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필히 외워야 한다.



하동 쌍계사는 올해 처음으로 다양한 문화수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본마음 참 나'를 주제로 7월 14~17일, 7월 19~22일 두 차례 실시하는 이번 수련대회는 쌍계사의 특성을 살린 선다 정진, 계곡참선, 달빛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타 사찰 수련대회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어린이 · 장애인가족도 즐겁게 신나게

김제 금산사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네!'라는 유쾌한 주제로 수련대회를 준비 중이다.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도를 깨우쳐가는 과정을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세 차례 진행되는 여름수련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 수련회도 마련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광림사 연화원은 청각 장애인과 가족들을 초대한 '가족과 손잡고 둥근 세상 만들기' 캠프를 준비 중이다. 청각 장애인 법우들과 가족들은 각종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불교학교 일정 또한 다채롭다. 학부모들에게서 폭발적 호응을 얻었던 미황사 어린이 한문학당은 올해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박8일의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불교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불교학교를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신륵사 등지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사찰주변 생태계를 관찰하고 환경자원의 중요성을 공부한다. 꽃잎이나 나뭇잎으로 손수건을 만들거나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신륵사 계곡에 사는 물고기나 수생생물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이 프로그램 '눈에 띄네~'

영화·신행 모두 즐겨요

강원 평창 지암정사

7월16일부터 10차례 상영

한 여름이면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강원도 평창 봉평.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무대인 봉평면 흥정리 지암정사(주지 성담)에서 올 여름 휴가철에 불자들을 위한 추억의 영화가 상영된다.

7월 16~17, 22~23, 29~30일, 8월 5~6, 12~13일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절 앞마당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박노식 김지미 허장강 이순재씨가 출연한 '메밀꽃 필 무렵'. 여름휴가를 지암정사로 가는 불자들은 시원한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옥수수 감자등 강원도 토속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또 영화를 옛 영사기로 상영하는 등 참가자들을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초대할 예정이다.

지암정사 주지 성담 스님은 "여름휴가철을 맞은 불자들과 도시인들에게 지암정사를 열린 공간,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화제를 준비했다"며 "불자들이 문화와 신행 그리고 휴가를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암정사는 前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지암 큰스님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성담 스님과 대원행 보살이 발원하여 2003년 11월 7일 대웅보전과 산신각 1동, 다보사리탑 1기, 요사채 2동의 가람을 메밀의 고장인 평창군 봉평에 건립했다. (033)335-7896 김원우 기자

함께 떠나는 명상캠프

불교진흥원 30돌 기념

괴산 다보수련원(7월 21~24일)

부모와 교사, 자녀가 '수용과 이해'를 함께 배우며 사랑을 키우는 명상캠프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 창립 30주년을 맞아 격월간 <불교와 문화>와 월간 <불광>이 주관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하는 명상캠프가 그 것.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과 부모, 교사가 대상이다.

이번 캠프의 또 다른 특징은 불교수행법을 이용해 긍정적인 사고와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도록 한다는 점. 이를 위해 참선과 경행, 절, 진언 등 불교수행법과 마음나누기, 자기탐구, 집단상담 등 인성개발 프로그램으로 캠프가 짜여졌다.

이 외에도 '있는 그대로 보기' '긍정적으로 보기' '감사명상' '화해 명상' 등 일상생활을 명상과 연관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불교와 문화> 고영인 차장은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키우는 대화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용'과 '이해'를 키우는 캠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착순으로 60명을 선발하며, 참가비는 15만원이다. (02)719-2606 www.bulkwang.org

박봉영 기자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로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초원과 쪽빛하늘이 끝없이 이어지는 몽골 !

불교방송에는 오는 **7월 14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몽골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라마교의 중심지인 간등사원에서의 법회를 시작으로
몽골초원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바얀고비, 몽골의 옛 수도
하르호름의 에르덴죠 사원과 잔바자르 박물관을 방문하며
울란바트르의 테를지에서는 승마와 유목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705의 5301번에서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200,000원 (4박 5일)
- 비 자 : 반명함 사진 1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비자비, 가이드비,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2일전까지
- 출 발 : 7월 14일(목요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7 / 14 (목)	인 천 울란바트르	OM302 전용버스	11:00 14:30	인천국제공항 출발 울란바트르 도착 후 호텔체크인, 자이승 전승탑, 이태준열사 공원 견학 후 호텔휴식	조 중 석	 기내식 중국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2인 1실)		
제02일 7 / 15 (금)	울란바트르 바얀고비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간등사원 법회 및 한몽불교교류간담회 (간등사원:몽골라마교의 총본산, 중앙아시아 최대의 금동불상) 점심공양 후 바얀고비로 이동 저녁공양 후 (몽골전통요리 허르식 제공) 밤하늘의 별 감상하며 캠프파이어	조 중 식	호텔식 한 식 특 식
				HOTEL 게르(4인 1실)		
제03일 7 / 16 (토)	바얀고비 하르호름 만투하이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기상 후 바얀고비 일출감상 및 산책 아침공양 후 하르호름으로 이동 13세기 몽골 징기스칸제국의 도읍지 에르덴조사원 (몽골 최초의 사원 108개의 탑이 있음) 방문, 점심공양 후 만투하이 여제기념비, 한빈사원 방문 울란바트르 귀환	조 중 식	현지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7 / 17 (일)	울란바트르 테를지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잔바자르 박물관 관람 후 테를지로 이동 점심공양 후 거북바위등 기암괴석 감상, 야생화 군락지 관광 후 유목민과 함께하는 승마체험, 미니 나담축제, 몽골 전통공연 관람, 유목민 생활탐방(수태차등 시식, 목가생활체험)	조 중 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7 / 18 (월)	울란바트르 인 천	전용버스 MU5312 MU5041	오전 14:30 17:35	아침공양 후 시내투어 및 자유쇼핑 울란바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성불하십시오-	조 중	호텔식 기내식

문의전화 : BBS 불교방송 (02)705-5301~3 / www.bbsfm.co.kr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천년 세월로 제련된 불심


불국사 주최로 지난 5월 14일 경주에서 열린 '장애인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가운데)과 강주 덕민 스님을 비롯 스님들과 장애인, 시민등 1만여명이 참가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주 · 포항

경주 불교문화유산 보고…풍부한 인프라 자랑

포항 종단·종파 뛰어넘어 지역·종교화합 주도

 # 경주 수많은 사적지와 유물들을 간직하며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로 이름나 있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 남산, 반월성, 대릉원, 산성지구를 포함하는 역사유적지구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으며, 남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천년고찰과 크고 작은 사찰들이 수행과 포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있다.

특히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는 삼국이 통일되어 모든 문화가 골고루 발달하던 시기에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땅위에 옮겨 세워졌다는 한국의 대표사찰이다.

경주에는 불국사 외에도 불교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천년고찰이 즐비하다. 백률사는 이차돈의 순교설화로 유명하며, 석굴암은 신비한 조형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원정사의 숲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딴 기림사는 해방 전만 해도 일대에서는 가장 큰 절로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렸던 곳이다.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되어 원효와 자장이 거쳐간 절로 유명한 분황사는 원효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매년 원효재향대재와 원효예술제, 원효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원효사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 10년째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는 분황사는 금년 내로 금당과 모전석탑을 복원할 계획이다.

타 지방과 달리 지역 사암연합회가 없는 경주는 불국사를 중심으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에 70여개의 말사가 지역불교계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국사는 경주시내에 건립한 불국사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불교교양대학과 문화교양강좌 등을 개설, 지역 포교에 힘쓰고 있다. 또, 교도소 봉사활동 신행회인 교정 불자회 청심거사림회 합창단 운불련 등 불국사 산하 17개 신행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국사의 자랑은 500여명이 넘는 불국사 자원봉사단. 2002년 10월 경주지역 본말사 신도회와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다.

불국사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동도 돋보인다. 불국사는 지난해 9월 경주 동천동에 연면적 1000여 평의 불국유치원과 성림어린이집 불사를 마치고 어린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개최하는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대회는 올해 20회째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생대회로 각광받고 있다.

이밖에 경주에는 조계종 종립 동국대와 진각종 종립 위덕대가 있어 불교적 소양을 갖춘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고 있다. 또 경주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연구소와 문화시민단체들이 경주불교문화를 연구하고 보존 계승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불교를 이끄는 안팎에서는 구축된 풍부한 불교 인프라를 통해 사회 · 문화적 영향력을 더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국사와 두 종립대학, 문화시민단체가 3박자를 맞춰 조화롭게 역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포항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해맞이의 고장'으로 동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포항은 인구 51만의 과학기술도시로, 세계 제일의 철강 회사인 포스코(POSCO)와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개발 시대 주목받기 시작한 신흥도시로 타 종교에 비해 불교세는 미약한 편.

해안 도시의 특수성 탓에 포항도 전통적으로 샤머니즘 성격의 무속신앙이 발달했다. 또,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대형 교회가 3개나 들어서는 등 어느 지역보다 기독교세가 강하다. 때문에 다종단 다종파로 이뤄진 기존 포항불교계의 활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종교화합을 주도하고 활발한 대사회적 활동을 펼치며 포항불교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열린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에서 불거진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적 행동에 대응해 포항불교계가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범불교도대회에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영남 불교도 3만명이 집결했으며, 정시장의 사과는 물론 기관장 홀리 클럽 해체까지 이끌었다.

30년 역사를 가진 사암연합회가 다양한 종단 구성으로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후 포항에는 종교간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4월 26일에는 '지역과 종교계의 화합을 위한 포항 합창 페스티벌 '이불교연합합창단(죽림사, 문수사,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과 기독교계 합창단(포항아가페합창단, 포항 크리스천 코랄 합창단,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비롯해 포항시립합창단 등 10개 지역합창단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지역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불교 신행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이다. 5월 31일에는 지역의 20여개 신도, 신행단체로 구성된 포항불교 신도단체협의회를 탄생시켰다.

한편 포항불교계에는 기존 사암연합회(회장 난승 · 운흥사주지) 외에 포항범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은 · 무량사주지)가 새롭게 구성됐다. 법화종 관음종 원효종 선종 등 범종단 50여개 사찰이 회원으로 등록한 범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4월 12일 초대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대회를 갖는 등 기존 사암연합회와 차별화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법회대신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호국선열위령제를 지내기도 한 범불교사암연합회는 12월 15일 범불교도대회 1주년기념행사를 준비중이다.

경북에서 가장먼저 불교계 복지관을 수탁한 포항불교는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이사장 난승)'을 통해 지역복지를 이끌고 있다. 열린가람이 운영하는 무료노인요양원 정애원은 약 일만 여평의 공간에 3천여평의 잔디구장을 가꾸고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열린가람을 추구하고 있다.

경주 · 포항=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전방위 포교 시스템 구축

종상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조계종 제 11교구본사의 수장으로 경주불교를 아우르고 있다. 2002년 불국사 주지에 취임한 스님은 본말사 신도회와 불국사 산하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발족해 지역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또 불국사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불교교양대학과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개설해 지역포교와 신도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지난해 지역 최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건립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외 무료급식,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대사회적 활동에도 열심이다. 불국사의 사격에 맞춘 고건축 양식의 성보박물관과 템플스테이를 위한 연수관, 노인유료요양시설 건립도 준비중이다.

장애인 템플스테이 계획

종광 스님 (경주 기림사 주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종광 스님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된 2001년부터 운영을 맡으며 지역복지 일선에서 활동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편협된 생각에 가로막혀 50평생 집 밖에 나오지 못한 재가 장애인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종광 스님은 기림사를 장애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6월 하순경 개관예정인 유물 전시관에는 고려말기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260여점의 서책과 건칠보살좌상(보물 415호) 등이 전시된다.

재가불자 교육 · 조직 앞장

석관 스님 (경주 보광사 주지)



석관 스님은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활동이 미비했던 1990년대 경주시내에 포교당 고불선원을 열고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와 교육을 시작했다.

불교교양대학과 노인불교대학 등을 열고, 합창단 어린이회 학생회등 11개가 넘는 신행단체를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활동할 수 있게 이끌었다. 이후 스님의 포교 원력은 포항까지 확대돼 1994년 포항 고불선원이 문을 열었다.

어린이법회 특화 호응 커

종문 스님 (포항 죽림사 주지 · 포항불교대학장)



2003년 시내중심에 자리한 포항 포교당 죽림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2년제 포항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지역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생군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역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풍물, 서예, 한문, 요가, 종이접기 등의 특별활동으로 특화시킨 어린이법회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해병대 훈련병 수계법회는 지역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재 탐방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수행법회 활성화 박차

용암 스님 (포항 황해사 주지 · 천태종 교육부장)



천태종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용암 스님은 지역불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깨침의 종교인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법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정례법회 전후 5일간을 기도주간으로 정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철야관음기도로 깨달음을 경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극빈 노인이나 결손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불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도 방문…고통 함께 나눠

혜명 정사 (포항 보정심인당 주교 · 진각종 사감원장)

혜명 정사는 부처님 공부의 핵심이 인과법과 마음법에 있다고 강조한다. 시종일관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혜명 정사는 10년 전 보정심인당에 부임한 후, 찾아가는 불교, 활동하는 불교를 주장하며 직접 신교도를 방문하고 고통을 함께 나눴다.



또, 보정 유치원과 주1회 어린이 자성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 어린이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진각종 32대 사감원장에 선출된 혜명정사는 위덕대 이사를 겸하고 있다.

재소자 교화 힘쏟아

운산 스님 (포항 도선사 주지 · 총화종 경북종무원장)



경북지역 총화종 소속 50여개 사찰을 이끌고 있는 운산 스님은 매월 셋째 수요일 청송 제1감호소와 제2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의 교화에 힘쓰고 있다. 출가 때 이미 중생제도에 원력을 세웠던 운산 스님은 앞으로 재소자 교화를 총화종 경북종무원의 사업으로 확대시켜 경북 지역 모든 총화종 사찰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병원 환자 위로 · 신행 상담

무구 스님 (동국대 경주병원 지도법사)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560여 병상의 환자와 가족을 위안하고 600여명의 의료진과 직원의 신행상담으로 하루 해가 짧다.

매년 지역 사찰과 인근 농촌지역의 무료진료활동을 지도해온 무구 스님은 병원 직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우면서 의과대학 부속경주병원 · 한방병원 · 포항병원 불교회 회원들이 보살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신행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포항 청년 · 거사림 법회 '산파'

임문환 거사 (초대 포항불교청년회장)



1957년 제6대 포항불교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임문환 거사는 포항불교청년회와 거사림회의 창립회원으로 포항불교 재가단체의 산 역사다. 1960년 임문환 거사를 비롯한 포항불교학생회 동문들에 의해 창립됐던 포항불교청년회는 오랜 역사 속에 포항불교청년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여 수행과 포항불교 외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행 · 시민문화운동 견인

진병길 원장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불교의 역사, 문화유산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온 장본인이다.

경주 영남불교학생회를 거쳐 동국대 대불련 활동을 했던 진병길 원장은 YMCA처럼 대중화된 불교시민문화단체를 만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강북장애인복지관 댄스교실



"발을 이렇게 한 번 뻗어보세요. 잘 하셨어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에어로빅실에서는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 장애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복지관에서 마련한 '살맛나는 댄스교실' 프로그램 덕분이다.

언제나 위축됐던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강북장애인복지관이 5월 26일 개설한 '살맛나는 댄스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진행돼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2)989-4215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대원정사 '민수돕기' 나섰다

1차 치료비 500만원 전달…내달 서울·부산서 후원법회

본사 '민수돕기 캠페인'에 동참



부산 대원정사 양재형 상임법사(사진 맨 왼쪽)가 민수 부모에게 대원정사 · 대원불교대학에서 모금한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병으로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대원정사 · 대원불교대학이 본사가 벌이고 있는 민수 돕기 운동(현대불교 529호 8면 기사 참고)에 동참했다. 부산 대원정사 양재형 법사가 5월 30일 부산 대학병원에서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 중인 김민수(4) 어린이에게 1차 치료비 500만 원을 전달한 것.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와 대원불교대학 신도,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웃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불자가 되자는 취지에서 '자비나눔실천 생명 등 달기' 행사를 벌여 조성된 것이다.

이날 부산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양재형 부산 대원정사 법사, 대원정사 신무인 신도회장, 윤분자 총무, 정성자 재무 등 신도들이 참석해 서울과 부산에서 봉축 기간 20여 일 동안 모금된 성금과 신도들의 마음까지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참석한 신도들은 면역이 약해진 민수를 가까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먼발치에서 민수에게 인사를 건넸고 민수도 손을 흔들며 웃어보였다.

신무인 회장은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소식을 법사님께 들었을 때는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민수가 손도 흔들고 대답도 해서 마음이 놓인다"며 "관음재일에 대원정사 전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민수의 완쾌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형 법사 또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불자의 대사회적 의무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르침을 제대로 펴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수가 건강해질 때까지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정사 · 대원불교대학은 7월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민수돕기 후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대원정사 · 대원불교대학은 한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보시 실천이 대원정사 신도들과 학생들의 신행과 결속력 강화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비나눔 실천 사업을 더욱 확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051)583-7811 **글 · 사진/부산=천미희 기자**

도와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6월의 환우 'IgA 사구체신염' 앓는 유현혜씨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생명나눔실천본부(대표이사 법장)가 6월의 환우로 선정한 유현혜(27 · 사진)씨는 자신의 아픈 몸 때문에 딸을 볼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2002년 3월 신장염의 일종인 'IgA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고 충남대병원에서 외래치료 중인 유씨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이행단계에 있다. 만성신부전이 될 경우에는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수술이 불가피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외롭게 살아온 이씨는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고자 'IgA 사구체신염'의 합병증인 빈혈과 당뇨 앞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



문제는 치료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자체적인 생활비 조달마저 힘든 형편인 유씨에게 치료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딸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유씨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감로회 보살들

목욕·식사 수발 손발이 '척척'

서울 시내에 이런 곳도 있다니. 은평구 진관외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인덕노인복지회관(관장 도광)의 풍광을 처음 대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등산객이 줄을 이은 6월 8일 아침. 수요일마다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찾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감로회(팀장 노옥순) 7명의 식구들은 등산로 대신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복지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감로회 보살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는 것이다. 체력 소모가 많은 봉사지만 보살들은 묵묵히 해낸다. 그렇지만 이들도 처음 봉사 할 때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대변을 보기도 하고 할퀴고 발로 차는 통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복지회관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은 이제 그런 일을 웃어넘기게 만들어놓았는지 지금은 보살들의 얼굴에 여유가 넘친다.

목욕봉사만도 힘들 법한데 감로회는 11시 30분부터 어르신들의 식사 수발까지 든다.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드시게 할까, 고민이다. 영숙(가명 · 75) 할머니처럼 입조차 벌리지 않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면 문득 '이게 도 닦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힘든 일정속에서도 감로회 보살들이 봉사를 그만둘수 없는 이유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치매 어르신들이 맑은 눈으로 "고맙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르신들과의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졌지만 노옥순(67) 팀장에게 복지회관 성례(가명 · 73) 할머니의 처지는 너무 가슴 아프다.

"그 할머니랑 분위기 좋은 찻집 가서 차 한 잔 마시자 그랬는데, 지난봄부터 몸이 안 좋으시더니 이젠 말도 잘 못하시네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약속 지키려면…."

노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팀원들의 따스한 마음, 그것이 감로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김강진 기자**



체력적으로는 누구나 힘든 봉사. 그러나 감로회 보살들은 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 7년 넘게 어르신 목욕 및 식사수발 봉사를 묵묵히 해내고 있다. 사진은 6월 8일 봉사모습.

▮치약 · 비누 · 기저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필품. 치약이나 비누 같은 소모품과 어르신들을 목욕시킨 후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로션이나 오일이 항상 달린 감로회 보살들은 "아무래도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시는 어르신이 많아 기저귀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살짝 귀띔했다. (02)385-8205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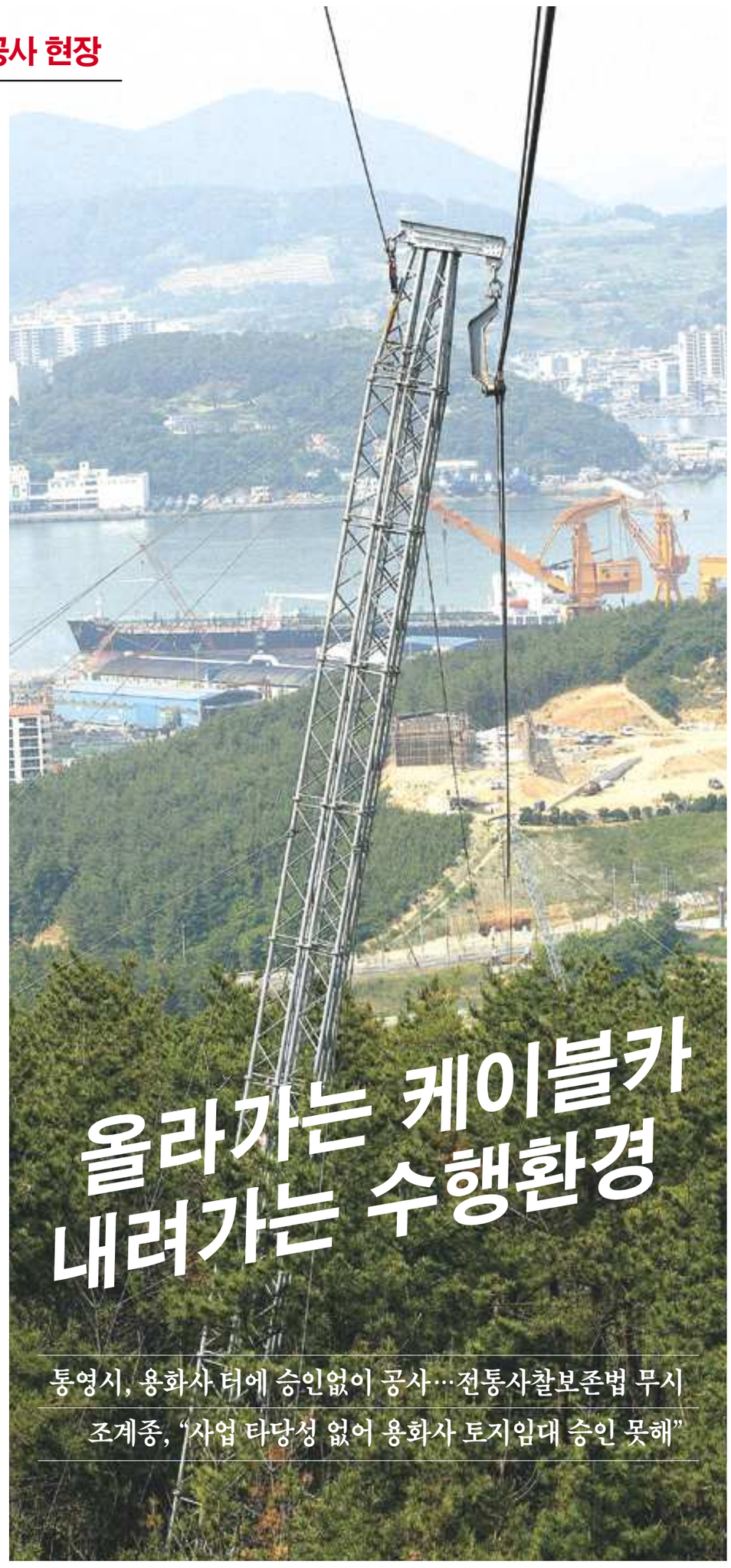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션 시 공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



올라가는 케이블카 내려가는 수행환경

통영시, 용화사 터에 승인없이 공사…전통사찰보존법 무시

조계종, "사업 타당성 없어 용화사 토지임대 승인 못해"

철커덕!

자재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자재운반용 케이블카가 미륵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쉭! 드르르! 굵게 늘어진 케이블카 선로를 따라 케이블카가 위로 올라가는 요란한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6월 8일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현장답사를 위해 통영을 찾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정업 스님과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 통영시청 관계자가 자재운반용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미륵산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

상부 정류장 공사가 진행 중인 미륵산 정상 부근은 전통사찰인 조계종 용화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총 1975m인 케이블카 선로 중 573.8m가 용화사 땅을 지나야 한다. 이는 1700여 평 정도의 용화사 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케이블카 완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용화사가 조계종 총무원에 토지 임대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통영시는 조계종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이미 용화사 토지를 사용하며 케이블카 선로를 설치했고 공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절차를 명백하게 무시한 처사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정업스님(중앙)이 미륵산에 올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영시를 방문한 정업 스님도 이를 지적하며 "통영시가 절차를 밟지 않고 종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종단을 종교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을 출발, 미륵산 정상에 올라 한산대첩 현장을 한눈에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한 미륵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

미래사 주지 여진 스님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통영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흑자를 장담했지만 이제 케이블카 사업은 적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뻔히 보이는 적자를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통영 시민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케이블카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 불교계 내부 손실 또한 크다"며 종단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을 답사한 사회국장 정업 스님은 "케이블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단체가 반대해도 토지 승인을 받아들이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환경이나 수행 등에 악영향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승인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했다.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되면 총 1975m의 선로에 47개의 8인승 캐빈(객실)이 매달려 산을 오르내리게 된다. 결코 크지 않은 미륵산 자락을 오르내리게 될 47개의 객실을 상상하는 사이 자재운반 케이블카는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통영=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왜 문제인가

생태계 파괴 · 적자운영 불 보듯… '전형적 전시행정'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공사로 적지 않은 수목들이 잘려나갔다.

1996년 6월 통영시가 관광케이블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총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케이블카 왕복운행에 필요한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왔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오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재개해 현재 40%의 공정에 이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단체와 불교계 관계자들은 그리 높지 않은 높이(461m)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정류장 대형 시설물과 케이블을 지탱하기 위해 세워야 할 54m의 철탑 등이 미륵산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목제거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류와 상부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은 정류장에 인접한 미래사 등의 수행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경관 체험을 선호하는 최근 관광추세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카 이용료가 6000~9000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연 30만 명 이상이 이용해야 적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현지인들의 반응이다. 한려수도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정책실장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데도 통영시가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 건설업자와 토호들의 입장을 대변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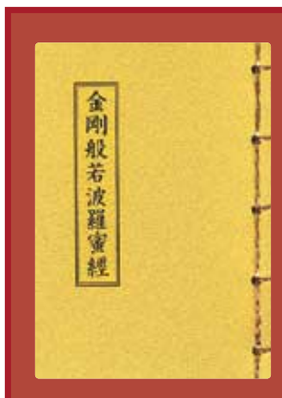
이와 함께 통영시가 정류장 부지 소유주인 조계종으로부터 토지 임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주요 일지

2005. 5. 통영발전시민협의회, 통영시 노조는 케이블카 설치 찬성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반대입장을 각각 조계종에 전달
2005. 2. 용화사 조계종에 토지 임대 사용 승인 신청
2004. 9~10. 통발협 창립 및 통영시민 케이블카 설치 촉구 서명운동
2004. 4~5. 조계종 중앙종회 · 총무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성명서 발표
2003. 1. 용화사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5월에 바로 취하
2002. 12. 공사 착공
2000. 12. 조계종 총무원 설치 반대 성명서 발표
1999. 11~12. 시민토론회 등 개최
1999. 8. 통영시-환경부, 미륵도시자연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1997. 12. 건교부 승인
1996. 6. 관광케이블카사업 추진계획 수립

불경금책



(1) 실물크기(3.5×5cm) – 금강경 24매
(2) 실물크기(5×7cm) – 금강경 24매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고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 소장용으로 최고급 소형금병풍도 주문제작 한다. 기도정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불경금병풍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 37cm× 세로74cm)

소법당,스님방,불자님 개인소장용
합격기원, 소원성취,백일기도 재례용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야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生命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회원 늘리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회원들은 점점 나이 들어 직장을 떠나는데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없고….'

같은 직장,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400여 신행단체들의 솔직한 고민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원을 늘리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의 상당수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단체들이 있다. 모임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의 방법과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동료들을 도반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요한 점은 모임을 알리고 내실을 기하는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직능단체들의 회원 수급문제의 활로는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포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은 소비보호원 불자회 회원들의 대화포교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특별활동·전자우편 홍보 등 효과

정기법회·성지순례 꾸준히 … 전문화된 '1대1 포교'

#활발한 활동이 최상의 홍보

전체 1800여 직원 가운데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 유마회(회장 권대용). 1988년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이후 이처럼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심 깊은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있다.

창립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유마회는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등 유마회의 활동을 시청내 모든 사무실에 알리면서 회원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시청내 인트라넷 게시판은 물론, 모든 직원에게 e메일을 발송했고 산하기관까지 공문을 보내 유마회의 활동을 소개했던 것.

여기에 유마회는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들의 종교파악에 나섰고, 불자들을 대상으로 1대1 접촉을 시도했다. 유마회는 이 방법을 통해 톡톡한 성과를 얻었다.

활발한 활동이 최상의 홍보라고 강조하는 박영홍 유마회 총무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인식시켜줄 때 회원도 는다"고 조언한다.

#성지순례 활용하라

경향신문 불자회(회장 김종두)는 바쁜 업무로 회원들의 직장내 신행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게다가 창립 초기 열정이 점차 식으면서 법회 참석률이 점점 떨어져 존폐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경향신문 불자회는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성지순례(사진)를 탈출구로 삼았다. 회원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게 성지



순례를 개방하면서 회원외 참가자가 생겨났고,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며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현재 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종두 회장(신문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도 성지순례에 참가했다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다.

김종두 회장은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은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매여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며 "직장모임에서 떠나는 성지순례는 직장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불자회 입장에서 보면 좋은 포교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전문 포교인력 키워라

22개 모임으로 구성된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 이하 철불협)는 포교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을 기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철불협 회원이면서 조계종 포교사인 19명의 포교 전문인력으로 포교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 여기에는 일부 핵심일꾼의 주도로 모임이 운영되는 직장단체의 특성이 고려됐다.

철불협 포교위원들은 직장단체의 주요 포교수단인 1대1 포교에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있어 회원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의 길라잡이의 역할과 법우회 창립, 연대활동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찬연 철불협 포교위원장(성북승무사무소)은 "어느 모임이나 헌신적으로 활동할 포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인재를 키우고 활용하는 것은 직장단체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박병주

부산 사하구청 불자회 총무

"태평양은 아무리 넓어도 단 한 사람의 갈증도 풀어줄 수 없지만 작은 우물은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끌어주는 편안한 인연이 되고 싶어요."

부산 사하구청법우회(회장 장일용)에는 '작은 우물' 같은 사람이 있다. 박병주(42 · 정혜) 총무다. 97년 1월부터 법우회 활동을 시작한 그가 총무를 맡은 것은 2000년.

일 · 수행 모범적인 불자

'구민을 부처님처럼 존중'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교리, 사찰 예절, 경전, 불교예술 등의 공부를 온라인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홈피 제작을 위해 서적을 뒤적이고 여기 저기 조언을 구하며 스스로의 맑은 우물을 가꾸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3년 연합회 홈페이지가 생기기 전까지 그의 홈페이지는 회원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작고 맑은 우물이 되었다. 또한 박총무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의 장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는 불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공익을 위하는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일로써 보리를 추구하고 주민들을 대하면서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소신은 사하구청법우회 전 회원의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부처님처럼 존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

또한 박총무는 회비 납부를 자동이체로 바꾸어 들쭉날쭉하던 회원수를 40명 선으로 확보하고, 봄 가을 삼사순례나 부산시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최익두) 주최 행사 때도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해 동참률을 높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챙겨나가면서도 박총무는 "하는 일이 없다"며 겸손해 한다. 오히려 장일용 회장과 장영석 수석부회장 등이 정신적 지주처럼 받치고 있어 편안하게 심부름을 할 수 있다고 공을 돌리기에 바쁘다. 무색, 무향의 물맛처럼 내세우지 않은 박총무의 신행은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 일까지 내 일처럼 챙기며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박총무는 10주년을 맞아 법회 자료집 발간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늘 금강경을 독송하고 108배로 마음을 맑히는 작은 우물, 박총무가 있어 법우회 회원들은 그 우물가로 모여든다. 천미희 기자

김태영 문사수법회 대표 법사가 일러주는 직장내 포교

나로부터 인재양성, 스스로 포교 인력돼야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은 본인이 확고한 신심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불자라면 당연히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며, 전법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 하기 힘들다. 전법은 불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포교는 직장동료들이 포교하고자 하는 이의 생활을 보고 '불교를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나로부터의 인재양성, 즉 스스로 포교인력이 돼야 한다.

회사내 모든 직원이 열람가능한 인트라넷 게시판에 경구와 불자모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사찰 · 기관에서 기도 · 정진 · 법회를 진행해야 한다. 신입직원 교육이나 직원연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종단이나 사찰의 도움을 요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

청불회, 활안 스님 지도법사 추대

"불자 소양, 국정 운영 수행하는 지혜 배울 것"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는 회원들의 신행을 지도해줄 지도법사에 조계종 원로의원 활안 스님(사진)을 추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인식 청불회 수석부회장(농어촌비서관)은 "청불회원들은 앞으로 불자로서의 소양과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지혜를 배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불회는 또 7월 1일 수계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월 한차례 열고 있는 정기법회에서 회원들이 다양한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인근 사찰과 스님들을 초청해 신행을 다질 예정이다.

활안 스님은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하고 순천 송광사 천자암 조실로 1999년부터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박봉영 기자

"호국 · 지역민 위해 발원합니다"

서울 은평구청 · 영주승무사무소 불자회

직장불자들이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지역민을 위한 서원을 담는 기원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진관사에서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법회에서는 은평구청 불심회원들의 호국 · 지역민을 위한 기원문 낭독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성운 스님의 법어, 임승업 서울시의원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주민에 대한 표창과 모범학생 · 상이군경 자녀 20여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앞서 현충일인 6월 6일에는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법우회 주최로 영주충혼탑 앞에서 호국천도재를 열었다. 영주승무사무소 법우회는 호국영가들의 위패가 봉안된 충혼탑에서 1991년부터 15년째 천도재를 개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찰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칼라 / 신국판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불(寫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는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 249쪽/50,000원 【2권】 269쪽/55,000원 【3권】87쪽/20,000원 【4권】55쪽/15,000원

● 사불 교본 1, 2, 3, 4 (책크기 : 4절 395 × 545mm)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불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재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재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재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억불정책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님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템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명리학 무료
초급반 00명 · 고급반 00명
• 기초에서 전문과정 까지 가르칩니다
• 지금 무엇을 할 까 망설이는 분
• 공부는 했으나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
• 수강료 부담으로 독학 하시는 분
• 회원제로 운영되며 월 회비 3만원
해수 명리 연구원 원장 직강
문의 전화 : 02)3453-0001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 전화국 앞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안식 | 용왕산신재 | 바라나비춤 | 상가영불 | 천도시식전문 |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학 인 모 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범음 · 범패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무보시 학인을 모집합니다.
바라, 사물 다루는 법, 49재, 의식 및 전통교육
문의처 055)381-1199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바라춤.작법.살풀이
49재,천도재,기타의식에 정성을 다해서 안무해 드리겠습니다 _()_
010-9209-0142
불교무용 속성 강좌

총무 구합니다
PC사용 가능자 경력자 우대
(40~50세 女)
60대 후반, 숙식 공양주 모십니다
011-493-11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성불사
011-591-8228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 임휴사
053)632-4844
053)641-48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010-7160-2734

모십니다
• 조건: 년령 60세이상
1. 가급적 외로운 노부부
2. 불교신자
• 주석할곳: 강원도에 위치한 모사찰
02)582-8609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부전도 가능함
010-6399-7546

승용차를 보시해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소승은 깊은 산사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는 비구입니다. 교통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11-9601-6676

행 자 모 집
천일기도후 수계
자격: 40세 미만, 남,녀 고졸이상
천일기도 의지가 있는 분만 연락요!!
011-468-9022

천일기도 하실 스님, 기도하실 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경북
011-561-66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02)917-336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017-260-3310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스님에 한함
011-9517-5017
051)635-3743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 50-60대)
043)643-4733
019-540-745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서울 구로구)
011-228-954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011-9723-09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9-280-0093

행자,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논산 지장암
041)732-5629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30~50대
011-828-3618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에게 달마그림 보시해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010-6462-0343
주강합장

기도스님,행자 모십니다
▷부산
016-9730-30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384-7557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株)天星建設 (株)天星設備 (株)天星石材
■ 공사부문
◆ 각종 설비부
· 각종 설비 일체
· 철거외 배관 및 종합설비
◆ 석재부
· 石, 조각 석물 일체
· 石, 불상, 좌상, 미륵
· 石, 탑, 마애불상 조각
◆ 건설부
· 石굴, 납골당조성
· 石, 축대공사 및 보수
· 石굴, 법당조성
· 石, 공사일체
본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벽산B/D 301호(기계 및 자재 창고 관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10-1(2층)
041)335-0725, 335-0726, 335-0727, H.P 010-3116-6955
상무 박창신 (株)天星建設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7926-1259 / 011-741-0867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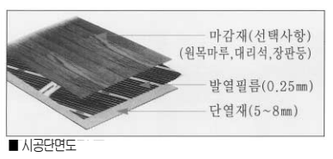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충혈,눈물,피로,눈곱,눈이 뻑뻑함
*침침함,눈부심,안구건조,가려움등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KIST승인 KDAR03G-3K
일본 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제조 : 日本(株)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http://eye88.hihome.com
- 특 보 -
각종 암,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암세포의 증식,전이를 막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토를 실현코저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0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天地運氣 通達 神法
◈ 수맥, 생기, 사기, 혈자리, 좌향, 예언 감별법
• 사람의 일생을 과거와 현제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법
• 양택(집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 잡는법
• 음택(묘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와 생기사기 수맥, 젊고 늙은이와 남과 여를 묘만보고 시신을 보는법
• 황천살과 팔효황천살을 양택, 음택에서 보는법
• 빙의된 영가를 보는법과 병든 환처를 찾아내는법
• 비보와 비기로 양택 음택을 명당으로 돌리는법
멀리서 원격으로 가보지 않고도 수맥과 생기 사기 황천살 등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으며 음택인 경우 자손에게 어떠한 화가 미치며 양택은 본인과 가족에게 화는 어떻게 끼처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방편을 세워 차단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 강의시간 : 6월 25일 오후 5시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무교육 숙식제공 : 보시금 2백만원
(전화일체사절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663-2159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제부터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 난방시대입니다.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필름난방만의 특징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등 바닥과 벽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법당 : 17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 3천

• 위치 : 전북 전주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실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불심 돈독하고 믿을 수 있는 사무장 모실 사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큰사찰-45억
② 경기신축사찰-4억3천
③ 강원문화재사찰3만2천평-7억
④ 경기산속사찰3000평-8억
⑤ 봉천동사찰175평-4억5천
⑥ 서울토굴국유지150평-1억5천
⑦ 충청여법한사찰3천평-9억
⑧ 여주1200평-1억2천

♦사찰다량보유,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롤게이트 인접
• 1,2층 찜질방 단식원 3층 요사채, 방5, 4층 법당 건평 250평, 대지 170평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 건물만 사실분은 현시세에 땅값만 받고 내어드립니다.

011-857-37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대동면 외안리 마산마을
• 법당: 약 20평, 삼성각
• 가액: 전세 2천만원 년 2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26-902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 겸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 비구니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

011-650-8481
032)667-8485

도심속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8×6미터 코너 112평 건평 120평 1층상가 4개 2층법당 최고시설 완벽함 1층상가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가액 4억 8천중 상가보증금 융자금 빼고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 답사하시어의논바람
• 주차 80%.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010-3166-8483/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부지 : 2,000평(평지)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3동)
• 양도가 : 15억(대출가능)
※ 강남 30분거리, 최고 요지임

• 위치 : 대구시
• 부지 : 3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6억
※ 계곡,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시설비2500만원

011-253-772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20평,요사채 30평 주지실 3평
• 주차장 200평

051)941-0195
010-6480-6960

사찰(급)안내

• 위치: 마산시 근교
• 대지: 600평
• 건물: 대웅전, 요사채 (토담 신축 고건축)
• 가액: 4억원(절충가능)
• 기타: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30-1808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 구조: 대웅전 및 부속건물 58평
• 가액: 1억1000만원 (비구니스님 적합)

011-9405-8186
043)733-818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구미시 소재
• 부지 : 140평(3층 건물중 3층)
• 법당 : 100평 (방4개, 옥상 사용 100평)
• 가액 : 2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 포교당으로 법당 시설비만 1억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
• 부지 : 약100평
• 법당 : 35평(2층, 단청)
• 요사 : 35평(1층, 단청)
• 가액 : 2억3천만원
• 특징 :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니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내
•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40평
• 가액: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135-8229
011-9638-8229

포교원 안 내

• 위치: 대구
• 건물 2층 총 70평 방2개,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822-6104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초구 방배동 4층 48평 (이수역 4, 7호선 환승역 2분거리)
• 가액: 보 3000 / 월 100(보증금 조절가) 시설비 답사후 결정(시설A급)

• 위치: 대구시 동구 불로동 3층 65평
• 가액: 총금액 2300만원(집세, 시설비 포함)

016-213-2416(서울)
016-296-0385(대구)

포교원안내

• 법당: 31평, 요사: 방2개, 거실, 주방
• 특징: 1. 최신 시설(즉시 법회 가능)
2.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변이 상가와 패션문화거리로 포교 최적지임
3. 동사무소 옆
4.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20만원(관리비 없음) 시설비 1,500만원(답사 후 절충가)

02)889-5887
010-7195-6596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장흥
• 부지: 350평,법당: 20평 요사채, 공양간, 선방,삼성각 총 5동(50평)
• 기타: 석불 입상, 3층석탑, 절뒷편 거대바위산
• 가액: 2억5천

016-9660-1348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 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편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집기일체

043)211-7893
019-656-2766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2,5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중 2층, 평수: 25평
• 대로변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 목좋음
• 모든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2천5백만원 월40만원

010-8527-8747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 (대구 달서구 소재)
• 건물: 3층(70평) 법당(30평) 방4개
• 특징: 8차선 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 교통)
• 가액: 보증금2천5백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후상의

011-699-9120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동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총 32평
• 법당 1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절충가능)

016-640-813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전철역 3분거리)
• 규모 : 17평 아파트 1층 (복도식 코너)
• 가액 : 8,500만원(답사후 절충)
• 현재 법회 운영중 (철학 겸비 호조건)

연락처 011-9036-999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 소재
• 대지: 120평 건평: 43평(임법당) 요사채, 용왕당
• 스님건강상 (급)
• 가액: 1억7천만원

055)672-3313
011-872-3320

자리중에 자리! 국내 최고의 자리!

영험의 자리!(백문이 불여일견)
•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 평수 : 20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7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2236-2284
019-634-3069

사찰건물안내

• 대지 241평 건평 25평
• 법당, 요사채 삼성각 건물 7평
• 위치: 경남 남해 보리암 근교
• 가액: 1억1천만원

042)841-2062
010-6485-206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내
• 평수: 법당 54평, 요사채 41평 ,기타 9평 총 3동
• 가액: 2억5천
• 주차장, 잔듸밭, 약수물, 신시가지 등산로

011-849-2904

암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 법당 : 1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각단탱화
• 요사채, 방 4개, 공양실 창고, 욕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8678-9950

포교당안내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02)2208-60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성남 모란역 2번출구앞 50m 4층
• 평수: 50평
• 법당, 사무실, 큰방2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만원

017-352-2244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남산동 빌라 40평
• 사무실, 가정집으로 용도 변경가능
• 가액: 1억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614-7466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역 부근
• 50평. 3층 건물에 2층
• 가액 : 보증금 1천 7백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31)466-070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 평수: 45평
• 가액: 전세1700만원 월30만원
• 모든시설완비

042)931-7925
010-7309-500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 땅: 1300평
• 법당1, 요사채2동
• 가액: 1억8천

011-9335-5535

암자(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동진주 30분거리)
• 면적: 972평, 법당: 10평
• 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청필, 요사채 3동(각 40평), 큰방(9칸)
• 산세가 수려하고 약수물 좋은 20년된 암자임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55)674-7839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서구 남부민동
• 평수: 대지 40평
• 건물 1동(인법당)
• 가액: 1억5천만원

051)257-2044
011-554-204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토굴 안내

• 위치: 마산 시외
• 평수: 50평
• 임법당1,방2개
• 가액 : 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5)222-7346

토굴안내

• 위치: 경남 고성 거류면
• 법당, 요사채
• 가액 : 3300만원

016-853-6768
055)672-996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암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20분거리)
• 앞 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자연식수물과 큰 물이 흐르는 오래된 암자.
• 법당 1동, 요사채 70평, 정각2동, 산신각, 용왕전, 용화전, 기타 목욕실 화장실 등 전체 2,530평에 국유지 3천여평 사용가능.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용도관계 없음.
• 전화상담 후 현지답사. 가격결정

011-9126-2266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봉화산 (원주 IC에서 5분거리)
• 총평수 : 1300평(800평 종교부지)
• 대웅전 35평, 보궁 25평, 삼성각 5평, 미륵대불, 석가탑 요사채 50평(신축, 심야전기)
• 여법한 정법포교 청정도량, 전국 각지 불자님 중심 포교지
• 산세 수려한 등산로, 삼존불, 각단탱화, 집기일체 양도함
※ 즉시법회 가능,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6억 3천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0-6213-5949
031)594-941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20분거리)
• 앞 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자연식수물과 큰 물이 흐르는 오래된 암자.
• 법당 1동, 요사채 70평, 정각2동, 산신각, 용왕전, 용화전, 기타 목욕실 화장실 등 전체 2,530평에 국유지 3천여평 사용가능.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용도관계 없음.
• 전화상담 후 현지답사. 가격결정

011-9126-226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건물(시설): 방2개, 주방(총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탱화 모셔져 있음
• 특징: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850만원 월 23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011-9850-294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계곡이 마당에 접해있는 팔공산에 명당 암자, 제2석굴암 부근 금년내 한티재 터널공사 착공예정
• 건물: 법당, 요사채, 용왕당, 정자, 등기 330평 실제사용 면적 500여평
• 가액: 5억

017-805-1456

토굴 안내

• 위치: 마산 시외
• 평수: 50평
• 임법당1,방2개
• 가액 : 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5)222-7346

토굴안내

• 위치: 경남 고성 거류면
• 법당, 요사채
• 가액 : 3300만원

016-853-6768
055)672-996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 평수: 2층 3층 각 30평
2층: 접견실, 공양간(큰방), 스님방
3층: 법당(삼존불 각단탱화) 지장보살(탱화) 산신각(산신탱화)
• 가액: 보증금 1000만 월 60만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3167-1774
032)662-1774

포교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사찰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 전세 3천만원, 양도가 1억원

양산포교당

• 평수 : 3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5만원. 절충가능

010-4841-3499
055)362-0199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불교계 어떻게 보나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에서 치료용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5월 20일 발표는 전 세계 학계를 흥분 속으로 몰아 넣었다.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것은 곧 면역거부반응 없는 배아줄기세포 생산이 가능해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생산 과정에 대한 생명윤리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천주교 · 개신교 등이 '인간생명의 존엄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문제가 종교계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불교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배아 죽이는 행위 **악업 – 선업** 난치병 환자 치료

연구 의도와 활용면에 '무게'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황우석 교수. 하지만 생명존엄성 훼손이라는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천주교 · 개신교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배아를 생명체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6월 4일 발표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문을 통해 배아를 생명체로 규정하며, "배아를 복제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비윤리 · 반생명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신교 쪽에서도 5월 29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황 교수 팀의 연구를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미약한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간 생체실험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 도덕률을 범한 비윤리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천주교와 입장을 거의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앞선 27일 유교를 대표하는 최근덕 성균관장 또한 "황 교수 연구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이 발족시킨 '불교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생명조작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보고서가 나오는 연말 이후가 돼야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배아는 생명체인가

'우리도 처음에는 배아였다'며 배아가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계와 달리 불교학자들은 배아를 생명체로 규정하는 데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중표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아의 어느 단계부터 생명이라 할 것인지 논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며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배아 생명체 규정 여부 불교학계 이견

세포 죽음만 문제 삼아선 안돼 … 생명경시 반성해야

과학 규제 말고 조언 · 견제하며 공존을

또 김종욱 동국대 교수(불교학과)는 "생명이란 기능면에서 접근해야지 실체화해선 안 된다"며 생명의 개념에 선을 그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했다. 김 교수는 "생명체 여부를 가리기 모호한 배아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보다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는 더 큰 차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곽만연 동아대교수(인문학부)는 "<불설포태경>에 따르면 14일이 지나 착상된 수정란은 초육(初肉)이라 부르지만, 1 · 2주차 배아는 움직임 없는 타락죽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며 "배아는 인간의 가능태일 뿐 온전한 생명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과)는 "불교는 전통적으로 배아를 생명체로 간주했다"며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생명존엄성 훼손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비판하는 기독교계의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논리에는 뭇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제일 원흉은 인간중심주의"라고 지적하며, "소 · 돼지 등이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현실에서 '세포'의 죽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뻔뻔스런 호들갑'이다"고 말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비판하고,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가운데 배아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대문명사회 전체를 비판하면서 줄기세포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인간중심주의의 편협함을 면하기 어렵다"며 기독교계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 중요한 것은 연구 의도

이들 불교학자들은 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 자체를 놓고 선 · 악을 단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의도로 연구하며,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중표 교수는 "독을 약에 쓰면 약이 되고,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 선 · 악은 관계 내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불교"라며 "연구성과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종욱 교수 또한 "황 교수의 연구는 업을 짓고 있는 것"이라며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선업의 의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적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철 교수도 "배아를 죽이는 악업과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업의 측면, 양자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스스로 악업의 과보를 짊어지면서 자비심을 발휘하는 황 교수의 활동은 오히려 숭고한 측면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 신중한 입장정리 필요

생명을 조작하는 것을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금기시하는 기독교계와 달리 연기적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에 있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단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불교계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종교학과)는 "종교와 과학의 두 지식체계는 역할과 위상이 상이하다"고 전제한 뒤 "과학지식에 의해 종교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듯, 종교는 과학을 규제하려 들기보다는 조언을 하고 견제하면서 과학과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용어설명

배아(embryo)
난자와 정자가 만나 이뤄진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까지의 단계

줄기세포(stem cell)
신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본세포. 모든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세포라 불림. 줄기세포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음. 줄기세포를 배아로부터 얻으면 배아줄기세포, 성체로부터 얻으면 성체줄기세포가 됨.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5>

행복의 과학

기도할 때 무엇을 빌어야 할 것인가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철 스님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라 했다고 한다. 나와 타인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보다 훨씬 마음에 와 닿는 말이다. 절대자의 존재가 그 종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종교들과 비교할때 불교 만큼 각자의 행복에 초점을 둔 종교가 또 있을까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많지 않다.

'부처님'의 본래 뜻은 '깨달은자, 행복한자, 그리고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에게서 느껴지는 무한한 행복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스승이 가르쳐 주는 이론보다도 스승의 눈빛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에 더 매혹됐을 것임에 틀림없다. 눈에 핏발을 세운 채 흥분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표정을 한 이를 두고 '행복한 자'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과학은 행복까지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방법은 대략 두 가지로 이뤄진다. 하나는 화학물질과 전기신호에서 법칙을 찾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행동양식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류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정신 신경학의 방식이라면, 후자는 심리학이 취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행복을 화학적인 물질과 전기신호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뇌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주로 대뇌 부분)로 들어가는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시상부분(변연계)의 신호전달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 그리고 종교적인 황홀감까지도 분자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심리학적 방법은 행복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준다. '자신이 행복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인 행복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서구 대학생들은 '친구와 잘 지내는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남보다 특별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특별히 종교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행복은 종교보다도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뇌의 신경학적 메카니즘으로 '행복' 분석
행복은 추구하는 것일까 깨닫는 것일까

과거 사람들의 행복도와 현대인의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또한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현인의 가르침을 확인해준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한 미래를 영원히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의 '미래심 불가득(未來心 不可得)'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가만히 앉아서 '불행한 나'를 들여다보자. 큰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 불행을 느끼고 있는 나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



그림 : 문병성

신 입 생 모 집
동방대학원대학교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 6. 1(수)~17(금)
- 전 형 일 자 : 2005. 6. 25(토)
- 전 형 방 법 : 서류 · 면접 전형
- 합격자발표 : 2005. 6. 29(수)

모 집 학 과 전 공

◆ 문인서화학과
서화예술학전공 / 옻칠조형학전공 / 예술경영학전공

◆ 불교문예학과
불교문예학전공 / 동방미술사전공 / 요가명상학전공

◆ 민속문화학과
역경풍수학전공 / 무속연희학전공 / 자연치유학전공

석사과정 수업년한 : 2년(4학기)
학사학위가 없는 분을 위하여
학과전공별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동 방 대 학 원 대 학 교
자연치유 전문가
최 고 위 특 별 과 정

웰빙시대의 자연치유 최고전문가 양성 기관

1. 접수 및 개강일
1) 접수일 : 2005 년 6 월 1일 - 6월 30일
2) 개강일 : 2005 년 7 월 5 일 [화요일]
2. 교육과목
• 음양오행연구 • 오행식이요법 • 경락경혈연구
• 요가명상연구 • 체형교정요법 • 단전호흡연구
• 기공체조연구 • 민간자연요법 • 교 양 특 강
3. 과정 • 수업방법
1) 1년 과정[2학기] : 총30주강의
2) 화 • 금 : 18:30 ~ 21:00
4. 수강대상 · 정원
1) 의사 · 한의사 · 약사
2) 제약업 · 보건업 · 실버산업 종사자
3) 의약관련 대학생 · 대학원생
4) 관심있는 일반인 ※ 정원 : 30명
5. 제출서류 및 등록금
1)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2)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3) 1학기 등록금 : 2,300,000원
6. 기타사항
1) 총장명의 자연치유 전문사 수료증 수여함
2) 자격 검정 후 자연치유사 민간자격 부여함
3) 본 대학원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 부여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 3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OO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OO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나비춤	OO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점안의식	OO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일주문



묘허 스님 초청 천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029일 천도법회 12번째 49재일을 맞아 6월 13일 대적광전에서 묘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해남 미황사 특별수행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6월 18~25일 특별수행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를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14~60세.(061)533-3521



원효성사 탄생 1388주년 다례재

경산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은 6월 10일 원효성사전에서 원효성사 탄생 1388주년 다례재와 국악한마당 등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몽골국제우정마라톤대회

한몽문화교류진흥원 이사장 홍인 스님은 6월 25일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제3회 몽골국제우정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053)746-1588



中 항주대 학술대회 참석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6월 9일 중국 항주대에서 열린 '의천 탄신 9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사천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종교수행의 미래' 학술회의

미래학불교학회 장휘옥 회장은 6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종교 사회와 종교수행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한다.(02)745-1613



직할사찰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김진관 회장은 6월 25일 오후 2시~26일 오후 12시 서울 봉은사에서 직할사찰 신도임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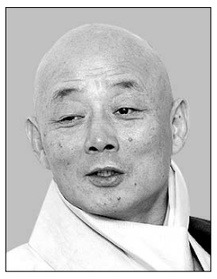


불기협 정기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 여태동 회장은 6월 18~19일 양양 낙산사와 평창 월정사 일대에서 회원대상 정기연수회를 개최한다.

"남 · 북 함께 만드는 잡지에 불심 담을 터"

'민족21' 발행인 맡은 명진 스님



"예전에 비해 남북관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을 위해 뛰고 있는 일꾼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불교계의 대표적 통일운동가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사진)이 지난 6월 초 통일잡지 <민족21>의 발행인으로 추대됐다. 그동안 스님들이 시민단체를 이끌며 많은 활동을 벌여왔지만, 전문분야의 수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명진 스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사의 뜻을 밝혔지만, 잡지가 존폐 기로에 서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유일하게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잡지를 보다 많은 불자들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7월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명진 스님은 "최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6 · 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다시 풀리는 것 같다"며 "남북문화의 공통분모인 불교계가 화해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명진 스님은 "6월 29일 민추본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1년 여간 발행이 중단됐던 소식지 <통일정토>도 복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차

전국교정위원중앙협 신임회장 혜명 스님



"새로운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여 년간 재소자 교정 · 교화 활동을 벌인 대전 혜명정사 주지 혜명 스님(사진)이 5월 31일 열린 전국교정위원중앙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6월 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스님은 먼저 재소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서둘겠다고 밝혔다. "재소자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형자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각 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 교도소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교정교화 자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교정활동이 아니라 수형자에 맞는 '맞춤형 교정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혜명 스님은 교정교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도관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30년 교도관 일은 15년 징역살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도관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혜명 스님은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직업센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단체인 전국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전국에 분포한 49개 교도소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활동을 펴고 있는 4700여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전국협의체로 지난 1998년 11월 창립됐다. 혜명 스님의 임기는 2년이다.

강유신 기자

'잊혀진 가람탐험' 27일 출판기념회

장지현 시인, 송현클럽서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사진)이 6월 27일 오후 6시 30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여시아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됐던 글을 묶어 발간한 장 처장은 양양 진전사지, 여주 고달사지, 충주 미륵대원지, 익산 미륵사지, 제주 법화사지 등 남한 9개도에 흩어져 있는 35곳 폐사지를 소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이 참석하며, 김회경 해오름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02)942-0144~5

김철우 기자

"아이들과 함께한 20년의 노래 담았어요" 창작 찬불동요집 낸 최미선 대불어 사무국장



"열아홉 살에 어린이 법회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며 만든 찬불 동요를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최미선 사무국장(38 · 사진)은 39차 대불어 연수회가 열린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자신이 작곡한 찬불동요 80여곡이 수록된 '2005 최미선 찬불동요집 참 고운 벗들에게' 1천원여 권을 법보시했다. 이 찬불동요집은 최미선 국장의 남편인 이동원(40 · 법응) 씨가 아내 몰래, 아내의 어린이 포교 20주년을 기념해 법보시용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교정 때 들통이 났어요. 저 밖에는 교정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들 부부는 어린이 포교를 하면서 만나 결혼까지 하고 지금도 어린이 포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도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미희 기자

주한 태국대사 낙산사 복원 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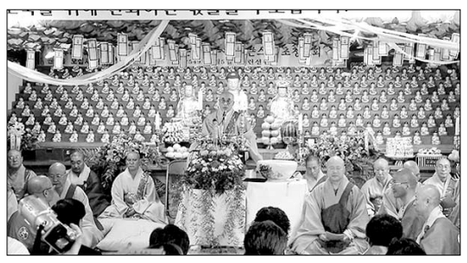
바신 티라베크얀 주한 태국대사는 6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올 연등축제 문화마당에 부스를 설치해 음식을 판매한 이익금을 낙산사 복원 성금으로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법장 스님은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해사 작은음악회



팔공산 은해사(주지 법타)는 6월 9일 경내 솔밭에서 신도화합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200 여명이 동참한 음악회는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후원으로 열렸다. 길성보의 색소폰연주, 이종영의 오르간 연주 등이 진행됐다.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 개원식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주지 법현) 개원식이 6월 5일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현 스님은 "부처님의 희망의 빛을 남과 함께 나누는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일우,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무주 안국사, 중국 소림사와 문화교류



무주 안국사(주지 원행)는 6월 5일 '무주태권도 공원 유치기념' 일환으로 무주를 찾은 천쑹린 중국 등용시장와 숭산 소림사 무술시범단의 방문을 받고 상호 문화교류를 약속했다. 이날 중국 방문단 20여명은 안국사 성보박물관(세계의 불상) 관람, 기념 타종 등 사찰참배를 했다.

본원종 부산경남 종무원장 취임법회



본원종 부산경남교구 종무원은 6월 3일 청련사 법당에서 종무원장 지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본원종 부종정 동강 스님, 종회의장 우담 스님 등 1백여 종도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우 스님은 "사찰 현황을 파악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재성(동국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6월 11일~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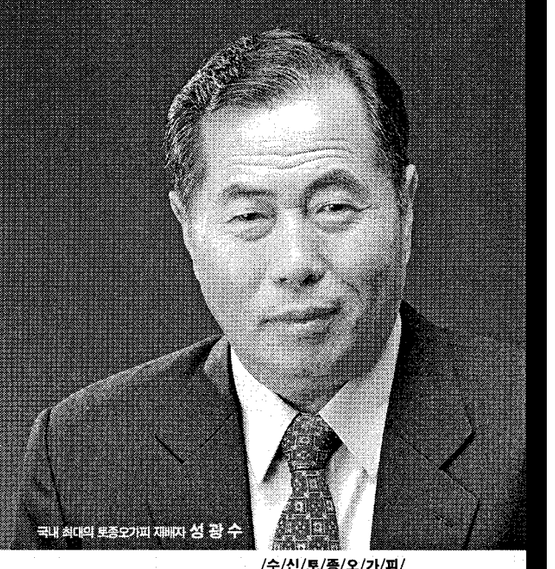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쁠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영업자도 '보이지 않는 손'

지난 5월 31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영세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필요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영세성과 과잉경쟁에 따른 경영난으로 이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부실대출 등 경제 차원에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라 설명한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곧 바로 정부와 여당협의로 그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철회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한다는 240만명의 자영업자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어찌 당 · 정간의 조율과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결정되어 발표되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자영업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둔감이 없지 않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통한 진입규제는 '경쟁과 개방'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실로 엄청난 발상임에 틀림없다. 자격증제도를 진입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까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비시장경제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격증을 규제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는다.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당 · 정간 조율이 정책협의 과정에서 사라지고 정책결정 이후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당과 정부의 입장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논리와 이해타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에 문제점이 있다. 새로이 자영업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창업활동이 실업율을 많이 흡수해온 것도 사실이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자영업을 시작하기 어렵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정책은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가장 바람직한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시장이고 이 시장형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퇴출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진입장벽을 쌓는 노력 대신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창업에 관련된 상담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살아나고 경쟁력이 확보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복지시설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강제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일률적인 기준과 확정된 날짜를 정해놓고 신고하지 못하면 강제로 폐쇄할 때, 양심적으로 운영해 왔던 많은 시설들이 억울하게 폐쇄되거나 억지춘향이 식으로 부풀려 기준에 맞추는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꾼 것은 탁상행정식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은 것이며, 현실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는 자세를 보인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선별적 양성화를 시켜가는 과정도 민관합동 실태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한다 하니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의 현장을 여실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게

미신고 복지시설을 위한 숙제

된다.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그 현실을 한 차원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선진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계기로 불교계도 미신고된 복지시설을 양성화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 하여 복지사업이 될 수는 없다. 여건과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복지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교계에 불명예와 오욕을 끼칠 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를 귀찮은 간섭으로 여기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불교 복지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종단 차원에서 교계 복지시설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복지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워주는 범불교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낙후된 불교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향한 큰 걸음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마음의 장애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해 화제다. 그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상법 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조항. 이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사실상의 차별에 다름 아니다. 물론 현행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이용해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는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배치되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때가 몇 번이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취재차 장애인복지관에 들렀을 때 만난 한 장애인은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는데 형제마저 장애인이 된 자신을 피하는데 적지 않게 상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자 장애인들의 경우, 힘든 마음을 다스리고자 찾은 사찰에서 일부 불자들의 "장애인은 전생의 업이 많은 사람" 발언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일반적이지 않음'에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왔는가.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모습이 다른 타인을 적대시하는 마음 속 편견도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회분위기 자체가 약한 이들이 인정받고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충만해지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강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수림장 참 좋은 생각

529호 현대불교신문에 실린 수림장 기사를 보고 참 많은 공감을 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일종의 흐름이 있고 트렌드와 유행이 있다. 이제 장례문화의 트렌드는 납골의 벽을 넘어서는 것 같다.

사실 그동안 납골탑이나 납골묘 등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헤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수림장은 친환경적이면서 추모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다.

특히 화장제도 정착에도 앞장서 온 불교계에서 은해사 일불사 장안사 등이 앞장서 수림장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꽤 보기 좋다. 일부 사찰들의 무분별한 납골탑 건립으로 사찰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거나 호화 납골탑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던 만큼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림장은 불교계의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림장을 하는 곳이 더 많아져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미순(부산 연제구 연산5동)

해외포교 중요성 알아야

최근 법장 스님의 미국방문은 드디어 종단에서 해외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 오래전부터 숭산 스님께서 해외 포교를 하며 많은 고생 끝에 대 성과를 거둔 점은 종단차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방문했다는 전시효과에만 그치면 안된다. 실속있고 내실있게 해외포교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법을 홍포하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이 분들을 위해 종단에서 해외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스님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해탈심(붓다뉴스)

간화선에 대한 목마름?

조계종이 지난 5월에 펴낸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이 출간 이후 한 달 만에 1만3천부가 팔렸다고 한다.

<간화선>의 주문이 밀리고 있어 벌써 4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다. 일간지 기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출판계의 불황을 생각할 때 <간화선>의 인기는 이례적이라는 출판계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었다. 주제가 불교여서가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지 못해서 불교책이 안 팔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금까지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나 에세이 류의 서적을 제외하고 본격 수행서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조계종 내부에서도 종교서적이 단기간에 붐을 이루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면 본격 수행서에 대한 대중의 목마름도 이번 책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인 것 같다.

앞으로도 <간화선> 같이 독자가 원하는 불교 서적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김인경(서울 강남구 개포1동)

열린선원 개원, 새로운 포교

얼마전 인터넷 카페 열린 절이 오프라인으로 나와 열린선원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터넷 카페가 오프라인으로 나와 선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열린선원은 21세기 선교방편연구소를 개설해 불교 포교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금까지 불교 포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불교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아쉬움이 컸었다. 열린선원을 보면서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현대에 걸맞는 포교방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나름대로 도심포교당은 포교당 나름대로 포교의 방책은 달라야 한다. 열린선원의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박은수(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6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5년 6월 29일~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24만원(당일 등록시 25만원)
6. 모집인원 : 39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5년 5월 30일~7월 1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온라인 여시아문(yosiamun.com)

국내 최대에서 세계 최대 **불서전문 서점**으로 변신

"해외 불서 가장 싸고 빠르게 구입하려면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으로 오세요."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으로 10여년간 불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온 책방 '여시아문'이 온라인 서점으로 거듭나면서, 신속한 배송시스템을 갖춘 외국 불서 판매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3만여 종, 8만 여권의 불서를 갖추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전해 온 여시아문은 당분간 매장을 잠정 휴업하는 대신, 온라인 여시아문을 강화해 추가로 3만 5천여종의 외국 도서를 판매합니다. 인터넷과 전화(02-2004-8220), 팩스 (02-737-0696) 주문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들을 찾아가 불교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은 기존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앉아서 국 · 내외 불서를 주문하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책 내용을 읽을 수 있는 e-book 발간, 특별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기능으로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해외불서 판매 시작

3만5천여종 15일 내로 배송 가능
인도 MRML · Paljor 출판사등 독점 계약


MRML 아쇼크 자인 사장


팔조 출판사 데왓상 사장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는 여시아문에서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3만5천 여종에 달하는 불교관련 외국 도서(표 참조)를 다량 수입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반 대형서점의 외국도서 판매가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9일에서 최대 15일 사이에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불자들이 원서로 된 불서를 고가에 구매하는 부담과 시간낭비를 줄여줌으로써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한 본사의 포교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MRML 및 Paljor 출판사와 독점 도서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불교 및 일반 교양도서, 문학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20권의 불서를 공급한 MRML과 195권의 티베트 불서를 독점공급한 Paljor 출판사는 세계적인 불교출판사로서 한국과 인도 및 티베트 불교출판문화의 교류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1952년 설립된 문쉬람 마노하랄 출판사(Munshiram Manoharlal, www.mrmlbooks.com)는 지금까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시크교, 요가, 산스크리트 문학 등 종교와 철학 분야에 많은 명저를 출간한 종교 · 철학 전문출판사입니다. 이외에도 인도 예술, 고고학, 역사, 지리학, 여행, 인도법률, 인도의학, 약초 재배, 문학 및 언어학, 사전, 예술 관련서적 1천5백여 권을 발간한 사회 · 인문 분야의 중견출판사입니다. 특히 창작 출판물 외에도 유명 불교 계간지인 <샴발라 선(Shambhala Sun)> 남아시아 판(South East Asia Edition)과 인도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관련 책자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 아쇼크 자인 씨는 "여시아문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인도의 양서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수 있게돼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팔조 출판사(Paljor Publication, www.paljorpublications.com)는 문화 종교와 함께 티베트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전문출판사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를 포함한 불교, 문화, 역사, 언어 등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책을 망라해 출판하고 있어, 인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명도와 규모를 함께 갖춘 출판사입니다. 게다가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Library of Tibetan Archives)'의 보유서적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고 있어 소장가치가 높은 희귀 서적의 재발간 및 출판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지난 해 맺은 계약에 따라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에 대한 한국 내 번역 및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팔조 출판사의 영업담당 체링 씨는 "이번에 선보이는 팔조의 주요 도서를 통해 한국불자들이 티베트 불교와 불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여시아문 해외불서 카테고리

Art,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미술, 고고학, 건축학
Buddhism	불교
Belleslettres	미문학(美文學)
Dictionary, Terminology, Handbook and Index	사전, 어휘, 안내서, 목차
Economics	경제학
Forthcoming	근간서적
Geography, Travel and Voyage	지리학, 여행, 항해 · 여행
Hinduism	힌두교
History, Culture and Politics	역사, 문화, 정치
Indian Law	인도법
Indian Medicine and Medical Plants	인도의학, 인도약초
Islam	이슬람교
Jainism	자이나교
Language, Literature and Linguistics	언어, 문학, 언어학
Music, Dance and Theatre	음악, 춤, 연극
Numismatics and Epigraphy	화폐학, 금석학
Religion and Philosophy/Philosophy of Society	종교와 철학, 사회철학
Sanskrit	산스크리트문학
Sikhism	시크교
Society and Anthropology	사회와 인류학
Tibetan Studies	티베트경전
Indian Archaeology	인도 고고학
Health	건강
Zen Philosophy	선학

※ 인도의 불서는 2~3일 만에, 미국 · 유럽의 불서는 9~15일내에 배송된다.

여시아문을 열면 상품이 푸짐

특별이벤트(6월8일~7월8일)에 참가해 福 받으세요

▲ 여시아문을 열어라~!!

새롭게 문을 여는 여시아문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달동안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는 모든 분에게는 평생 여시아문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5%의 할인을 받으실 수있는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기회는 딱 한달! 이번기회에 언제나 부담없이 특별한 5%의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북(e-book) 받고 저북 받고~!!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e-book을 구매하시면 매주 10분을 추첨,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e-book도 구매하시고 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시아문을 도배하자~!!

여시아문의 모든 도서 리뷰섹션과 여시아문 카페에 글을 남겨보세요. 좋은 평이나 글을 남기신 고객 중 매주 10분을 추첨하여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 여시아문을 고쳐라~!!

새롭게 오픈한 여시아문 사이트내에 존재하는 버그를 찾아 주세요. 깨져버린 이미지와 오타, 연결되지 않는 링크 등등 여시아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없는 버그들을 찾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주 10명을 추첨을 통하여 여시아문에서 마련한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연실합장주, 열쇠고리 등이며 사정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의 주문에 따라 배송작업을 진행중인 본사 직원.

카페 여시아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

이젠 책속의 카페, 카페속의 책에서 또다른 여시아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시아문 카페가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시아문 카페에서는 단순히 고객이 도서만을 구입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주문'을 비롯해, 아무 형식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나눔의 문',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소개의 문',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회향의 문', 고객이 직접 책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참여의 문', 책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찰라의 문' 등이 있어 고객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다피아 · 붓다뉴스와 통합회원제 운영

불교뉴스·각종 정보 편리하게 만날수 있어

여시아문은 현대불교미디어센터(HBMC)의 한가족으로서 최대 불교포털 부다피아(buddhapia.com), 실시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buddhanews.com)와 함께 통합회원제로 운영하여 로그인 한번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불교계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 광대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HBMC의 모든 사이트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에서는 붓다뉴스의 불교뉴스와 부다피아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여시아문에서 고객이 구입하고 싶은 모든 도서를 따로 스크랩하고 저장해 이후 클릭 한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야말로 불교 정보의 모든 것을 단한번의 접속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여시아문 사이트 개편의 특징입니다.

우수독자 특별회원제

구매실적따라 4등급 분류 혜택

여시아문은 보다 체계적인 독자 서비스를 위해 특별회원제를 신설,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개편된 여시아문 회원제는 구매횟수 및 구매액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등급별 할인 적용 범위

구매수	구매수	금액	혜택(할인율)
A등급	50회	300만원	10%
B등급	30회	100만원	7%
C등급	20회	50만원	5%
D등급	10회	10만원	3%

(연단위로 계산되며 할인율은 구매횟수와 구매액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구매시 적용)

e-book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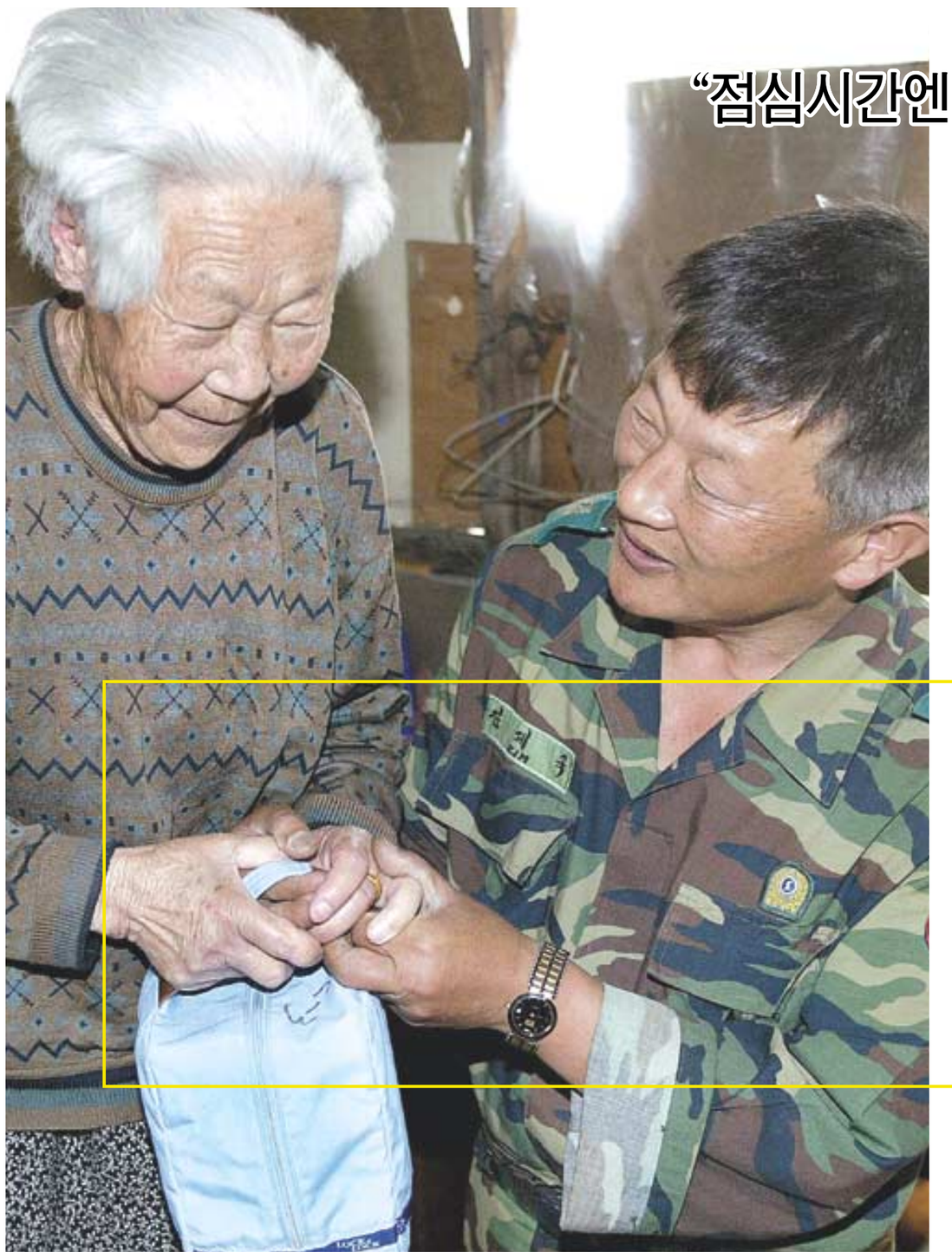
교리 · 문예서 등 84종 1차 제작 완료
일반 도서가격의 40%…파일 영구보존

디지털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전자책, 즉 e-book을 이젠 여시아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book은 종이로 인쇄되어 출간되는 일반도서와는 달리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일반 도서가격의 40% 정도나 되는 저렴한 가격, 직접 서점에 가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 파일을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선보이는 e-book중에는 현대불교에서 직접 제작한 청오 스님의 <기초교리> 한/영판을 비롯해 여시아문, 불광출판사, 우리출판사 등 불교출판사들의 단행본과 한정섭 법사의 강의 시리즈 등 총 84종의 책을 1차로 제작, 판매합니다.

■ 여시아문 e-book 리스트

여시아문	감산자전,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내 사주 내가 푼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돌부처,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방편개시, 배낭으로 담아온 인도, 법수로 배우는 불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부처님께 재를 털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의 불법수행, 선방일기,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아름다움과 깨달음, 왜사,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찬불동요, 참선요지, 허공의 딸꾹질, 어떤 회상 정말 봄은 오는가
불광 출판사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반야심경강의, 삶의 빛을 찾아,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행복의 법칙
우리출판사	구름의 품안에서, 동서양의 비교, 모계효도, 밥티의 소원, 복없는 아이, 삼성각, 선은 무문, 수도와 효도의 길, 수평선의 희망, 숲속의 이야기, 아리랑, 인연가, 자비성불, 자비의 문, 자장가, 태양에 생명이 있다
한정섭 법사	극락세계 이야기, 금강경 오가해,기독교의 상담심리와 불교의 상담심리, 나비의 꿈, 대혜종고 선사와 간화선, 무념국사, 미륵부처님 이야기, 방생의식, 법화경 약찬게, 부모은중경, 불교병리학, 불교신앙의 본질, 불교신행상담, 비유의 세계, 석가여래 성도기, 소동파, 소설달마대사, 약사신앙, 우리말 치문경훈, 유마경과 승만경, 육조대사, 이민환법사법어집, 인과 이야기, 인생 그리고 허무와 공, 조주선과 임제선, 지장보살 본원경 강의, 현대세계사에서의 기독교와 불교
도서출판 솔바람	설법전서 1권~9권
금호미술관	소나무야 소나무야
대한불교진흥원	대불전 1, 2, 3
현대불교신문	The Moon Year 청오스님의 기초교리 (한글 · 영문) 불교와 수학 과학과 불교



"할머니, 점심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고맙구먼, 김거사." 박치화 할머니의 두손을 꼭 잡으며 김제국씨가 건네는 점심도시락에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진다.

"점심시간엔 도시락 들고 달린다"

이웃사랑은 현역입니다

'사랑의 예비군 동대장'

김제국

향기도반의

탄광촌·소외계층위해 18년간 도시락 무료 배달
아픈 몸에도 "잘 먹었어요" 한마디에 보람 찾아
올 9월 뜻있는 동대장 10명과 '급식회' 만들 예정



"김제국 대위님. 18년 전 태백시 어평분교에 다녔던 3학년 1반 권대영입니다. 김대위님이 우리학교에 도시락 배달할 때 반찬 맛없다고 투정부리며 김대위님에게 매일 빵하고 우유 사달라고 졸랐던 그 대영이 기억하시죠? 그런 철부지 저에게 늘 김대위님은 다음번엔 꼭 소시지 반찬 싸오겠다며 알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 강원도 탄광촌에서 어렵게 자란 권대영씨(28)가 보내 온 감사의 편지. "김거사 보시게나. 매일 점심때 마다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시니 이 늙은이는 그 공덕으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오.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비뚤빼뚤 알아보기 힘들게 쓴 글씨지만 원주시 행구동에 사는 이칠룡(78) 할아버지가 보내 온 정성이 가득 담긴 사연이다.

수신인은 바로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의 도시락'으로 18년 간 무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원주시 행구동 예비군 동대장 김제국씨(57)다.

김씨는 매주 월요일~수요일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일대에 사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8명을 찾아가 무료 점심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고령의 독거노인들과 다쓰러져 가는 축사에서 병든 몸을 의탁하며 사는 불우이웃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느라 정작 자신은 끼니를 건너 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점심 도시락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감사의 말 한마디에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김씨.

김제국씨는 1988년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에서 예비군 동대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무료 도시락배달을 시작했다. "부모님이 탄광에서 일하는 어평분교 11명의 학생들은 점심을 굶을 때가 거의 태반이었죠. 저 또한 가난했던 유년시절을 경험해 봤기에 배고픈 설움을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은 못 싸주더라도 김치에 콩나물 무침을 찬합에 담아 도시락 배달을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로부터 9년 동안 김씨는 어평분교에 도시락 배달은 물론 소풍과 운동회 때면 자비를 털어 공책, 연필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김씨는 한 달에 한번 부대의 군의관과 이발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벽지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물론 이발까지도 책임지는 그야말로 '사랑의 예비군 동대장'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김씨의 봉사활동은 1996년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예비군 동대장으로 보임하면서부터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군장병들의 인성교육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길러주기 위해 이등병 4~5명과 함께 매주 토요일이면 복지관을 찾아 지체장애인들에게 목욕봉사 및 도시락을 배달했다. 처음 3년 동안은 행구동 일대의 복지관과 무의탁 노인 7명에게 사재를 털어가며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다. 하지만 5년 전 심혈관 질환으로 대수술을 받아 목돈이 한꺼번에 병원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복지관에서 만들어 온 도시락 8개를 인근 독거노인들에게 성치 않은 몸으로 배달하고 있다. 이런 김씨의 선행이 군수뇌부까지 알려지게 되자 대통령이 직접 육필로 쓴 치하의 편지, 육군참모총장 표창, 36사단장 표창 등을 받았지만 그는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친다.

3년 넘게 김제국씨를 지켜 본 36사단 108연대장 조준호 대령과 행구동사무소 서무계 홍영옥씨(40)는 "점심시간까지 반납하며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요즘 무늬만 자원봉사 한답시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제국 동대장은 대한민국 군의 대민봉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준 이 시대 진정한 모범 군인입니다"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하지만 이런 그의 도시락 배달 봉사가 늘 즐겁고 평탄치만은 않았다. 평소 김씨가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보살폈던 무의탁어르신인 故 김정옥(92) 할머니의 입원비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친 어머니도 아닌데 왜 자네가 병원비를 마련해야하나.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냉담한 반응들이었다. 그럴때마다 의욕이 꺾여 그만 봉사를 포기할까라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이 땡볕에 얼만치 고생이 많은가. 자네 땜시 내가 오늘도 밥 챙겨 묵고 다니는구만 그래이"라며 자신을 사랑해 주는 독거노인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중간에 이일을 놓을 수 없었다.

"예닐곱 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원주 치악산 자락에 있는 영금사를 찾아 어머니를 따라 절도 하고 스님이 하는 염불도 중얼중얼 흉내 냈던 일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아침저녁으로 <천수경>을 봉독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참회의 마음 ,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의 <천수경>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신이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한없이 기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감사하다는 김씨. 이제 그는 30년 간 피땀으로 지켜온 조국수호의 사명을 바탕으로 뜻있는 원주시 예비군 동대장 10명과 함께 '자비손 도시락 급식회(가칭)'를 올 9월에 창립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인복지분야는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최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무의탁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맛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무료 도시락 급식회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국민을 위해 총을 잡았던 그 손, 조국을 위해 신었던 군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었던 얼룩무늬 군복. 이런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자비의 군복'이라 부른다. 반짝반짝 광나는 군화보다 칼 주름 잡힌 군복보다 김씨의 구릿빛 얼굴이 더 아름답고 미더워 보이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의 보살행 때문이 아닐까.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본래면목이 완전한 황금빛 그대여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재가자를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게송집 '황금빛 봉황이' 출간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구(死句)를 들고 어리석은 의심을 하고 있으나,
누구나 올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인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야 별 수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성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 고집을 높이 살 만은 하나,
그렇다고 공부되어진 것은 또 무엇인가.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여시아문

수불 지음
안국선원 선원장

황금빛 봉황이

통신판매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Tel:02)2004~8220, 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재가수행의 표상 백봉 김기추



'선생님은 무식한 도깨비였다.' 지난 1970년, 백봉 김기추 거사를 6개월간 시봉했던 성태용 건국대 교수(53)는 스승을 이렇게 회고했다. 젊은 시절, 백봉 김기추 거사(사진)는 불교의 '불'자도 몰랐다고 한다. 56세 늦깎이로 불문에 들어선 백봉 거사는 스무 살 청년이었던 성 교수에게 생소한 불교용어에 대해 늘 물었다. "성군! 이게 무슨 소리고?"

백봉 거사는 190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23년 부산 제2상업학교 입학, 뒤늦게 설립된 일본계 학교를 '부산 제1상업학교'라 하는데 반발해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퇴학. 이후 독립운동을 하다 1931년 형무소에 수감된 후,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백봉 거사는 사방의 벽을 관세음보살로 빼곡할 정도로 그 명호를 쓰고 염송했다. 이것이 불교와 인연이었다.

독립운동으로 청장년 시기를 보낸 백봉 거사는 1963년 6월, 충남 심우사에서 우연히 '무자(無字)' 화두를 접한 뒤 본격적으로 용맹정진을 하게 됐다. 다음해 <무문관>의 '비심비불(非心非佛)'이란 글귀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보림회를 결성, 20여년간 재가자들을 지도했다. 저서에는 <유마경대강론> <선문염송요론>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등이 있다.

입실점검에 혼신 종달 이희익



재가선의 세계에서는 선도회 1대 지도법사로 알려진 종달 이희익 거사(사진). 일상의 삶 속에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백봉 거사와 달리 종달 거사는 불교계 제도권에서 수행의 길을 걸어온 재가선사다. 190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종달 거사는 함흥 제일공립보통학교를 졸업, 일본 유학 길에 올라 일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인텔리였다.

종달 거사의 불교 입문은 귀국한 뒤 <조선불교> 잡지의 편집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불교에 문외한이었던 종달 거사는 당시 나까무라라는 일본인 선객에 이끌려 일본 임제종으로 출가한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처음 받은 화두는 '무자(無字)'. 종달 거사는 임제종의 입실지도를 받고 결국 무자 화두를 투과했다.

박영재(50) 서강대 교수는 종달 거사의 수행지도 열정을 '화장실 입실점검' 일화로 소개한다. 1983년 서울 화신백화점 근처에 시민선방을 맡게 된 종달 거사는 입실점검할 공간이 따로 없자, 화장실의 변기통에 걸터앉아 사람을 하나씩 불러 들여 공부점검을 해줬다. 입실점검이 공부의 생명으로 여겼던 종달 거사는 철저히 입실점검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저서에는 <무문관> <생활속의 선> <선종사상사> <좌선> <인생의 계단> 등이 있다.

특 별 대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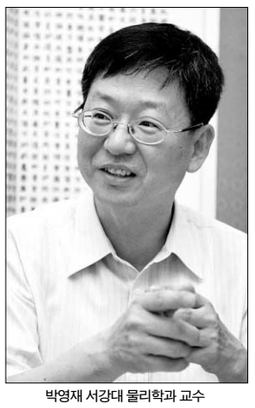
백봉 김기추 · 종달 이희익 한국 거사선풍의 두 산맥을 말한다

참가자 : **성태용 교수**(백봉의 제자 · 건국대 철학과)
박영재 교수(선도회 지도법사 · 서강대 물리학과)

삶 자체가 수행…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20세기 한국불교에 거사선풍(居士禪風)을 드날린 한국의 유마거사 백봉(白峯)과 종달(宗達). 이들은 한국거사불교의 양대 산맥이다. 그런 두 거산이 올해로 각각 타계 20 · 15 주기를 맞는다. 순한글 화두인 '새말귀' 운동을 벌이면서 거사풍(居士風)을 세웠던 백봉 김기추(金基秋 : 1908~1985) 거사, 무문관 48칙을 통한 '입실점검' 전통을 확립했던 종달 이희익(李喜益 : 1905~1990) 거사. 이들은 한국거사불교에 '생활선(生活禪)' 수행풍토를 조성한 장본인이었다. 그럼 이들 거사의 선풍은 현대를 사는 재가불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까? 6월 7일, 백봉을 가장 가까이서 시봉한 성태용 건국대 교수와 종달의 법제자 박영재 서강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백봉 "수행은 생활의 연장" 순한글 화두 새말귀 주창
하루 세번 설법, 제자들 의단 속으로 몰입 도와

종달 공안집 '무문관' 대중화…거사 선풍 진작에 기여
1~2주마다 1:1 입실 점검…치열함 속 공부 무르익어

성태용 : 올해로 백봉 선생님이 열반한 지 20년, 종달 선생님이 15년 됐어요. 사실 지금의 재가불자운동 원동력은 바로 이 분들의 선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백봉 선생님은 '거사풍(居士風)'이란 말을 쓰면서, 당신 스스로 거사풍을 성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죠. 선생님은 '스님들은 24시간 수행으로 다져진 분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야하기에 재가자 나름대로의 수행방편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선구적인 안목을 가지셨다고 생각해요. 종달 선생님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 '재가자들이 참선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회의를 가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20년간 스님으로 생활해왔기에 출가자의 입장에서만 선수행을 생각하셨던 거죠. 지난 1965년, 선생님이 조계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참선지도를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일반인이 흉내나 내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선도회 1호 제자였던 훨씬 이창훈 거사의 치열한 수행에 생각을 바꾸셨죠. 6개월을 새벽같이 선생님 집으로 찾아와 입실점검받는 이 거사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일반인도 참선공부가 가능하구나' 라고 느꼈고, 이 때부터 선도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불교에 대해 거의 무지상태에서 출발했죠. 늦깎이 56세 때 갑자기 화두를 들고 혼자서 수행을 시작했어요. 당시 선생님은 '혜가 스님이 한 팔을 자른 까닭을 이해하겠다' 고 할 정도였죠. '이것만 하면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하면서 '팔 한 쪽을 자르라고 하면 자르겠다' 고 했었어요. 선가의 말로 '대사일번(大死一番)', 즉 '크게 한 번 죽겠느냐'에서 시작해 이후 확신을 갖고 거사선풍을 이끌었고, 백봉 선생님은 재가자로서 확실히 출발해 끝까지 거사선풍을 드날린 것이 비교가 되는군요. 참, 종달 선생님은 무문관 입실지도를 강조하셨는데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이 한국 선불교에 끼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현대불교에 무문관(無門關)을 다시 출현시킨 점에요. 사실 선생님이 1969년 <법시>에 무문관 20여 공안을 연재한 것을 모아 1974년 책으로 출판하기 전까지 불교계는 무문관을 거의 모르다시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 전에 한국에는 무문관이 별로 눈이 띄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어요. 여하튼 제가 보는 견해로 무문관은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무문혜개 선사가 6년간 조주 무자(無字)만을 씨름해서 얻고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수행자에게 아주 요긴한 점들을 담아놓았기 때문이죠. 무자 공안에는 마음자체에서부터 화두를 깨친 이후의 경계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것만 온몸에 각인시키면, 공부는 저절로 돼요.

성태용 : 박 교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종달 선생님은 선가의 수행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셈인데요. 혹시 거기에서 재가자로서 한계 또는 문제점들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박영재 :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그런 어려움을 몰랐어요. 그러다 <서장>을 읽으면서 제 무릎을 쳤죠. '아! 종고 선사가 간화선 수행체계를 확립했는데, <서장>을 보니 스님은 두 분만 출연하고, 모두 사대부 재가자들의 서신 교류구나. 서신으로 입실 지도한 기록을 모아둔 것이 <서장>임을 확인하고, 간화선이 오늘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확실히 느꼈죠. '선이 일반인에게는 어렵다는 말은 틀렸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간화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수행해 견성을 했어요. 선생님은 늘 지금의 참선풍토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두를 들 수 없게 한다고 말씀했죠. 우리 불자들은 내공력이 고갈되면 수행해 내공을 쌓고, 내공력이 없어지면 다시 수행으로 들어가고, 말하자면 '쌓고 까먹고 쌓고 까먹는' 그런 잘못된 수행풍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선에 대한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단편적으로 화두를 드는 방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죠. 삶이 바로 수행인 방법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수행에서 제외되니 이것을 수행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 '새말귀'에요. 일상적인 삶이 수행의 장에서 밀려나지 말고, 바로 수행이 생활의 연장이라는 생각에서 새말귀를 주창했던 거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의 말귀로 통해 자신의 삶을 다잡아가고, 수행으로 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한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였어요.

박영재 : 그 가르침은 선도회 가르침과 똑 같군요. 원오극근 선사의 선어록에 보면, '좌일주침(坐一走七)'란 선어가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을 8등분해서 1/8은 아랫배에 힘을 쌓고, 그 힘을 갖고 자기 전문직의 7/8에 100% 뛰어들라'는 말이지요. 제 전공이 이론물리인데, 한참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계산이 틀린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실 좌복에 앉아 '어디가 문제인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요. 그러다보면 무릎을 탁 칠 때가 와요. '아! 내가 여기를 놓쳤구나' 하고 말이죠. 스스로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물리문제가 제게는 화두가 된 거죠.

화두는 일반인들이 처음에 붙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심자는 늘 수식관을 해야 해요. 수(數)를 세면서 호흡하는 데에서 집중력을 충분히 기른 사람들에게 화두를 줘야 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은 시간을 택해서 향 한 대 타는 시간만 집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 법신을 잘 굴리라는 거죠.

성태용 : '법신을 잘 굴리자'란 말인데, 이는 선생님의 '모습을 잘 굴리자'는 말과 같아요. 선생님은 처음에 '내가 한다' 고 생각하라. 언제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구나'를 점검하는 것도 수행이 된다고 했죠. 나중에는 '모습을 잘 굴려라' 한다는 것 속에 벌써 상(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그럴 때 '모습을 잘 굴려라' 하는 것이 이미 세속적인 일을 충실히 잘하는 방편으로써, 또 새로운 말귀가 화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삶의 현장을 수행의 장으로 바꿔 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박영재 :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화두점검하는 과정을 바로 입실점검이라 했어요. 입실점검은 1주일 2주일 단위로 제자들과 1대1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는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두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또 하나는 입실점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한다는 점이죠. 입실점검을 받

19면으로 이어짐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응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 · 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iva : 344~413) |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 · 『묘법연화경』 · 『아미타경』 · 『유마경』 · 『금강경』 용수의 『중론』 · 『십이문론』 · 『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응(慈應) 스님 | 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 – 1 전화 (02)420 – 3200 전송(02)420 – 3400 http://www.bulkwang.org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문화 잡지
격월간 불교와 문화
1992년 3월 창간된 『불교와문화(구 多寶)』는 이 땅의 불교발전과 문서포교를 위해 발간되는 불교계 문화잡지입니다.
『불교와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의 참 가치를 일깨우고 널리 알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이 땅의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를 등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불교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 주제를 섹션별(교리, 수행, 문화, 사람, 정보)로 집중화하여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비주얼(visual) 자료를 확대하여 읽는 책과 보는 책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 부담없이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단순미와 여백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구독료 : 1년분(6권) 42,000원 송금계좌 : 국민은행 827-25-0006-047 / 외환은행 189-13-02685-0 / 우체국 012245-01-001572 / 농협 069-01-197161 / 지로번호 7630868 / 예금주 : (재)대한불교진흥원
문의 및 신청 : 전화 02-719-2606, 팩스 02-719-5052
www.buddhistculture.co.kr

출가자보다 '단단한 각오' 강조

18면에서 계속

으러 들어갈 때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그때가 가장 순일무잡한 경계 속에서 화두를 점검받게 돼요. 그래야만 수행자가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 1주일을 돌이켜보고 점검받는 과정에서 공부가 무르익게 되거든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매일 설법을 세 번씩 꼭 했어요. 불꽃이 튀는 선어가 쏟아지는 그런 설법이었죠. 설법을 가만히 좋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서 설법을 듣지 않으면 방망이로 맞고 쫓겨나곤 했죠. 그런 설법을 통해 의단을 놓치지 않고, 계속 성성하게 화두를 들 수 있도록 제자들을 몰아 의단 속에 몰입할 수 있게 강한 수행체계를 확립했죠. 그런 면에서 요즘 간화선 수행이 대중화되는 흐름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박영재 : 백봉 선생님의 이런 불꽃 튀는 설법은 일종의 점검 시스템 성격을 갖는군요. 결국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 또는 활성화는 '점검 시스템의 복원'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산중에서 젊은 시절을 적극적인 수행자로 보낸 큰스님들을 보면, 조실 스님의 방을 수시로 쳐들어가서 화두를 점검받았죠.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삼귀의 같은 기본적인 것은 순전히 한글로 했어요. 한글로 외다보니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모두 한글화돼야 한다고 선생님은 주장했고, 방편도 우리 재가자에게 맞는 방편이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방편을 연구해 내고 제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편법을 개발했어요.

박영재 : 무문관에서도 '대도무문천차유로(大道無門千差有路)'라 했어요. 대도에는 따로 문이 없으니 천 갈래 만 갈래 길로 모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성태용 : 맞아요. 백봉 선생님도 '천 갈래 길이지만 고개를 넘는 길은 한 길이다'라고 했죠. 천 갈래 길이지만, 고개를 넘는 길은 외길이다 했어요.

박영재 : 그 고개가 무문관이에요. '투득차관건곤독보(透得此關乾坤獨步)'라 했습니다. 이 무문관의 문을 투과하면, 온 우주 속에 홀로 걸으리라는 뜻이지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사납게 표현했죠. '고봉독존답살만인(孤峰獨存踏殺萬人)'이라 했어요. 오뚝 솟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라는 의미죠.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의 수행일화 중, 입실지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세 번 산책을 했구는 많음에도 불교계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박 교수님은 현대인의 선수행에 대한 요구를 부응시킬 만한 새로운 지도법 또는 방편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박영재 : 방편과 지도법에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만공 선사가 주장한 '도사(導師), 도량(道場), 도반(道伴)' 이에요. 이 중, 현대인들에게 도량이 제일 중요해요. 먼저 도량은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산중의



성태용 교수(왼쪽)와 박영재 교수는 백봉과 종달 거사의 거사선풍이 재가자의 선수행에 방향을 제시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일상공간 선방으로 활용, 삶속으로 수행 끌어들여야
입실점검 상설화해 간화선 대중화 생활화 유도를

선원은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선도회는 각 지부 모임을 이끄는 법사가 '있는 그곳'에서 수행을 해요. 서강대 모임은 서강대 성당 기도실 온돌방을 빌려 매주 참선모임을 하고 있죠. 이제는 선방이란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기존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재가에 있으면서 자기 전문직에는 소홀히 하고, 산중으로 선원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안쓰러워 보여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화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결국 내가 져야 한다. 때문에 과감하게 화두를 대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는 새발귀'라고 했어요. 새발귀를 이렇게 수행하면, 나와 남, 사회를 완성시키는 방편이 된다고 강조했죠.

박영재 : 화두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인들, 특히 초심자들이 많이 느껴요.

성태용 : 재가자들이 화두를 들다보면, 자존심만 심하게 상하고 결국은 의지가 꺾여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극히 잘못됐어요.

박영재 : 그것은 지도의 문제에요.

성태용 : 지도의 문제죠. 왜냐면 의심도 안 생기는데 화두를 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의심은 안 생기고 머리만 아파 상기병에 걸리기 십상이죠.

박영재 : 입실점검이 상설화돼야 돼요. 스승에게 입실점검을 받으려 가는 순간은 초긴장 상태에요. 그 초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보면, 화두가 안 들릴려야 안 들릴 수가 없게 돼요. 선생님은 '보보청풍기(步步淸風起)'란 선어를 즐겨 썼죠.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에서 청풍이 일어야지만 그것이 선풍으로 휘날리는 거지, 가는 곳마다 죽을 쓰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선수행을 하겠느냐'고 늘 강조했죠.

성태용 : 보림회는 백봉 선생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제자들이 수행담과 수행체험수기를 모으고 있어요. 선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제와 격려가 될 것으로 기대돼요.

박영재 : 선도회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선도회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종달 선생님의 어록집을 10권으로 묶어 선수행에 요긴한 내용을 담아 편찬할 예정이죠.

성태용 : 오늘 백봉 선생님과 전혀 다른 족적을 남긴 종달 선생님의 제자인 박교수님을 만나 서로 다르면서도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재가자로서 출가자보다 몇 배 단단한 각오로 수행에 달려든 두 분의 정신이 재가자의 선수행에 귀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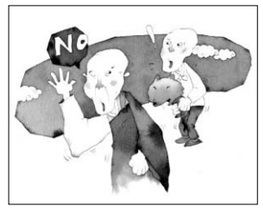
<21> 조주 선사가 오래오래 산 까닭은?

언젠가 조주 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마조 선사가 '마씨'이길래 당연히 조주스님도 '조씨'려니 하고 나와 같은 성씨임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후 '나도 선사처럼 오래 살아야지'하고 운을 떼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무뚝뚝하면서도 비수같은 한 마디가 날아왔다.

"조주(趙州)는 인명(人名)이 아니라 지명(地名)인데요."

"??? (으~ 쥐구멍이 어디야)"

음~ 그건 그렇고, 조주 스님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너무 건강하게 살다보니 '고불(古佛)'소리를 들어가며 120살이 된 것일까? 아니면 오래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에 장수원력을 세운 것일까?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조주땅 동관음원에 80살이 되던 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후 40년을 한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 자리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선사는 더러 보이지만 40년 역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래저래 깨지기 어려운 2관왕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나라 예주 방림리에 두 동자가 함께 발심하여 집을 나와 임야사로 출가를 했다. 임야사(林野寺)는 그 이름으로 보아 말이 절이지 그냥 지붕도 없는 들판을 의미한다. 혈사(穴寺)가 절이 아니라 동굴이듯이. 들판도 바위굴도 수행자가 머물면 바로 절이 된다. 그야말로 두타행 그 자체였다는 의미이다.

한 아이의 이름은 종심(뒷날 조주 선사)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달정이었다.

이 두 동자가 태양산 서봉 아래에서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토굴을 만들고서 정진을 했다. 그리하여 견성해서 많은 중생을 교화하길 발원하고 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목숨을 걸고 수도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달정은 도중에 병이 나서 죽고 만다. 도반을 잃은 종심의 슬픔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종심은 그 뒤 남전 선사를 만났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의 법을 잇게 된다.

그리하여 조주땅 동관음원에서 머물면서 달정이 세상에 다시 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임야사가 있던 곳과 동관음원 위치의 지리적 관계성은 불민한 탓에 살피지는 못했다.

120살까지 산 것이 그냥 산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를 기다리고도 남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달정은 환생하였고 그리고 또 출가를 하였다. 수행자는 수행자로 다시 오기 마련인가 보다. 업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법명은 '문원'이라고 했다.

하루는 젊은 문원 스님이 느닷없이 개를 안고 와서 연로한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병으로 먼저 떠난 도반의 환생 믿은 조주 선사
"개에게도 불성이…" 물은 스님이 환생한 도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에 조주 스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없다(無)."

이 말을 듣고서 문원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물론 〈조주록〉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상상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숙명통도 함께 열렸다. 흰머리칼의 늙은 방장스님은 그 옛날 토굴에서 함께 정진하던 도반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껴안고 서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군더더기라서 빼버렸나 보다.

이런 선문답은 어떨까?

문:조주 선사께서 오래오래 사신 까닭은?

답:'조주무자(趙州無字)' 화두를 만들기 위해서.

'퍽!(몽둥이 날아오는 소리)' 씹데없는 소리!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솔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봉황의 안목, 송사리의 물차기

가깝게 보이는 산, 그러나 길은 험하다

말이 난 김에, '불교와 주자학'을 본격 짚어나가려 했는데, 가던 길이 있어 우선 접습니다. 저번에 원효 스님의 <진역 화엄경소>를 두 번째 단락까지 살피다가, 엉뚱한 데로 튀었지요. 오늘은 그 자리를 이어 세 번째 단락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효 '진역 화엄경소'의 세 번째 단락

"(3) 그렇지만 저 문(彼門)에 기대 이 일(此事)을 보게 되면, 하루에 세 번 문을 나서는 것같고, 열 사람이 방안에 앉은 듯 덤덤한 세계이니, 무엇 기특한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 일이 쌀알들을 큰 창고에 들이는 듯하고, 방 안에 여러 사람 들어차는 것이 넓은 우주가 만물을 포용하듯 힘들지 않고 무난하다. 어디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는 봉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의 낮음을 바라봄과 같고, 하백이 한바다에 이르러 시내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악착했음을 알리라."

"그렇지만 날개 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 없다."

저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법계는 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공간도 특칭화할 수 없는 세계이다. 거기서는 움직임도 고요도 없다. 먼지 하나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지만, 또 태허로도 다 감싸 안을 수 없는 규모이다. 법계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고, 공간이 없으므로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불가사의한 곳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

이 불교적 유토피아 앞에서 우리는 그만 까마득해집니다. 어디 머리 들이밀고 손을 댈 수 있을 것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화엄은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법계가 기실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피는 세 번째 단락은 그 역설을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문에 기대 이 일을 보게 되면", 즉 법계(法界)와 연관하여 이 사바를 볼작시면, 이 불가사의한 법계는 엄연히 공간과 시간의 일상적 질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어째서 우리의 일상적 세계가 무장무애(無障無礙), 즉 아무런 장애도 훈련도 교정도 타파도 없이, 곧 불가사의한 법계와 동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화엄의 화두를 타파해야 일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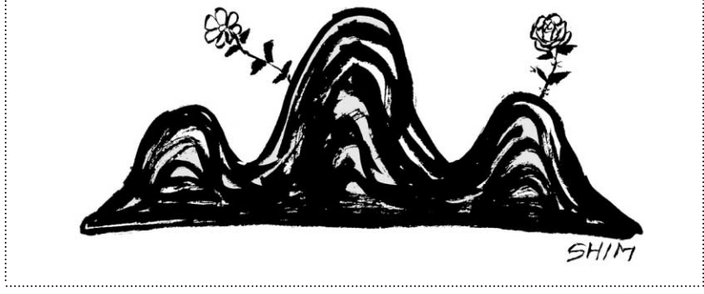
화엄, 부수고 다시 세우는 세상

그 소식을 무딘 붓으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적은 대로, 세상은 우리가 보는 바에 따라 포획되고 레테르가 붙여지며, 그런 점에서는 극히 주관적입니다. 변계소집(遍計所執), 인간의 의식적 가치판단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해집니다.

그 무의식 바닥에 있는 이 극히 주관적 판단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뿌리는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뿌리깊은 생물학적 욕망에 닿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 뿌리를 제거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제거한다면, 그동안 생존의 욕망 위에 구획되어 있던 전 가치판단의 지도(地圖)가 바뀔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남다른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가치 정향을 갖게 된 사람들의 감동적인 얘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화엄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그려놓은 그동안의 가치 지도는 실상(實相)이 아니었다는 것, 그 타파(破)를 지금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벗어나면, 온 세상은 있는 그대로 평화롭습니다. 시간과 공간, 움직임과 고요함, 좋고 싫음에, 나고 죽음이나, 또 너니 나니, 그리고 하나와 여럿의 제 구분들이야, 우리 각자의 뿌리 깊은 욕망의 의식 무의식적 흔적들이고 자식들입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쓸어내야 화엄의 자리, 법계의 실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순 다음에는 세워야(立)겠지요. 그 주관적 가치의식이 깨어지고 깨어져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은 흘러가고, 창밖에 차소리는 들리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들으며, 화를 내고 웃으며, 또 협상도 하고 협박도 하며, 사기도 치고 구걸도 하는 이 인간만사의 세상일들이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적대적이었던 그 세계는 그러나 법들의 질서, 즉 연기법(緣起法) 위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강같은 것입니다. 거기 아무런 무질서나 혼돈이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개판이라는 생각은 혹시 그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봉황, 높새 바람을 견디는 안목

화엄의 경지는 세상을, 운명을 전폭 수긍할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안목입니다. 당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좁은 욕망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경지는 높은 만큼, 더 강한 바람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화엄은 사물을 절대적 무차별의 경지에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이 경지는 지극히 높아 그만큼 어렵습니다. 원효는 이를 "봉황이 구름을 타고 올라 나트막한 산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백이 큰 바다에 이르러 시냇물(?)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악착했음을 알리라."

그 동안은 어쩌했습니까. 불교는 소승에서부터, 사성제니 팔정도니 하여, 나 자신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론도 세우고, 수련의 지침들도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화엄은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글쎄, 좀 짜잘하고 좀스럽다고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원효의 다음 말입니다. 화엄의 원만 돈교(圓滿 頓敎)만이 아니라, 팔만의 크고 작은 가르침과 수행법들이 다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개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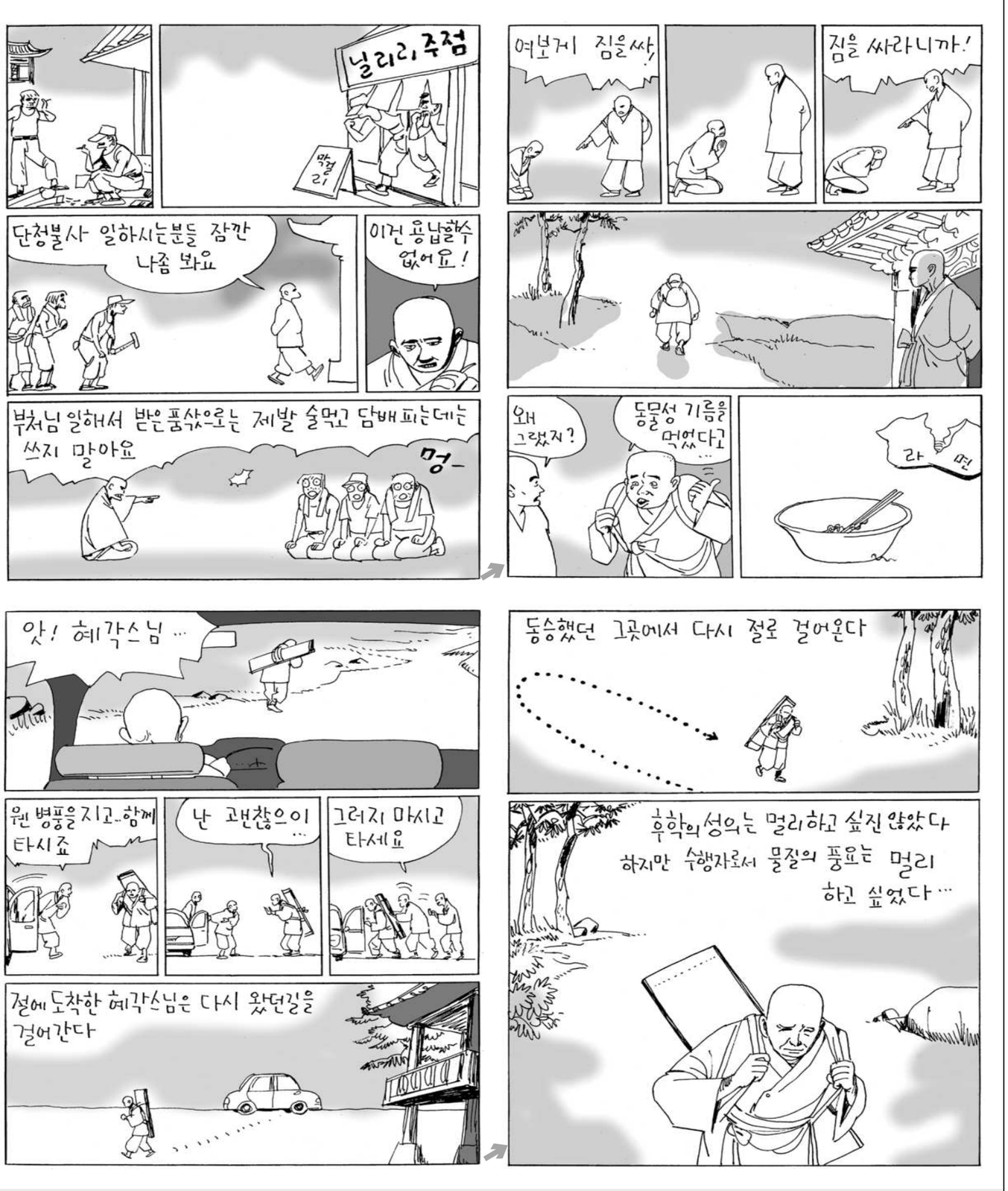
나는 이 말에 목이 메입니다. 갈 곳은 멀고 높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걸음부터 천천히 이 험한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흡사, 아주 가까이 보이는 산이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먼 길을 힘겹게 걸어야 하는 산행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낮고 짜잘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는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⑦⓪ 혜각 스님의 병풍

조태호



혜각(慧覺;1905~1998): 황해도 신촌군 태생. 회명 스님을 은사로 모심.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였으며, 청정한 삶과 지계(持戒)로 존경 받음.

네티즌 교리문답

십우도(十牛圖)가 무엇입니까?

문 불교 경전, 특히 <화엄경>에서는 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경전에 소가 등장하는지요? 또 십우도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궁금이)

답1 : 불교에서는 보통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소를 찾는 것에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십우도 역시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것을 동자(童子)나 스님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입문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를 10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는 십우도에서 소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의미합니다. 중국 송나라 곽암(廓庵)스님의 '십우도(十牛圖)'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금강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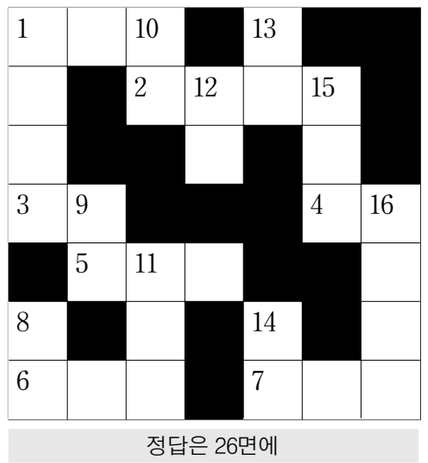
답2 : 십우도의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자승이 자신의 본심인 소를 찾아 나서는 심우(尋牛)입니다. 두 번째 견적(見跡)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고 세 번째 견우(見牛)는 소를 발견한 것으로 깨달음이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득우(得牛)는 동자승이 소를 잡아 고삐를 거는 모습으로 수행자가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목우(牧友)는 소에 코뚜레를 뚫어 길들이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소가 검은색에서 차츰 흰색으로 변한다.

여섯 번째 기우귀가(騎牛歸家)는 흰 소에 올라탄 동자승이 피리를 불며 깨달음의 세계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忘牛存人)에서는 소는 없고 동자승만 앉아 있습니다. 소는 단지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여덟 번째 인우구망(人牛俱忘)은 사람도 소도 모두 공(空)임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텅 빈 원상(圓象)만 그려져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아홉 번째 반본환원(返本還源)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입전수수(入廛垂手)는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중생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쇠소)

답3 : 사찰을 찾았을 때 법당 외벽에 가장 많이 그려지는 벽화가 십우도입니다. 일찍부터 선가에서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을 소에 비유하여 마음 닦는 일을 소 찾는(尋牛) 일로 비유해왔습니다. 소의 상징은 '참 생명', '참 나'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를 찾는 일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행자를 이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소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좋은 소)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소뿔 모양의 호 수 2.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3. 기름에 튀긴 면발에 스프를 넣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 4. 운동이나 자연 관찰을 겸하여 야외로 길을 떠나는 것 5.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된 사찰 6.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7. 발광제(發光劑)가 들어 있는 탄환.

세로 1.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만 핀다는 상상의 꽃 8. 일정한 금액에 얼마를 더 얹음 9. 얼굴의 수염을 깎는 일 10.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 11.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12. 나라의 운수 13. 머리 · 가슴 · 배의 세 부위로 나고 가슴에는 3쌍의 다리가 붙어 있는 종의 총칭 14. 서도를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이르는 말 15.곡식을 찧거나 빻는 방아를 설치한 한국의 건물로 방앗간이라고도 함 16.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는다는 말로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뜻.



사진 왼쪽부터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포레스트 검프'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속에 숨은 불교 코드 찾기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월호 스님 지음
이치 펴냄
9천8백원

영화 33편 선정 '삶과 죽음' 등 7개 주제로 나눠 해석

"인생은 어차피 한바탕 연극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멋지게 마치고 가면 그뿐이다. …유념할 것은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희망적 상황에서도 절망의 늪에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강을 굽어보며, 두 남자는 함께 로프도 매달지 않은 채 점프를 한다. 두 사람은 담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다. 고교 교사인 인우(이병헌 分)는 자신의 반 학생인 현빈(여현수 分)에게서 비록 남자지만 과거 애인이었던 태희(이은주 分)의 모습을 발견한다. 태희는 17년전 인우의 군 입대 전날, 마중 나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마침내, 과거 인우가 기다리던 용산역에서 현빈은 전생의 여대생이던 태희로 바뀌어 인우와 17년만에 재회 한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줄거리다. 대략 영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최근 월호 스님(쌍계사 국사암 감원 · 쌍계사 강원 학감)이 펴낸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을 보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월호 스님에 따르면 영화 '번지점프…'를 통해 우리가 불교적 관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삶과 죽음, 그것보다 더 질긴 것은 바로 '마음의 애착'이라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전생에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금생에 비록 몸을 바꿔 동성(同性), 그것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났음에도 서로가 이끌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진정한 사랑은 애착과 분명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착이란 결국 윤회의 굴레 속에서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 윤회의 굴레에서 훌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스님은 책 말미에 게송을 덧붙인다.

'이 몸을 이번 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꼬?'

이렇듯 <영화로 떠나는…>은 33개의 영화를 일곱 개의 큰 주제로 나눠 불교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놓았다. 이 책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시작해 '본마음 참나' 등을 거쳐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라는 주제로 끝맺고 있다.

선택된 영화들도 주로 흥행했거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들이어서 자못 흥미롭다.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고 난 뒤 이어지는 지은이의 불교적 해설은 독자들을 넓은 불법의 바다로 이끌어 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영화를 소개한 책이라기 보다 영화를 소재로 한 불교책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각 편 말미에 있는 '달마, 이 영화를 말한다' 코너는 영화의 주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압축한 해석을 곁들여 놓아 신행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영화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공한 것이고, 불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난 뒤 지은이는 생각한다. '인생은 어차피 한바탕 연극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멋지게 마치고 가면 그 뿐이다. 다만 유념할 것은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희망적 상황에서도 절망의 늪에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통과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용하는 만큼 느껴지는 것이다'고.

이외에도 지은이는 남북의 공업(共業)을 풀기 위해 서로 싸우지만 마침내 끈끈한 형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 본마음 참나인 불성자리에서 보면 남북이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다는 오조 대사의 어록을 인용해 설명해 준다. 특히 '그냥 뭔다'는 포레스트 검프의 바보같은 대답에서 '무심(無心)'의 진리를 들춰내는 부분에선 새삼 그 신선한 안목에 고개가 숙여진다. 평범한 느낌으로 봤던 영화들을 월호 스님이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이 책은 영화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 왼쪽부터 영화 '콘택트' '매트릭스' '트루먼쇼'.

전문가 서평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정지환 지음 | 인물과 사상사 펴냄 | 9천원

정지환은 '독립기자'다. 독립기자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일은 프리랜서 기자와 유사하지만 '독립'이란 말에는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다. 기자로서 정치권력뿐 아니라 '언론권력'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돼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기자들이 조직의 원리 또는 동종업계라는 이유로 피하거나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언론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침없고 저돌적인 글 때문인지 실제 모 언론사와는 기사를 두고 송사에 휘말린 적도 있다. 이런 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으로 한국 현대사에 칼을 들이댔다.

책의 주제는 역시나 뜨겁고 현재진행형인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친일문제와 레드콤플렉스다. 친일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친일규명법'이 논란 끝에 통과되었기에 더욱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은이는 실증사학자로 알려진 이병도와 특무대장 김창룡의 기이한 인연에서 이번 추적을 시작한다.

이 책에 따르면 이병도는 일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 급조한 조선사편수회에 부역했던 역사학자고, 김창룡은 일제시대에 관동군 헌병으로 독립군을 사냥했던 친일파였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해방 후 각각 군부와 사학계의 거봉이 됐다. 지은이는 이 두 사람의 묘비를 중심으로 이들의 감춰진 이면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들추어낸다.

한국현대사의 감추어진 진실

제3부 '빨갱이 만들기'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 부분. 국내 한 월간지와 이장희 교수의 용공(容共)을 둘러싼 송사 부분과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진행됐던 사상검증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는 정도는 완화됐을지언정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지은이의 집필 의도이기도 한데 그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 발짝의 전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장애물이 극복과 청산의 대상인 낡은 패러다임의 유산임은 물론이다. 낡은 패러다임의 생존논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전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낡은 패러다임이란 물론 냉전적 반공 이데올로기와 상대방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색깔론'이다.

한국현대사에는 유달리 '숨겨진 비밀'이 많다. 그리고 이 비밀의 상당 부분은 소위 '지배 엘리트' 들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이 책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우리 모두가 친일' 이라는 모호한 변명으로 이 비밀이 은폐되거나 왜곡돼 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지은이의 발품으로 그 동안 묻혀왔던 현대사의 다양한 비사들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벗겨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경구를 줄곧 생각하게 하는 현대사 추적기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친일인명사전' 지원을 둘러싼 국사편찬위원 회의록 공개를 비롯 안중근이란 인물이 반민족적이고 극우적인 인사들에 의해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지, 1948년 일어난 여순사건을 당시 권력자들과 언론은 어떻게 이용하고 사건의 실체를 외면했는지 등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수많은 사건과 인사들의 실체와 현장이 촌철살인 같은 글로 생생히 복원된다.

■**장윤성**(시네텔 프로덕션 다큐 전문PD)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천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천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 개인상담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불안증 및 공포증 /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개인상담 : 전화예약에 의한 상담실시
◎ 세 미 나 : 수시모집 및 교육실시
◆ 상담지도전문가

설기문 박사 :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가기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201-1102호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indcoach@naver.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탱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피랑)
연꽃초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원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전국 불교 용품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英詩로 읽는 불교 … '새맛'

영문학자 박영의 교수, 영시 시리즈 중 첫권 발간
목탁 · 죽비 등 용어와 불교사상 · 수행법 쉽게 풀이

Keep your mind undisturbed
Leave your thoughts behind.
Then you will see your Self-nature,
The Buddha mind.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자성(自性)을 보게 되며
부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 'The Buddha mind' 中



Finding Our Mind: Prelude
박영의 지음 | 여시아문 | 8천5백원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일으키는 것 같지만 쉽사리 다잡을 수도 없는 것. '마음(Mind)'이다.

박영의 교수(충남대 영문학과)는 바로 이 '마음'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마음 찾기'에는 색다른 도반이 있으니, 박 교수가 평생을 함께 해 온 '영어'다. <Finding Our Mind: Prelude>에는 박 교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낸 48편의 영시(英詩)와 우리말 해석본이 담겨 있다.

40여 년간 기독교에서 진리를 찾아온 박 교수는 <모비딕>의 작가인 미국 해양소설가 하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작품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복종적 믿음 대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불교 사상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아 나섰으며, 충남대 불자교수 대원회 회장과 한국불교연구원 대전 구도회 고문을 맡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자광사 국제선원 개원식에 참석해 영문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게 알려줄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그 해답이 '불교 영시'다.

"처음엔 참선과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어렵고 함축적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영어와 한글로 쓴 이 평이한 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층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요즘, 이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로도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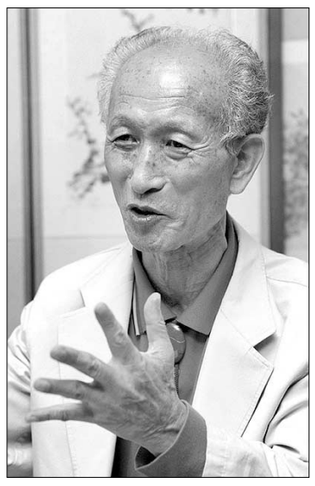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된 책은 '서문(Prelude)'이라는 부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불교 입문자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목탁' '죽비' '인연' '중도' 등의 시에서는 불교 용어를 쉽게 풀이하고, '불교는 허무주의?' '전쟁과 종교' '염불과 화두' 등에서는 불교사상과 수행법을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시가 단순한 어구 풀이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박 교수는 '무념(無念)'을 '생각 없는 생각(thought without thinking)'으로, '일주문'을 '온 우주를 감싸는 허공과 같은 빈 마음(The void, which embraces the whole universe)'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직접 그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에 실린 영시들은 초심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내용을 심화해가며 총 6권으로 '불교 영시' 시리즈를 완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영시(英詩)로 불교의 가르침을 풀어내는 박영의 교수.

새로나온 책



■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법을 어찌알랴>**(오현 스님 지음, 장승, 1만원)="소금은 많이 먹을수록 물을 켠다. 쾌락도 마찬가지이다. 좋다고 생각될 때, 거기서 멈추는 절제의 미덕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백유경>에는 소금이 음식 맛을 낸다는 생각에 모든 음식에 잔뜩 뿌려 먹거나 귀한 흑단향목을 숯으로 만들어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한다. 오현 스님이 풀어주는 <백유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 자신임을 깨우치게 된다. 1993년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 **<피안으로 떠나는 여행>**(일봉 스님 지음, 정우서적, 7천원)=청주 광덕사 주지 일봉 스님의 수상집. 어린이 포교와 군부대 법회 등에 주력하며 지역 불심 다지기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이 그동안 신문에 실었던 칼럼과 인도성지 순례 기행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포교 일선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현대인들이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문제들을 짤막한 글에서 담아내고 있다.



■ **<붓다와의 대화>**(구모이 쇼젠 지음, 이필원 옮김, 심산, 1만원)=구모이 쇼젠 교수(오타니대학 명예교수, 천태종 종합연구센터장)가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를 통해 자신의 불교관과 인생관을 풀어내고 있다. <숫타니파타>의 구성과 성립 과정 등을 살펴보고, 그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문재현 엮음, 바로보인, 1만5천원)=서울과 광주, 부산의 삼원선원 모임을 결성했고 바로보인 출판사를 설립해 불서를 펴내고 있는 문재현씨가 그동안 재자들과 선 수행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를 책으로 엮었다. "깨달은 후 불지(불地)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선화(禪華)'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매일여와 일상삼매는 같은 것인가" 등 120여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다.

백제에 불법 전파한 마라난타 스님 소설로



마라난타 민희식 · 장성욱 지음 | 화남 | 9천원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항해가 순조롭게 되어 불법(佛法)을 백제에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384년(침류왕 1) 백제에 최초로 불교를 전래한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의 전기소설이 두 불문학자에 의해 선보였다. 민희식(72) 교수는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 한양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50여 권이 넘는 저서와 번역서를 통해 프랑스 문학작품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프랑스문화훈장을 수여한 불문학계 원로. 민 교수는 장성욱 교수(48, 동의대)와 7년간의 공동 집필 끝에 소설 <마라난타>를 완성했다.

두 지은이는 마라난타 스님의 행적을 찾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 · 일본 등에서 관련 자료와 문헌을 수집했고, 중국과 실크로드에 인접한 여러 나라에 남아 있는 스님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4세기 무렵 간다라 지방의 모습을 비롯해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설로 복원해냈다.

소설은 브라만 계급 출신인 마라난타의 출생과 성장과정, 불교를 만나게 된 사연, 불교사상을 접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도의 길에 나서게 된 과정을 시대순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또한 간다라에서 출발해 실크로드를 따라 돈황과 동진에 이르는 여정과 미지의 땅인 백제에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떠난 길에서 겪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등을 생생한 문체로 되살려냈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세워지고 있는 마라난타사.
현대불교 자료사진

민 교수는 "마라난타 스님에 대한 책은 고사하고 연구 자료도 거의 없는 형편이라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나서게 됐다"며 "부족한 자료지만 이를 토대로 스님의 삶과 백제 사람들의 삶을 최대한 정확하게 살리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견성은 수행의 시작"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현 스님 지음
현지궁현지사
1만5천원

우리는 수행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혹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현 스님(춘천 현지사 회주)이 전하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1960년 부산에서 출가한 뒤 '법성'이라는 법명으로 조계종 포교부장을 지냈던 스님은 이후 종적을 감추고 30여년간 은둔 수행해 왔다. 최근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라는 부제로 펴낸 책에서 스님이 전하는 '붓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의 불교는 그 내용이나 외양에 있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견성(見性)이 곧 성불'이라는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불교수행의 목표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공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님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道)를 이루어 아라한(阿羅漢)의 경지에 이르고, 다음 생에 다시 원력 수행해 보살이 되고, 또 다시 수행을 통해 보살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수행승은 무엇보다 음계(淫戒)를 지키고 효(孝)를 다해야 하며 경전을 읽고 염불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칭명(稱名)염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는 길 잃은 자식이 어머니를 찾듯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부처님 상을 마음속으로 그려가면서 염불정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끊어짐 없이 염불이 되어야 진정한 염불선입니다. 염불선은 보살의 경지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도올 망언에 대한 일갈' '현지궁 현지사 수행일지' 등의 글이 실려 있으며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코너를 마련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불교와 오페라가 만나면

2004년 연구학기를 맞아 미국 워싱턴 근교의 린치버그대학에서 개인 작곡 발표회를 연 정부기 교수(중앙대). 그는 발표회에서 한국불교음악을 소개해 호평 받았고 불교 오페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들었다. 그래서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 창단을 기획하며 부처님일대기를 담은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에겐 '오페라'라는 종합예술이 여전히 멀고도 생소하다. 불교와 오페라는 조화로운 만남을 꾀할 수 있을지, 과연 만남을 시도한 적이 있긴 했는지 등의 의문만 생길 뿐이다. 하지만 음악 전문가들은 오페라는 한국불교 문화포교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불교와 오페라가 만나면 어떨까?

고급문화상품 가능성 충분

정신적 깊이 담보가 관건 … "관객이 모여야 '포교' 논할 수 있다"



1999년 초연된 정부기 교수의 오페레타 '아미타불'. 현대불교 자료사진

▽오페라?

오페라는 '가극(歌劇)'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음악극이 아니다. 노래와 춤, 연기를 두루 갖췄으며, 그 가운데 노래가 중심이 되는 종합예술이다.

그렇다면 뮤지컬도 오페라일까? 노래 중간 중간 대사만으로 연기도 하고 때로는 춤만으로도 극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뮤지컬이다. 그러나 오페라는 "작품 전체가 작곡돼 있다". 즉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다. 대화체 노래 '레치타티보', 주인공의 내면을 표현하는 독창곡 '아리아', 4~5명의 노래 앙상블, 합창 등이 극의 전개를 담당한다.

오페라의 닮은꼴 '오페레타'도 있다. 오페라의 한 갈래인 오페레타는 규모와 공연시간 등에서 오페라에 미치지 못하고, 음악의 비중이 적은 반면 연극적인 요소가 오페라보다 강한 편이다. '대화체 노래'가 아닌 '대사'가 동반되는 것도 오페레타의 특징이다.

▽불교 오페라의 더딘 맥박

우리나라의 오페라 역사는 길지 않다. 1948년 '라트라비아타'가 국내 오페라 첫 무대였다. 내용면에서도 서구 오페라를 모방하는 정도에 그치곤 했다.

불교 오페라 역시 한국 오페라의 빈약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무대가 기획될 때마다 독특한 주제와 콘텐츠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불교를 소재로 한 오페라의 최초는 1971년 장일남 교수(한양대)에 의해 무대에 오른 '원효'.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창작 오페라 '원효'는 원효 스님의 무애자재한 삶을 담아내면서 이목을 끌었다. 김자경오페라단(71년) · 국립오페라단(83년) · 글로리아오페라단(95년)에 의해 세 차례 공연됐다.

이후 2000년에는 최초의 한국적 오페라를 표방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공연됐다. 금속활자를 고안한 고려인들의 새 문화 창조의지가 박범훈 교수(중앙대)의 곡으로 살아났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소재로 한 점,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혼성 편성에 판소리 등의 고유 창법과 양악 창법을 결합시킨 점 등으로 한국적 오페라의 가능성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주경중 감독의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이 무대에 올랐다. 이건용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이 대본과 곡을 쓴 오페라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의 마음을 단막극 형태에 담아낸 작품. 기본적으로 아리아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현악 4중주에 일렉트릭 디지털 피아노 음색을 조화시킨 음악이 돋보였다.

이외에도 정부기 교수는 1999년 '아미타불'이라는 오페레타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중생구제와 성불을 위해 48서원을 세워 아미타 부처님이 된 법장 비구의 구도과정을 담고 있다.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대중적인 음률을 가미시켜 인기를 모았다.

▽불교오페라의 가능성

서양음악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불교계가 거듭 오페라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기 교수는 찬송가의 예를 든다. 개신교에서 찬송가에 쉬지 않고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의 감동을 끊임없이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 감동은 포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그것에 있어 찬불가도 예외가 아니다. 정 교수는 "그러한 불교음악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페라야 말로 가장 완벽한 포교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관현악곡, 교성곡 등과 달리 대사 등의 수단을 통해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오페라가 타 장르를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이다.

직접적인 포교효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오페라'가 지니는 불교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페라 평론가 김학민씨는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등의 소재는 한국 오페라계에서 이미 진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무궁무진한 레퍼토리와 함께 정신적인 깊이를 담보하고 있는 불교는 한국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범패 등의 불교음악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적 오페라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능성과 예술성만 믿고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화평론가 장일범씨는 "예술적 완성이나 포교효과 등은 관객의 관람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장일남


박범훈


이건용


정부기

장일남 교수의 '원효'가 불교 소재 최초
동승 · 직지 등 독특한 주제 일반인에 호응
진부한 소재 탈피 · 재미있는 스토리 우선



주경중 감독의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이 지난해 무대에 올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계 최초 오페라단 '바라' 6월 창단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초연

삼보불교음악협회, 10월 14~15일

정부기 작곡 … 볼거리 다양
3막 6장에 부처님 일대기 담아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창작 오페라가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과 함께 선보인다.

삼보불교음악협회는 10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무대에 올린다. 이는 정부기 교수가 부처님 일대기 '붓다의 노래' 합창교향곡을 각색해 만든 3막 6장의 그랜드 오페라로, 오는 6월 말 창단될 불교계 최초 오페라단 '바라'에 의해 공연될 예정이다.

야수다라와 아난다가 고백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이번 곡은 기존의 불교 오페라가 노래에 극적 전개를 맡긴 것과 달리, 극의 3분의 1 가량을 대사 등의 연극적인 요소를 살려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 교수는 "스토리가 연기에 의해 전개되는 부분이 많다"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관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성제 등 풀어내기 어려운 불교 교리는 무대장치를 이용해 자막으로 표현된다.

국악기의 선율에 서양악기의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악기편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10여종의 국악기, 파이프오르간 · 팀파니 등의 서양악기가 음악을 조율한다. 10여곡의 아리아, 150여명에 이르는 전국불교연합합창단원들의 합창도 극의 전개를 돕는다.

이밖에도 무대 곳곳에서 선보일 환희의 춤, 열반춤 등의 다양한 춤사위도 오페라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오페라의 수익금은 운문 스님의 불음포교를 기리기 위한 불교음악역사관 건립에 사용된다. 초연 이후에는 포교를 위한 전국 순회공연이 계획돼 있다.

강신재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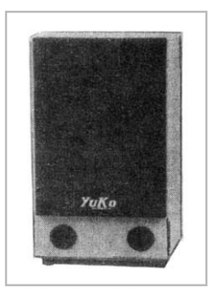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1Box(60포 : 20만원)~~ ↓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35만원)~~ ↓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6>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옛날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부잣집에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나 좀 얻어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은 남부럽지 않은 부잣집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들고 와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전생에도 이런 공을 쌓아서 이번 생에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복을 쌓으니 다음 생에는 정말로 훌륭하고 부유하게 태어날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복을 닦지 못하여 지금 세상에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복을 짓지 않으면 미래 세상에는 더욱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울음이 복받쳤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여인은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 똥 속에서 동전 두 푼을 주운 것이 있지. 정말 아쉬울 때에 쓰려고 잘 감춰둔 그 돈을 이제 스님들에게 보시해야겠다.'

거지여인은 스님들이 공양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돈을 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스님이 친히 그 보시를 받고는 몸소 그 여인을 위해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공양올린 음식까지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내가 보시한 과보를 얻는구나.'

그 뒤에 왕의 눈에 우연히 들어서 거지여인은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여인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때의 보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복의 과보를 얻은 것은 돈 두 푼을 스님에게 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나의 은인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왕에게 청하여 스님들의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커다란 수레에 음식과 귀중한 보배를 가득 싣고 스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때의 큰스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래 스님을 그 여인에게 보내 축원하게 하였습니다.

여인은 곧 불만에 차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두 푼을 보시했을 때에는 몸소 나를 위해 축원하더니 오늘은 귀중한 보배를 가득 싣고 와서 보시했는데도 날 위해 축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그 큰스님이 여인을 만나자고 청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의심하고 있군요. 부처님 법에서는 오직 착한 마음을 귀하게 여길 뿐 진귀한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지난번에 두 푼의 돈을 보시했을 적에는 착한 마음만이 가득 하였는데 지금 귀중한 보배를 보시하면서는 나(我)라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 축원하지 않는 것입니다."(잡보장경 제4권)

며칠 전 반야경에 관해 짧은 강의를 하면서 보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면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라는 반야의 세계에서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여야 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깨끗해야 하는 것, 그런 무주상보시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란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녔으니 보시바라밀은 '보시의 완성'이란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의 설명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였습니다.

'보시를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가진 것을 다 주라는 말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무주상보시의 뜻을 알고 싶은 분은 앞에서 소개한 <잡보장경>에서의 여인과 스님의 대화를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정갈하고 푸짐하고 거창한 보시를 보고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간절한 소망을 담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남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보시의 선업과 즐거운 과보를 알고 난 뒤의 우리 마음입니다. 착한 업을 지었으면 저절로 즐거운 과보가 따를 것인데 어찌하여 눈앞에서 과보가 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미는 것을 받아주기만 해도 고맙고 감격스러워하였던,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 마음을 빨리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보시해야 무주상보시가 될 터이니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동전 두 푼 한량없는 맘으로 보시했던 거지여인
왕비된 후 풍족하게 보시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살고 죽는건 물위의 거품이다



불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도우 스님. 스님이 도선사 호국참회원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지상 백고좌

도우 스님

(도선사 염불선원장)

'부귀영화는 그 모두 봄날의 꿈이요.
모이고 흩어짐과 살고 죽음은 물위의 거품이다.
극락세계에 노니는 마음 그것 하나 말고는
생각하면 추구할 일 한가지인들 있겠는가?'

도우(道雨)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앞문에 붙어있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해인사를 떠나면서 남긴 시(詩) 한수가 유난히 눈에 띈다.

1947년, 성철 · 자운 · 보문 · 우봉 · 청담 · 향곡 · 월산 · 종수 · 보경 · 혜암 스님등 20여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력을 세우고 수행에 진력했던 봉암사 결사(結社)에 동참했던 스님은 현재도 밝은 선지(禪旨)로 사부대중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스님의 좁은 방에 들어서니 달마 그림이 즐비하다. 스님은 대뜸 붓을 들더니 달마도를 그렸다. 스님의 달마도는 유난히 자비롭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원만한 모습의 달마이다.

"요즘 사람들이 그리는 달마 그림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선사는 성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은 소림굴에서 9년 수행한 달마선사가 추우니까 거적을 덮어쓰고 날이 밝으니 삐끔하게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스님은 인도 남천축국 왕자였던 달마가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와 민중들과 친하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닮아간 속뜻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스님께 여쭤보았다.

"선이란 화두를 깨쳐서 생사해탈(生死解脫)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근본 목적은 생사를 초월하여 삼계윤회(三界輪廻)를 면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첫째, 보리심을 발하여야겠는데 보리심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상함을 자각하고 생사해탈할 길을 찾아서 입산출가하여 선지식을 찾아서 참선수행(參禪修行)할 화두를 참구하여 간단없이 의심을 지어가야 합니다.

닭이 알 품듯, 고양이 쥐 잡듯

닭이 알을 품어 온기가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하고 간절히 화두를 들되 '이뭣고'가 의심이 잘 안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입으로 '이 뭣고' 소리를 내어서 의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뭣고' 같은 화두는 원래 인도에서는 없던 용어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요, 가르친 바도 없습니다.

인도에 없는 언구술어가 중국에 전래되면서부터 1700공안(公案)이란 화두를 처음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선종의 임제종에서 간화선으로 화두를 사용하지만 조동종에서는 묵조선으로 화두를 의심치 않는 묵조좌선(默照坐禪)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화두는 무엇입니까. 육조 스님께서 상당법문(上堂法門)을 하려고 하는데, 남악회양 선사가 대중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 무슨 물건이 들어오는고?' 하니 남악 스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8년이 지나고서야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남악 스님이 8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이 뭣고?' 이 대목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어떤 수좌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조주 스님이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한 이 뜻을 알면 화두가 필요 없지만 모르면 화두를 참구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지어 나가되 그 하는 모양이 흡사 닭이 알을 품어 온기가 단절이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장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가격 : 80,000원 ◆규격 : 215-290(mm)
망사 (만행화) ◆가격 : 60,000원 ◆규격 : 215-290(mm)

● 단화 특징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과학으로 탄생시킨



◆가격 : 20,000원
◆규격 : 조절가능

건강웰빙 기능성깔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조원 : 벽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병수	052)272-0909 / 011-862-5282

되지 않아야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한 눈 팔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응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요즘 자기가 확철대오(確徹大悟)하였다고 생각하는 스님들이 많은 것 같다는 스님은 "전국에 있는 선지식에게 인가를 받아 확철대오한 줄만 알고 지내다가 우연히 질병에 걸려 앓다보면 공부하였던 도력은 하나도 없고 아픈마음 뿐이요, 알음알이는 다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수척한 몸에다 아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의 궁극을 생사초탈에 두어야 확철대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대오(大悟, 큰깨달음)가 18번이요, 소오(小悟, 작은 깨달음)는 부지기수라는 대혜 스님 신상담을 얘기했다.

단전호흡하며 의심 지어가야

"대혜 종고(大慧宗杲) 선사는 워낙 지혜가 출중하시고 기봉(機鋒)이 남달리 예민하시어 늦게 만난 원오 스님과의 법담과 문답에 조금도 막힘이 없이 잘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오 스님은 종고 스님을 인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혜 스님은 원오 스님을 원망하고 지냈습니다. 대혜 스님은 자기의 깨침에 더 이상 깨칠 것이 없는데도 원오 스님이 인가를 해주시지 아니하니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오 스님께서 대혜 스님을 불러놓고 '자네는 부처의 경계는 들어갔지만 마(魔)의 경계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공부를 더 하여야겠네.' 하고 인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대혜 스님은 '저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하니 원오 스님이 '무의언구 시대병(無疑言句 是大病,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혜 스님은 자기는 확철대오하여 더 이상은 할 공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대 선지식이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니 그 말씀을 듣고 '천하 선지식이 다 속였지만 오직 스님만이 저를 속이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다시 살아남으면 스님 법에서 맹세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화두를 의심하여 생사대사를 해결하였습니다."



홍경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하소기체가 들어있는 도우 스님의 달마도.

스님은 "요즘들어 참선 수행하는 불자들이 많은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수행법을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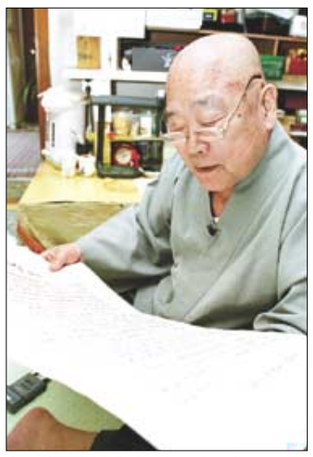
"먼저 가부좌를 단정히 하고 앉아 두 손을 겹쳐서 왼쪽 손은 위로가고 오른쪽 손은 그 손바닥 아래에 포개놓고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하여 꽉 쥐고 생각은 배꼽 밑 단전에 둔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배꼽 밑에 둔 단전에서 호흡하도록 하면서서서히 화두를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꾸 의심해 나가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 경계가 선의 경계가 아닌가.' 하고 딴 생각을 내지 말고 화두를 들어 생각하고 의심을 지어가야만 공부가 되니 깨닫기 전에는 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두가 안 잡힌다고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는 상기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단전에서 호흡하고 의심을 지어 나가면 상기병이나 소화불량등 일체병은 근접할 수 없습니다. 설사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더라도 장차 깨칠 인연을 지어놓았으니 언젠가는 확철대오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수행 할 때는 취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화두드는 생각과 마음을 취미에 빼앗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지 않을 때는 묵언(默言)으로 돌아가 선시(禪詩)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생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을 위해 참선만이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얘기했다. 스님은 불자들의 근기에 따라 참선과 염불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다고 했다.

평소 묵언하고 선시 읽어라

"간혹 불자들 사이에 오직 참선수행만이 한국 수행법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성 지안 선사 이후 한국에서는 염불선이 흥했습니다. 예전의 큰스님들도 염불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나와 부처가 차별이 없이 같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청정치 못하고 부처와 같지 않으니 결국은 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직지사 천불선원을 시작으로 문경 봉암사, 대승사, 법주사 복천암, 묘향산 두타암 상원사,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천성산 내원사 등에 방부를 들이며 수행에 전념할 때였지요. 어느 날 금강산에서 내려와 상주교당에 들렀더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쩌렁쩌렁해요. 그래서 내가 '왜 선을 하는 사람들이 염불을 하느냐' 했더니 성철 자운 우봉 성수 종수 청하 스님이 이미 대성사 무량수전에서 1000배 정토발원을 하고 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해야지요' 하고 500배 하고 정토발원했습니다."



육조 혜능대사의 글을 읽고 있는 도우 스님.

스님은 시간이 없거나 직장에 다니는 불자들은 염불선을 하라고 권했다.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나무아미타불 염하는 이 놈은 뭔가' 라는 화두를 타파하라고 했다.

"나무아미타불이 깨닫기 전 법장 비구로 48원을 세워 누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하여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발원하면 기필코 극락정토에 간다고 하였으니 미타정토삼부경을 부지런히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일체유심을 깨치시고도 화엄종, 해동종을 개종(開宗)하시면서 구경 회향은 서방 극락세계로 돌리고, 서민 대중들도 염불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권고하셨습니다. 화엄종의 의상대사께서도 부석사 무량수전을 짓고 법당 정면에 무량수불을 모시지 아니하고 서방에 모시어 자연스레 서쪽 아미타불님께 예배하셨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간화선이 한국불교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불법 수행의 목적과 의식이 아미타불 극락정토(阿彌陀佛極樂淨土)로 구경 회향하는 염불 수행이었습니다. 꼭 간화선이 염불수행보다 수승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참선과 염불을 병행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봉암사 결사 참여…한평생 생식 · 묵언 생활화

도우 스님은 보봉도우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던 세수 85세의 노스님이다. 젊은 시절부터 생식과 묵언으로 생활해온 스님은 대중들 앞에도 잘 나서지 않았다. 스님은 탁월한 기억력으로 봉암사 결사를 비롯한 근대 고승들의 행적등 근대 불교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님은 일반 불자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참선수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 선과 염불을 결합한 염불선을 권하고 있다.

스님은 또 서예 분야에서 이름 높은 맥문(麥門) 홍경 스님(1899~1971)으로부터 춤을 추듯 유연한 하소기(何紹基, 중국 청나라 서예가) 서체도 전수하고 있다.

도우 스님은 1922년 경북 문경 동로면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13세인 1934년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제응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0년 문경 김룡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42년 직지사 천불선원 초안거 이후 44년부터 문경 봉암사, 묘향산 대승사, 고성 문수암, 창원 성주사, 해인사 퇴설당 등에서 청담 · 성철스님 등과 안거에 들었다. 48년 문경 봉암사 결제에 참여하여 <공주규약 제정>을 통한 한국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스님은 52년 문경 봉암사 주지를 시작으로 선산 도리사 주지, 영주 부석사 주지,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와 조계종 정화대표자회의 비구측 비상종회의원, 감찰원 감찰원장을 역임했다. 62년 청담 스님을 법사로 건당한 스님은 현재 삼각산 도선사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즉시불> <사바가 정토요 정토가 사바>가 있다.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진철 스님

충북 괴산의 공림사(公林寺)는 내가 출가한 절이다. 전쟁의 상처로 거의 폐허가 된 것을 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절이다. 절 뒤의 낙영산(落影山)은 정선(鄭敾)의 인왕제색도(仁旺霽色圖)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산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바위 선이 일품이다.

내가 행자로 있던 시절, 공림사에는 많은 스님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두 분의 특이한 스님이 기억난다. 특이하다기 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사는 수행자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스님은 '삼천배 스님'이다. 스님은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에 들어앉아



그림 · 문병성

주력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스님이 삼천배란 별명을 얻게 된 계기는 공림사로 오기 전에 실제로 법주사에서 3000배 수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삼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000배를 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무릎에 굳은살이 박혀서 맨 바닥에 좌복 없이 절을 했단다. 얼마나 열심히 절을 했는지, 주위에서 보던 학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절한 자리가 파일 정도였다니 대단한 정진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생각했던 도(道)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망한 스님은 이곳 공림사로 들어와서 수행 방법을 바꾸었다.

다음은 진철 스님이다.

진철 스님은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다. 스님 방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루는 같이 사는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보려고 방문에 몰래 구멍을 뚫어놓고 엿보았다고 한다. 밤새도록 지켜봐도 스님은 누울 생각을 않고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공부를 하다 게으름을 피우면 잠깐 졸기도 하기 마련인데 스님은 꿈쩍하지 않았다.

진철 스님은 말투도 어눌하고 키도 작아서 같이 살던 몇몇 스님들이 한때는 업신여기기도 하였다. 반말조로 말하기도 하고 선방 주위의 쓰레기를 치우거나 물건 나르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맡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던 스님의 얼굴은 늘 평온하고 빛이 났다. 어떤 화의 화살이 날아와도 스님은 그 화살을 꽃으로 만들어 날려 보냈다. 그러나 진철 스님의 한결같은 수행으로 차차 주위의 스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스님은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바깥에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다른데 신경이 팔려 공부가 안 된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다른 스님들은 선방에 삼개월동안 머물러 있다 해제를 하는 날 모두 걸망을 싸들고 나가도, 진철 스님은 일체 산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내가 원주를 볼 때, 어떻게 알았는지 진철 스님의 속가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는 그 내용을 전하러 선방으로 갔다. 그러나 스님은 전화 받기를 거절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진철 스님은 한때 3년 동안 묵언(默言)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목이 퇴화해서, 3년이 지나고 말을 시작하

해제비 고스란히 이웃에게
3년 묵언…쉰 목소리로 변해

자 제 소리를 못 내고 쉰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스님의 목소리는 현재 쉰 소리로 굳어버렸다.

스님은 그 외중에도 오후(午後) 불식(不食)을 하였다. 즉, 오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 두 끼만 먹는 것이다. 그러다 몸이 좋아지면 그 두끼에서 한 끼를 거르고 하루 한 끼만 먹기도 했다.

스님은 재물(財物)에 대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다. 해제가 되면 만행을 나가는 선원 스님들에게 삼 사십만 원 정도의 해제비가 주어진다. 그러면 스님은 받은 돈을 원주 소임을 보고 있던 나에게 봉투째 고스란히 가져왔다.

자기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그 돈을 쌀로 바꿔서 인근에 사는 복지단체에 기증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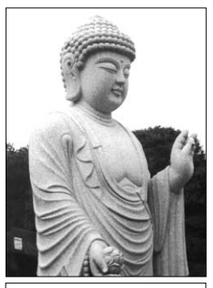
한번은 손수건에 싼 십 원짜리 동전을 몇 개 주워가지고 왔다.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왔으니 살림에 보태 쓰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철 스님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극히 기피했다.

진철 스님은 이제 공림사를 떠나고 없다. 어느 스님이 강원도에 있는 허름한 토굴을 스님에게 기증하여 그곳으로 떠났다. 진철 스님은 아마 강원도 토굴에서 평생을 보낼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낙엽이 지는 가을날 공림사에 갔었다. 절 앞 느티나무에서는 서리를 맞은 이파리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었다. 진정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로 존경했던 진철 스님이 없어서인지 왠지 나에게는 썰렁해 보였다.

■청원 현암사 총무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호국 · 보훈의 달’ 軍 문화행사 풍성

나라사랑 키워요





“우와~버킹검궁의 근위병 교대식보다 훨씬 더 멋지다”
“영화에서나 봤던 삼국지에서 관우가 쓰던 청룡도로 무술시범도 하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은 나들이를 나온 어르신들과 소풍 온 초 · 중 · 고생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다. 모두들 이 시간에 진행되는 국방부 의장대의 의장사열을 보기위해서다. 취타대의 군악연주와 전통의장대의 무술시범 및 여군 의장대 그리고 육 · 해 · 공 의장대의 의장사열 시범이 무르익을수록 관람객들의 우뢰와 같은 함성은 하늘을 찌른다. 각 군과 경찰은 6월 호국 · 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멋진 의장대 사열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들이 겸 국군 장병들의 멋진 의장사열도 보고 나라사랑의 정신도 키워 봄은 어떨까.

의장대 사열 · 전통검법 시범 · 군악대 연주 등 다채





④ 국방부 여군의장대의 ‘목총돌리기’ 시범.
⑤ 청룡도로 검법을 선보이고 있는 국방부 전통의장대.

●**서울 전쟁기념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밀리터리 이벤트로 자리매김 한 국군의장행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30분간 펼쳐진다. 조선시대 병영의 훈련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검법 시범, 육 · 해 · 공 · 해병대 의장사열, 여군들의 깃발과 목총을 이용한 동작시범, 군악대의 신나는 연주 등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행사 후 의장대원들과의 기념촬영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02)709-3114

●**진해기지사령부** 진해시민은 물론 불우이웃과 지체장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 윤호근 준위 외 16명으로 구성된 진해기지사령부 군악대는 6월 9일(오후2시)부터 17일까지 진해해양의료원, 진해재활원, 저도, 마산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음악회에서는 진해기지사령부 의장대 사열 시범 및 인기가수 김옥순씨도 우정출연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055)549-4061

●**서울 동작동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만의 자랑거리는 미리 에스코트 참배신청을 하면 의장대의 에스코트와 군악연주를 받으며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VIP 참배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동작동 현충원내에서 의장사열 시범도 선보인다. (02)905-5102

●**육군사관학교** 매월 1 · 3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시민들에게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을 개방해 생도들의 의장사열 시범을 실시한다. 1천 여 명의 생도들이 펼치는 분열은 이 행사의 다크호스. 육사 내에 있는 육군박물관과 육사기념관에 전시된 고대에서 현재까지의 각종 군사문화도 함께 볼 수 있다. (02)2197-6320

●**대전 현충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0분간 의장사열이 있다. 의장대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고 호국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042)822-0026

●**국립경찰대학교**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경기도 관내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교통이론 실습(횡단보도 건너기, 교통표지판 익히기), 전동자동차 운전실습, 경찰헬기 및 비행기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031)284-5256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① 의장사열의 꽃 ‘파도타기’ 시범.
② 진해기지사령부 군악대의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
③ 국립경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전동차를 이용한 교통안전교육.

게시판



낙산사 체험여행 국가보훈처는 호국 · 보훈의 달을 맞아 ‘체험! 여행단’(사진)을 모집한다. 여행지는 낙산사 등이며 1박 2일 코스로 70명 모집. 접수기간은 6월 19일까지. (02)725-2005

혜원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6월 25일 저녁 7시 부산시 연산동 혜원정사에서 혜원음악회를 연다. 가수 유익종 등이 출연하며 염주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051)866-7771

주의력 결핍아동 진단 광진구 보건소 정신센터에서는 6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주의력 결핍 아동에 대한 진단과 치료’ 강좌를 개최한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로 질의응답과 무료 선별검사도 실시한다. (02)450-1565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오대산 월정사는 단기출가학교 제5기생을 모집한다. 불교신자로서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모집인원은 60명. 신청기간은 6월 27일까지. (033)332-6664

템플스테이 체험단 장성 백양사는 템플스테이 체험단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만 20~60세. 접수기간은 6월 24일까지. (061)392-7502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 인덕노인복지회관(관장 도광)에서는 일요일마다 저소득층에게 도시락 배달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85-8181

20면 상식 퍼즐 정답

우	각	호		곤		
담		우	국	충	정	
바			운		미	
라	면				소	풍
	도	갑	사			수
할		근		서		지
증	여	세		예	광	탄

전시

현대 춤사위에 녹아든 불교

서울무용제, 26일까지 문예진흥원 대극장



파사 무용단.



김용철 섶 무용단.

불교를 소재로 한 현대무용이 6월 26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한국무용협회(이사장 김복희)가 주최하는 제 26회 서울무용제에는 파사무용단, 김용철 섶 무용단 등이 참가해 불교와 무용을 접목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파사 무용단(단장 황미숙)은 불경에서 모티브를 얻어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6월 16 · 17일 오후 7시 30분 열리는 ‘목련(目蓮), 아홉번째 계단으로’ 공연에서는 이승의 업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목련존자의 지옥순례기가 몸짓으로 표현된다.

김용철 섶 무용단은 6월 19일(오후 5시) · 20일(오후 7시 30분) ‘업경대(業鏡臺)’를 주제로 불교와 샤머니즘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불교음악을 배경으로 탑돌이 등의 불교문화 등을 무대위에 구성지게 담아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충한 무용단은 6월 25 · 26일 오후 5시 ‘채화연풍- 승무의 삼절, 詩 書畵’에서 시와 글, 그리고 그림을 승무라는 춤사위로 풀어내는 무대를 선보인다. (02)744-806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

범패와작법무보존회



2004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

범패와작법무보존회(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가호)는 호국의 달을 맞아 6월 25일 오후 3시 한중문화관 4층에서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를 연다.

이날 무대에서는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의 천수바라춤 시연을 비롯해, 보존회 지도위원 혜민 · 일원 스님 등과 인천시립무용단이 함께 하는 사다라니 바라춤 · 법고춤 공연 등도 선보인다. 또한 보존회 전수생들이 갈고 닦은 공양무 나비춤 · 명발 바라춤 무대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정대(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대금장 기능보유자)씨의 ‘가신님을 위한 대금산조’ 무대도 준비돼 있다. (032)884-8904

이영화 어때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애를 코믹하게

간 큰 가족 감독: 조명남 출연: 신구, 김수미 상영시간: 100분 등급: 12세 이상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북한 현지 촬영을 성공리에 마친 지상 최대의 유쾌한 통일 자작극 영화 ‘간 큰 가족’.

아버지 김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만 50억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희귀한 상속 조항에 따라 통일부로 전액 기부돼 버릴 수도 있는 유산을 사수하기 위해 가족들은 ‘통일이 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제작한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심해지던 아버지의 병세가 ‘통일이 되었다’는 거짓말에 기적처럼 호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양 교예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는 가짜 기사를 본 아버지는 다짜고짜 ‘서커스를 보겠다’고 우기기 시작한다. 결국 명석은 박상무와 친구 춘자까지 통일연극에 참여시키며 직접 평양교예단의 서커스 공연을 실연해 낸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아 가는데….



‘간 큰 가족’은 유산상속과 남북통일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화면에 녹여낸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맥거핀(극적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단의 인물이나 사건)일 뿐 그것이 주된 사건은 아니다. 50억을 상속받기 위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의 과정과 사건 속에서 끈끈한 가족사랑과 효가 무엇인가를 코믹하게 담아낸 영화가 바로 ‘간 큰 가족’이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3일 06:00 불교강좌
14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15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6일 07:05 아침저널
17일 09:05 행복한 미소
18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19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3일 08:00 명상음악산책
14일 15:10 명상육아
15일 14:25 불교TV 메디컬
16일 15:10 휴먼다큐
17일 16:40 향토음식기행
18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19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6월 17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16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와 재질을 사용한 패션 손목시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줄과 동자승 캐릭터가 새겨져 있다. 가격: 19,800원 상품문의: (02)2004-8218~9

불교 와의 인연 (하)

이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그림 · 문병성

남편과 아들의 시험합격…온 가족 가피 입어

언니의 죽음은 나태했던 신심 다지게 한 계기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함과 선근공덕에 '감사'

시험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큰애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해서 합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첫째 시간에 수학문제를 푸는데 점수 배당이 큰 주관식 2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심하다가 1교시 끝나기 10분 전쯤 갑자기 풀이 과정이 환히 머리에 떠올랐다고 했다. 시간이 부족할세라 염려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풀이 과정을 일사천리로 쓰고 답을 표기하니 끝나는 벨이 울렸다고 했다.

큰애의 얘기를 듣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력이 시험장에 있는 큰애에게 전해졌음을 느꼈다. 나는 집에서 기도할 때의 상태를 큰애에게 얘기해 주니 큰애도 좋아하면서 더욱 합격을 확신했다.

남편 또한 그 해 700명이 응시하여 7명이 합격한 관세사 시험에 100:1의 어려운 관문을 최고령으로 통과하였다. 사실 난 남편의 시험 합격 기도는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남편은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과 욕심이 많으면 하나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해서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력은 우리 가족의 소망을 다 이루어주셨다.

아들의 합격 발표를 듣던 날 오후, 절에 가서 감사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 원불과 호법발원금을 신청했다. 두 아이에게 일요법회에 가서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하니 순순히 따라왔다. 그 후 원하는 대학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공부하던 큰애는 대학불교학생회에도 스스로 동참하였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세상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절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저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까지 데려와서 도와주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사찰 청년부법회에도 참석하는 신심 있는 불자가 되었다. 지금은 군대에 있으면서 일요일마다 군법당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군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12월 교육이 끝난 뒤에도 일요법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갔다. 다음 해 여름에 남편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 나도 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강의 요청도 많아지고 점점 더 바쁘게 되었다. 그러자 교만심과 게으름이 발을 뻗쳐 일요법회에 빠지는 횟수가 잦아지고 잠들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를 합리화했다. 불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긴 대로 내 잣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초발심으로 무장되었던 나의 불교입문기는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력 속에서 은혜만 받고 1년 정도 만에 끝났다.

1997년 늦가을, 49년의 인생을 성녀처럼 정말 남들에게 베풀기만 하며 삶을 살았던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 원래 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와 봉사의 생활을 무리하게 했기에 병을 얻어 일찍 떠났다.

죽기 전에 언니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이니 49재니 하는 의식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해달라고 했다. 인과가 명확한 연기법으로 볼 때 언니가 현세에서 지은 공덕으로 좋은 몸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니 언니의 죽음에 대하여 그토록 애통해 했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장례를 치른 그 무렵 우리나라는 I.M.F 경제체제에 들어가고 다음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인이 거리로 내몰렸다. 남편은 내가 불교를 만났던 해에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좋은 인연으로 준비해 두었던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직장을 퇴직했다.

그 동안 절에 가는 것이 뜸했던 나는 언니의 죽음과 남편의 제2의 인생 시작을 위하여 다시 절을 찾았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불교 서적을 사서 읽고 차 속에서도 늘 불교 방송을 켜놓고 틀나는 대로 신심을 키웠다. 남편도 나하고 같이 일요법회에 나가고 나보다 더 많이 불교 서적을 구해다 읽곤 했다.

99년은 우리 부부가 함께 신심을 키우는 특별한 해였다. 3월에 우리 부부는 내가 처음 불교교리강좌로 인연 맺은 원찰 스님에게서 수계를 받고 '묘관'과 '원명행'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그 해 여름휴가 때 남편과 나는 송광사에서 실시하는 여름 수련회에 동참하였다. 나는 정진반, 남편은 인욕반에서 4박 5일의 짧은 출가로 큰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태어나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본 가장 긴 시간으로 우리가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짓고 시간을 낭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묵언을 하니 나 자신 속에 들어가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련회에 참석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짧은 시간이나마 체험해 보면서 나의 나태한 신행 생활에 스스로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행 생활에 회의가 생기고 게으름이 나면 사찰에서 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돌아보라고 모든 재가 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리고 그 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인도 성지 순례도 하였다.

10년의 불법인연동안 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동네에 포교당을 열어주셨던 도피안사 송암 스님과, '어떤 사람이 있어 논두렁 밑에 앉아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 곳이 법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정토회 법륜 스님, 해박한 경전강의로 부처님의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발심케 해주신 금강선원 혜거 스님, 그리고 서울불교전문강원에서 지금 <서장>을 강의하시는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도 <불교를 알기쉽게>라는 책을 통하여 6년 전에 이미 만났던 스승이다.

나는 40대 초에 불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내 인생의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수행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인연이 찾아온 것은 친정 어머니의 '관세음보살' 염불공덕과 그나마 전생에 닦아놓은 선근공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지금 닦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깨치리!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7. 4 월 · 화반(주 · 야간 :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간(肝)이 염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氣덩어리 복덩어리 항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이 뭣고?



□ 다구, 어떻게 써야 할까?

"다관이나 찻잔은 알겠는데, 저 대나무 숟가락은 어디에 쓰는 거지?"

처음 차를 접한 사람들은 차 마시는 복잡한 형식보다, 자신 앞에 줄지어 늘어 서 있는 수많은 다구들에 먼저 놀라게 된다. 차 한 잔 마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다구들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 기본 찻상 차림을 통해 각 다구의 쓰임과 고르는 법을 알아본다.





① **찻잔(茶盞)**: 찻주전자에서 우러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잔으로 도자기로 만든 것이 가장 흔하며 은이나 동, 나무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찻잔은 입구쪽이 바닥보다 약간 넓어야 마시기에 편하며 흰색 찻잔은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에 좋다.

② **다탁(茶托, 찻잔받침)**: 뜨거운 찻잔을 손으로 들기 어려우므로 잔을 받치는 데 사용한다. 주석과 구리, 도자기, 돌,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진다. 찻잔과 동일한 재질의 것이 보기에는 좋지만 도자기나 돌의 경우 잔과 받침이 부딪치는 소리가 많이 난다. 도자기 찻잔에는 나무 다탁을 많이 사용한다.

③ **차호(茶壺, 차통)**: 마른 찻잎을 담아 두는 통. 차는 습기와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므로 밀봉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한다.

④ **다관 뚜껑받침**: 다관에 물을 부을 때 뚜껑을 얹어 두는 도구.

⑤ **다관(茶罐, 차우리개)**: 잎차에 끓인 물을 넣어 차를 우려내는 도구. 다관은 손에 쥐어보아 다루기에 편해야 하며, 탕수(湯水)에 비해 다관이 크면 물이 빨리 식고 향기가 쉽게 달아난다. 또한 몸통과 뚜껑이 제대로 맞아야 하고 물대(주둥이)에서 찻물을 따랐을 때 찻물이 다관의 몸통으로 흘러내리지 않는지 살펴본 후 선택한다.

⑥ **숙우(熟盂, 물식힘그릇)**: 귀때사발, 귀탕기, 유발(乳鉢) 등으로 부른다. 끓인 물을 식히거나 우린 차를 담아 잔에 따를 때 사용한다.

⑦ **차긁게**: 다관에서 다 우려낸 찻잎을 꺼내는 도구. 찻잎은 퇴수구에 버린다.

⑧ **차시 · 차칙(茶匙 · 茶則, 차숟가락)**: 차를 뜨는 숟가락. 대나무를 반쪽으로 쪼갠 다음 한쪽을 얇게 깎아 차를 떠내기 좋도록 만든 것이다. 금속으로 만든 차시는 녹슬기 쉽고 금속 냄새가 나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나무는 차의 향을 해치지 않고 습기에도 강해 많이 사용된다.

⑨ **다건(茶巾, 차수건)**: 찻잔이나 다관 등의 물기를 닦는 수건. 외올베(거즈)나 고운 삼베로 만든 것을 주로 사용한다.

⑩ **탕관(湯罐)과 차솥**: 찻물을 끓이는 화로와 주전자. 최근에는 전기주전자를 주로 사용한다.

⑪ **퇴수기(退水器, 물버림사발)**: 찻잔을 데운 물이나 찻잔 씻은 물, 차 찌꺼기 등을 버리는 그릇으로 개수그릇이라고도 한다. 입구가 넓은 것이 좋다.

⑫ **다포(茶布)**: 다탁에 까는 천으로 삼베나 무명 등으로 만든다. 다탁과 다구가 부딪쳐 소리 나는 것을 막아주고 물기를 흡수한다. 여름에는 주로 삼베 종류를, 봄 · 가을이나 겨울에는 무명, 옥양목 등을 사용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선시대 ⑦



선승 차 생활 활성…문화적 기록 노력
우리문화 일본 다도 기틀 형성에 기여

왕가에서는 거의 모든 의례에 차가 빠지지 않았으니 세자궁의 회강 다례도 그 한 예이다. 다기는 도자 외에 고급 은제 다기를 사용했다. 이런 풍조는 관원과 선비들에게도 불어와, 유생들이 모여 강론을 한 다음에 차를 마시자고 했을 정도다. 사사(寺社) 혁파운동은 계속되었으나 이 때에도 선승들의 차 생활은 이어졌다.

을묘사화가 일어나 많은 인적자원이 손실됐고 개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문적(文籍)이나 문화적 기록들을 정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 토지 이용 현황과 거기서 생산되는 산물의 종류나 생산량을파악하려 애썼다.

편을 남겼다. '달그림자 밝으며 시냇물 길어 차 달이는 연기 하늘 가르네' 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⑤ 중궁전의 다완과 세자궁의 밥주발을 은으로 만들도록 상의원(常衣院)에 일렀다.

⑥ 전춘년: 찻일을 정치하게 알아서 〈다보(茶譜)〉를 찬술했다.

⑦ 육수성(1509~1605): 〈다료기(茶寮記)〉를 찬술하여 인품(人品), 품천(品泉), 팽점(烹點) 등 일곱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지적했다.

⑧ 서헌충: 〈수품(水品)〉 두 권에 37군데 물에 관한 품평과 차 끓이는 일을 적었다.

⑨ 이시진(1518~1593): 〈본초강목〉을 짓고 차에 관한 것을 썼다.

일본과의 교류는 잦았다. 이때 일본 다도의 큰 인물인 천리휴가 태어났으니, 그는 현재 일본 다도의 기틀을 확립한 천가(千家)의 시원이 된다.

① 보우대사(1509~1565):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의 추천으로 봉은사 주지가 됐으며 많은 다시를 남겼다.

② 회강다례: 한 달에 두세 차례 왕세자가 스승과 빈객들을 모아 강론하고 난 후 행하던 다례.

③ 유생들의 강론이 끝나면 차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한 주장.

④ 서산대사(1520~?): 법호는 청허(淸虛), 법명은 휴정(休靜)이다. 임란 때 승군을 이끌었고 다시 여러

⑩ 서위(1521~1593): 시문화서에 모두 능해 많은 저술을 남겼으니 〈다경〉 한 권도 있다.

⑪ 왕세정(1526~1590): 차를 즐겨 차에 관한 사(詞)를 짓기도 했다.

⑫ 예아미와 상아미가 동산어물(東山御物)의 정리 및 서원(書院)의 장식과 점다법 등을 만들어 '동산류(東山流)'가 형성되었다.

⑬ 천리휴(1522~1591):무야소구(武野紹鷗)에게 15년 동안 사사했다. 58살에 고려 직전신장(織田信長)의 다두(茶頭)가 되고 후에 풍신수길의 다두가 된다. 그의 기본은 초암차였으며 고려 다완을 아주 좋아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506 중종반정(中宗反正) 1509 보우대사(普雨大師) 출생 ① 일본 사신 다례(동명관에서) @회강다례(會講茶禮) ② 1511 유생들의 음다(飮茶) 주장 ③ 1513 감찰방에서 다시(茶時) 1516 사찰 노비를 속공(屬公)시킴 1518 〈속동문선〉(신용개) 1520 서산대사(西山大師) 출생 ④ 1521 일본사신 내조(22, 23년 등 매년) 1524 전라도 양전(量田)을 마침 1525 중궁전의 다완을 만듦 ⑤ 봉선전 다례	명대	@전춘년(錢椿年)의 활동 ⑥ 1509 육수성(陸樹聲)의 출생 ⑦ @ 서헌충의 활동 ⑧ 1518 이시진(李時珍)의 출생 ⑨ 1521 서위(徐渭)의 출생 ⑩ 1526 왕세정(王世貞)의 출생 ⑪	남북조	@ 예아미(藝阿彌) 상아미(相阿彌)의 사원 다례법 제정 ⑫ 시옥종장(柴屋宗長)의 차심기 노래 1522 천리휴(千利休, 센리큐)의 출생 ⑬

한 · 일 차도구 명품전


천한봉 명장의 백자 5인 다기세트.

한일 다도구가 한자리에서 모인다. 천한봉 명장(名匠)과 도예가 황동구씨의 작품을 비롯, 일본 유명 차도구를 볼 수 있는 '한 · 일 차도구 명품전'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예송갤러리(www.yesongart.com)에서 펼쳐진다.

'봉산도예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무형문화재 히라도가쇼우(平戶雅松)의 잎차 다기세트와 일본 차도구를 비롯해 천한봉 명장의 백자 5인다기세트, 두두옥다완, 황동구씨의 평이도다완과 소이도다완 등이 선보인다. (053)426-1515

일시	시간	행사내용	장소
6/15(수)	10:30~11:00	길놀이 공연	로비, 행사장
	11:00~12:00	개막식	로비
	12:00~13:00	구례 석정차 경매	중앙무대
	13:00~15:00	들차회 및 다식만들기 체험	야외잔디밭
	13:30~14:00	원광대와 함께하는 행다시연	야외잔디밭
	12:00~18:00	제다시연	야외잔디밭
	14:00~17:00	티월드 명전	중앙무대
	17:30~18:00	우리옷, 한복패션쇼	중앙무대
	18:00~18:30	사물놀이 공연	중앙무대
6/16(목)	12:00~15:00	대만 茶 시연회	
	16:00~17:00	봉운다례원 전통 선비다법	중앙무대
	17:00~18:30	차시 낭송회	중앙무대
6/17(금)	13:00~14:00	티아카데미-중국다예시범	중앙무대
	14:00~15:00	녹차화장품 만들기 체험	중앙무대 앞
	15:00~16:00	봄맞이 점다회	중앙무대
	16:00~17:00	동국 18현 숭모차례	중앙무대
6/18(토)	12:00~13:00	녹차화장품 만들기 체험	중앙무대
	13:00~14:00	초의차문화연구원-일지암학생다례	중앙무대
	13:00~17:00	제다 시연	야외 잔디밭
	14:00~15:00	중국 다예 연구중심	중앙무대
	16:00~18:00	설가차인회-생일차	중앙무대
6/19(일)	13:00~14:30	소안다도원-음양오행다도	중앙무대
	13:00~17:00	제다 시연	야외 잔디밭
	14:30~17:00	전주한옥마을-전주시립악단	중앙무대

미리 보는 '2005 티월드 페스티벌'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6월15~19일)

올해로 3회를 맞는 '2005 티월드 페스티벌'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과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차 관련 업체와 중국과 일본, 대만,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11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참가 업체들의 부스전시 외에도 '대만 보이차 사진전' '보성차시험장 차제품 전시'를 비롯해 한국차생산자연합회의 '한국차품평회' 향원당의 '티 테이블전' 녹차화장품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된다.

한편 한국차학회(회장 신미경)는 17일 '차 품질 평가방법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차 품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차의 품평기준을 마련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월드 홈페이지(www.teanews.com)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02)6000-8481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간

· 해설집



· 독송집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 신국판 / 200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 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총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현대불교 제530호
서기 2005년 6월 15일
(음력 5월 9일) 수요일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더우시죠?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이 세계가 빌딩이라면, 우리가 그 빌딩 안에 있는데 빌딩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옴치고 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들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만약에 어느 빌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나서 나갈 구멍만 찾는 상황이라면, 남을 건지기는커녕 나부터 건져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신도1: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신도2: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신도3: 몸은 죽고 마음은 날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스님: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딩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것도 허다하게 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살겠다는 생각도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하는 거요. 빠져나갈 구멍만 찾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살아야겠다 하는 건 이차적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중세계가 불타는 지옥과 같느니라. 상세계와 중세계, 하세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자리에 있느니라. 과거가 흘러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몇 바퀴를 돌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산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은 몇 바퀴를 돌아도 어찌해서 저 산은 그대로 있는가?' 하는 거요. 우리가 좀더 계산을 잘해 보세요. 자기 양심으로써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다면 '내 팔자' 소리도 안 나올 거고 '내 운명' 소리도 안 나올 겁니다.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가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또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닥 줄을 잡고 얼음판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모르는 아이들은 얼음이 녹는지 깨지는지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걷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사시다가 화를 내면 얼음판을 걸어오면서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얼음이 얼른 녹으라고…, 그래야 빠져 죽기 쉬우니까.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고, 그냥 극치에 이르러 마음이 팔팔 뛰면 얼음이 빨리 꺼지라고 막 뛰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세요. 나는 항상, 있는 얘기 하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앞에 도달한 얘기를 하죠. 앞에 도달한 얘기도 미래면서 바로 과거고, 그렇게 초월해서 돌아가는 현재의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화가 나더라도 그 자리에다 놔라.' 이러죠? 그러면 모닥불을 놓지 않고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펄펄 뛰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가는 데까지 가요. 그러나 모닥불을 놓고 뛰면 얼음은 금이 가고 빠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빠뜨리게 되죠.

"스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양반들도 계실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50%는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50%는 보이는 데서 돌아갑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밤에는 자면서 돌아가고 낮에는 깨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밤에 도는 거든 낮에 도는 거든,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있는 그 가운데에 놔라 이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그 가운데 놓는다면, 내가 망한 일도 없고 내가 흥하게 한 일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중심을 잡고 그래도 사람답게 걸었노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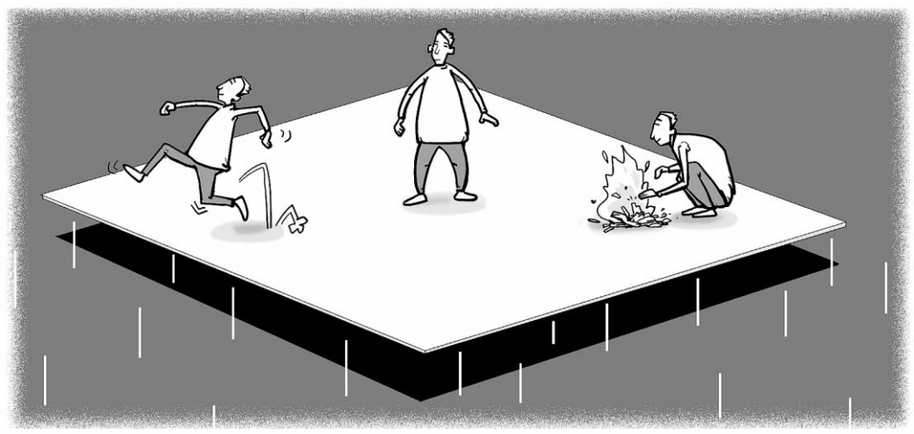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전에 법사 스님께서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승(大乘)이다 소승(小乘)이다 하기 이전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진화가 돼서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수억겁을 돌아 왔다구요. 그래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봐도 내 아픔같이, 내 괴로움같이, 내 외로움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항상 부드러운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노인들을 따로 본다면 항상 말도 거칠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도 그렇지만 현재 내 앞에 당면해 있는 내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서 잘못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습니다." 해 놓고 그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속 안 썩여드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내 마음 같고 내 괴로움 같고, 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같이 나도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부모가 자식 속을 썩일 리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리가 없어요. '효도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내 생명 같고 내 몸 같고, 내 아픔 같고 내 괴로움, 내 외로움 같으면 아주 그거는 효도라는 이름 아니더라도 그대로 정말 세세생생의 효도인 동시에 일체제불의 그 마음과도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까도 살얼음판 같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뜻을 모른다면, 철모른다면 그냥 막 뛸 겁니다, 얼음이 깨지거나 말거나. 깨지는 걸 모르거든요. 금이 가든 깨지든 빠지든, 아랑곳없이 뜁니다. 그러고 부아가 나면 아무거나 막 집어서 던지고, 또 때로는 술 먹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런다면 아주 집에다 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얼음판이 빨리 녹고 빨리 깨지고 빨리 빠지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족이 다 빠지고, 자기도 빠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려 달라고만 하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람의 차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과 자기 소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게꾼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부모의 탓을 하거나 형제의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애당초에 소임을 가지고 나올 때에 넝마로 차원이 돼 있으니까 넝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자기가 금으로 차원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면 금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으로 사는 사람 자만하지 말고, 넝마로 사는 사람 너무 자기를 하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타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금과 넝마를 다 바꿀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다 놓고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거기다 놓는 데서 그것이 무한정으로 없어집니다. 차원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시쳇말로 한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스스로 짊어진, 누적돼서 입력된 거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서 넣는 그 입력이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대로 자꾸 나오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찰나찰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아닙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는 살림살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한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대로 중생의 모습이니라.' 했으니 바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사량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느니, 이렇게 돌아가느니 저렇게 돌아가느니 하면서 사단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이 없이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앞뒤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문득 옆의 사람이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거두는 것이요, 또 저 먼 산을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아, 안 되겠구나. 비가 오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게끔 한다면 이 또한 보살행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해서 누가 꺼뜨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네들은 좋아할 거다 이겁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리의 법칙을 우리들은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등동물로서 첨단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라는데도 못 떼어 놓습니까?

참, 여러분이 오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다 맞습니다. 소승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없이 다 맞는데, 좀 높이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지 않는 게 되죠. 만약에 저 윗사람들이 내 목을 잘라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편의 마음을 조절하질 못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윗사람들의 마음과 둘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통신이 돼야, 즉 말하자면 줄을 그냥 탁 대는 대로 전력이 흘러서 탁 불어서, 불이 번쩍 들어오게 돼 있죠. 평소에 전화 코드를 끼워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려니, 전화 통신이 돼야죠!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금방이라도 닥쳐오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전화에다 대고선 통신을 해야 통신이 돼서 그걸 전부 다 알아듣고 소임을 제대로 하죠.

만날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떡합니까? 나도요, 여러분과 같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도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의 근본을 붙들고 생명을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뛰시면서 부지런히 거기다 놓고 가시면, 그대로 바퀴의 굴림이 저절로 정신세계의 굴림과 물질세계의 굴림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 거짓이라곤 생각마세요. 사실이니까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질문자1: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스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얼음판 위지만, 그냥 그 위에 눈썰매 하나 더 얹은 셈 치고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덜 여문 이런 상태에서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몸이 이렇게 문득 나오게 된 것은, 기회 있을 때에 큰스님에게 눈도장을 탁 받아 놓고, 더

☞30면으로 계속

미운 것도 잠시요 이쁜 것도 잠시니 이쁘다 탈하지 말고 밉다 탈 잡지 말라!

잠시잠시 바람이 흘러가듯 하는 것이 인생살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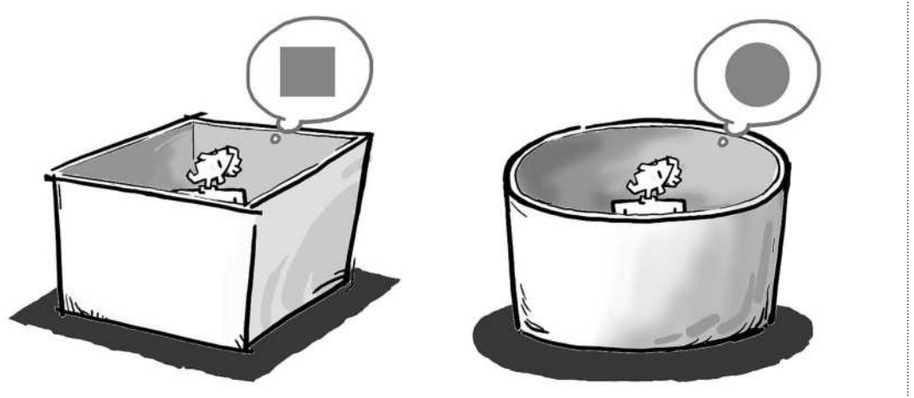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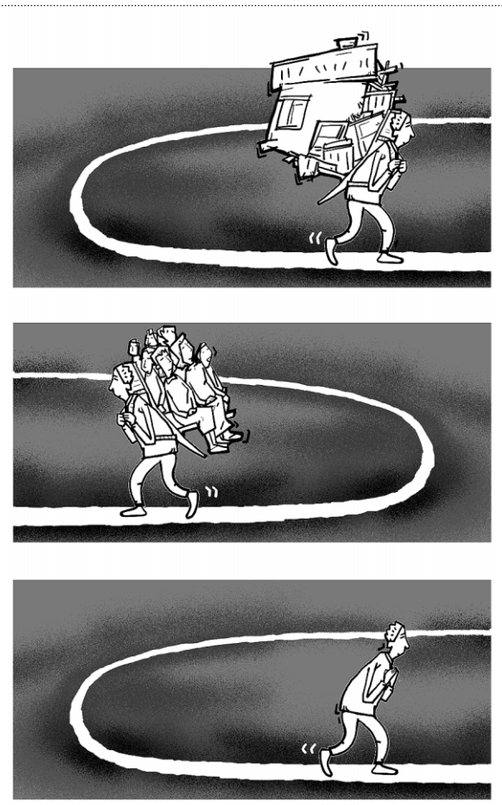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불어 우주 법계에도 그렇게 눈도장이 찍혀서 큰 스님과의 이 인연이 세세생생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울러 그 동안 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점 한 세 가지를 질문 올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합창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창단을 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저로서 얻은 이득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저 혼자 답아 뒀다가는 이것도 욕심이 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얻은 이득은, 수행의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창을 일 주일에 한 번, 일곱 시에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세속 생활의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생심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원력, 그 두 마음의 싸움에서 갈등을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갈등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냥 당연히 나오게 되고, 또 못 가게 될 이유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들이 맞아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잘되고 그냥 그대로 좋은, 그런 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득 좋은 생각이 나면 그냥 그대로 실천해 보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것이 첫번째 이득이고, 두번째 이득은 스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실지로 체험을 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가볍게 숨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라도 아랫배 깊숙이 집어넣어서 한 번 돌려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성대를 그냥 이용만 해서 그렇게 내는 도리를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나투는 생각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내뱉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리에, 본래자리에 놓고 돌리는 그 도리, 그것이 바로 노래의 기본 도리와 똑같다는 것을 안 것이 첫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음조가 아니고 높은 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 다음에는 높은 음이다.'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감으로 해서 몸이 굳어지고 성대가 굳어지니, 숨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오히려 제대로 안되는 그런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높은 음이더라도 낮은 음이나 그냥 일반 음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경계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번째 체험은, 우리들이 합창이다 보니까 서로간에 소리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옆의 사람의 소리와 내 소리가 어울려야 내 혼자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고 마음 놓고 질렀다가는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의 중요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스님의 법문에 대해 실행을 한 이득이고, 또 다른 이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합창을 지휘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나 또 거기다 반주 선생님까지 양쪽을 이렇게 앉혀 놓고 공부를 하려면 세속 생활에서는 실지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을 그냥 저녁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공짜로 하게 되니 이것이 또 큰 이득이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에 제일 가까운 데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한자리 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이득이니, 이 많은 이득을 저 혼자 말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는 벌받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나름대로 느끼고 겪은 이득이니까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이득은 스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아주 일등으로 해 나가십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말입니다. 문이 없는 데로 나고 들어야 진짜 공부다 했더니, 문 없는 데를 찾으려고 하니 그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당신께서는 벽도 없으니까 봇장도 없고 문도 없고, 이렇게 문을 찾지 않는 그 도리를 슬기롭게 평가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합창단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을 환영합니다.

▲스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질문 끝 무렵에서 합창을 할 때에 모두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도무지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시장 바닥 같아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알았느니라. 그러면 어서 가거라. 옷 벗어 놓고, 이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놓고, 땅도 딛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살 수 있으면 너 혼자 가서 살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놔라, 땅도 딛지 마라, 나무도 베지 마라, 먹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죄 했으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지금 저 양반이 말하듯 '아, 이거는 바로 같이 음파를 타고 돌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겠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 만물만생이 다 같이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또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없이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서 내일 또 태어나도 '나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지 '과거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옷만 자꾸자꾸 갈아입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뭐 이러다가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회향을 잘해야 되느니라." 이러셨거든요. "미운 것도 잠시요, 이쁜 것도 잠시니, 이쁘다 탐하지 말고 밉다 탑 잡지 말라. 잠시잠시 바람이 흘러가듯 하는 것이 인생살이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탑이 많거든요. 밉다고 탑을 잡고, 이쁘다고 좋아하고, 이런 문제들이 뭐 허다하거든요. 그러나 또 내가 막상 생각을 해도요, 이런 말을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간판이 좋아야 회사에서도 빨리 뽑는답디다. 그러니 어떻게 간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간판을 좋게 타고 나는 것도 바로 자기가 한 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도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또 질문할 것 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위 법문은 1996년 6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00, 팩스(02)737-0697

공 고

사)해동 05-8호

사찰명	성 명	법 명	직 위	비 고
송암사	황성수	송 명	부 원 장	충북 제천시 남천동 16
대흥사	민형기	효 산	봉사단장	평택시 진위면 건산리 27-6 경원APT 라동107호
명주사	정명주	교 송	청남남종무원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
성불사	하성후	도 산	주 지	경남 밀양시 가곡동 693

상기인은 2005년 5월 28일자로 종헌종법(상벌법) 제3장 3, 4항에 의거 제적 이에 공고함.

불기 2549 년 5월 28일
서기 2005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 산
사정원장 경 신
전화 :031)262-1577,263-1353







얘들아, 수행 어렵지 않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절을 찾아도 엄마가 법당에서 기도하는 사이 아이들은 지루하게 기다리는 게 예사다. 아이들과 함께 손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의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 제39차 연수회에서 마련됐다. 연수회에서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등이 강의해 호응을 얻은 선체조와 수행법을 소개한다. 자세한 동작은 대불어 사이트(www.dongja.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앉는 자세는 곧게 숨 쉬기는 천천히 '내 속의 나'를 찾아봐

각묵 스님이 안내하는 초기불교수행법 3가지

호흡통해 마음 집중

1. 들숨 날숨에 마음 챙김

숨이 닿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곳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

①숨이 콧구멍에 닿은 것을 느낀다. 숨을 들이 쉴 때 '하나' 내쉴 때 '둘'하고 수를 헤아린다. 이것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한다.

②코 안에서 호흡이 닿는 곳에 마음이 집중되면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다시 들이쉬면서 '셋' 내쉬면서 '넷'하여 열까지 헤아린다.

③호흡이 닿은 곳에 마음이 잘 안주하면 수를 헤아리지 않고 호흡이 닿는 곳을 주시, 집중하기를 계속한다.

둥근공 이용 마음 챙겨

2. 까시나 수행법

까시나란 '전체'를 뜻하는 빠알리어로 삼매수행을 위해서 만든 보통 지름 20㎝ 정도의 둥근 공 모양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청 황 적 백 네 가지 까시나를 직접 만들게 하고 이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좋다.

①까시나를 1m 앞에 놓고 그것을 편안히 주시한다. 대략 1분 정도 눈을 뜨고 까시나를 집중해서 바라본 뒤 눈을 감고 그 잔상을 눈앞에 떠올린다. 잔상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때 까시나의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까시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마음속에 잔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②마침내 감은 눈앞에 둥근 까시나의 표상이 떠오르는데 이러한 표상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

내속에 행복 채우기

3. 자비관

불교 수행 코스에서 마지막에 실천하는 수행법. 선근 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수행.

①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상태를 가진다. 내 속에 행복을 가득 채워 넘쳐나게 한다.

②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을 눈앞에 떠올린다. 대상은 살아있어야 하며 동성이어야 한다. 대상을 선명하게 떠올려 자신의 행복과 자비를 강하게 투사한다.

③자신 스승 가족 등 대상을 확대해 자비의 염을 방사한 다음, 이제는 자신의 가족부터 한사람씩 정다운 사람들을 눈앞에 그려가면서 자비의 광선을 가득히 비추어 그들을 감싼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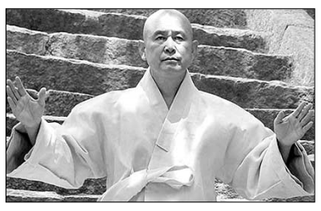
정여 스님에게 배우는 어린이 명상 선 행공 체조

행공 끝난 후 참선은 10분 넘지 않게

■시작하기 전에 결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하고 호흡을 고른다. 천천히 호흡하며 모든 동작을 호흡에 맞춰 천천히 해야 한다. 동작은 4~5회 반복 한다.

1. 양팔 벌리고 모으기 행공

양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히 앉아서 합장한다. 들숨에 서서히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날숨에 서서히 양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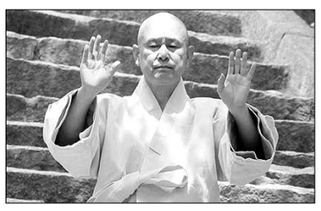
2.양손 끝 모으고 상하 순환 행공

양 손끝을 모아서 하단전 부위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한 뒤 들숨에 손바닥과 팔꿈치를 가볍게 들어 턱 밑까지 서서히 끌어 올린다. 양손바닥을 땅을 향하게 해 하단전까지 서서히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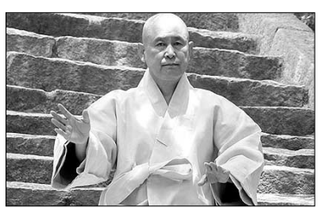
3.정(淨) 탁(濁) 호흡 행공

들숨에 양 손바닥을 양 어깨까지 들어올려서 손바닥이 전방을 보게 한 후 날숨에 양 손바닥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냈다 들숨에 다시 몸쪽으로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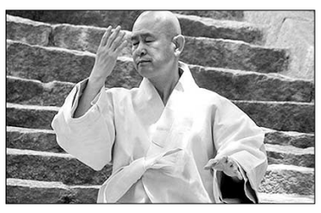
4.그물 당기기 행공

양 손바닥이 마치 그물을 잡고 당기는 동작으로 허리근방에 기를 소통시키는 동작으로 들숨에 왼쪽으로 당기고 날숨에 오른쪽으로 당기기를 4~5회 반복.



5.양손 둥글게 교차 행공

오른손 왼손이 우주를 상징하면서 둥글게 좌우로 교차해서 돌린다. 들숨에 오른손을 돌리고 호흡을 날숨에 왼손을 돌린다. 몸속에 흐르는 기운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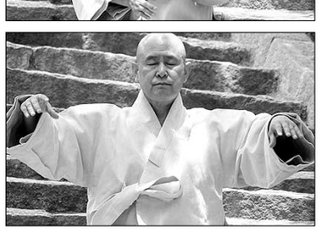
6.합장교차 행공

합장해서 천천히 들이 쉬며 오른손을 턱으로 올리고 날숨에 다시 왼손은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하고 하단전을 향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양손을 교차하면서 호흡을 내쉬는 동작으로 마음을 모아준다.



7.학(鶴)이 상승(上乘)하는 행공

학이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날아오르는 동작으로 들숨에 양 팔을 위로 가볍게 치켜 올리고 날숨에 양 팔을 서서히 단전 쪽으로 내린다.



■행공이 끝난 다음에 편안히 앉은 그 자세에서 참선을 시작한다. 어린이들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9)

바른 습관이 건강한 심신 유지

병의 장기적인 원인(遠因)중 마지막은 치(痴) 즉 미망이다. 미망은 안개와 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게으름과 나태심을 유발한다. 게으름으로 인해 매사 막다른 궁지에 이르러서야 허둥대게 되고 운동이나 힘든 신체활동을 많이 않으려 하고 때로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힘 안들이고 손쉽고 빠르게만 해치우려 한다. 그런 행동 양식으로부터 비만과 우둔함이 초래되고 차례로 체액을 혼란시켜 각종 왜껜 장애들을 유발하게 된다.

병을 초래하는 보다 단기적인 가까운 원인 즉 근인(近因)으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불건전한 생활양식, 기후 계절적 요인, 그리고 정신 또는 혼령이 있다. 티베트의학에서는 부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몸과 마음의 여러 병들을 유발할 수 있음을 오래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서로 상이한 사회들을 비교해 보면 사회마다

생활양식 · 기후 등 따라 다른 이환(罹患) 관찰
한국, 급성장에 각종 서구형 질병 두루 존재

각기 조금씩 다른 이환(罹患)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티베트사람들은 버터 소금 우유 그리고 차를 통에 넣고 휘저어 만든 버터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식습관에 배어 있다. 그리고 혹한과 무더위가 교차하는 북인도의 극단적인 기후조건 속에서 망명정부를 건설하랴 오랫동안 신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부지해 왔다. 그 결과 망명 1세대 노인들에게는 고혈압 관절염 안과질환 청각장애 그리고 척추질환이 가장 흔한 병이 되었다.

그에 반해 서구인들은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에 함유된 당과 지방, 전분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 또한 차 커피 알코올도 너무 많이 마시고 흡연율도 높다. 생활도 늘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고 긴장을 해소하거나 여유를 즐길 겨를이 없다. 도시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나가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지내는 탓에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

출퇴근도 대부분 차로 하기 때문에 걸을 기회가 도무지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심장질환 암 불면증 우울증 치과 질환 소화기 질환 피부 및 비만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완성되었고 경제 사회적으로 고도 선진산업사회에 진입했으며 문화적으로 과소비 다원문화 사회로 발전하였다. 전통과 현대가 서로 충돌하며 습합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격변기의 과도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짜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문화, 60~70년대 개발독재 하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같이 일벌레로 살아온 근대화 세대, 그리고 선대가 흘린 피땀의 과(果)로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구가하게 된 8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각기 상이한 성장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식습관과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다양성 때문에 짠 음식문화에서 비롯된 고혈압과 당뇨병, 개발 시대 과도 육체노동에 기원한 관절염과 척추장애, 체식에서 고단백 육식 위주로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심장질환 암 소화기장애 및 비만,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 불면증 우울증 같은 각종 서구형 성인병과 신경병증들이 우리 사회에 두루 혼재되어 발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각 문화권마다의 고유한 식습관과 생활양식을 서로 비교해 보거나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다원 사회의 역학적(疫學的)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의 세 기본에너지인 룽 때빠 그리고 왜껜의 소유형들과 위치 그리고 그 기능들을 설펴본 바 있다. 다음 회에는 그 세 기본에너지가 어떻게 식습관과 생활양식의 영향을 받아 균형을 잃고 여러 장애들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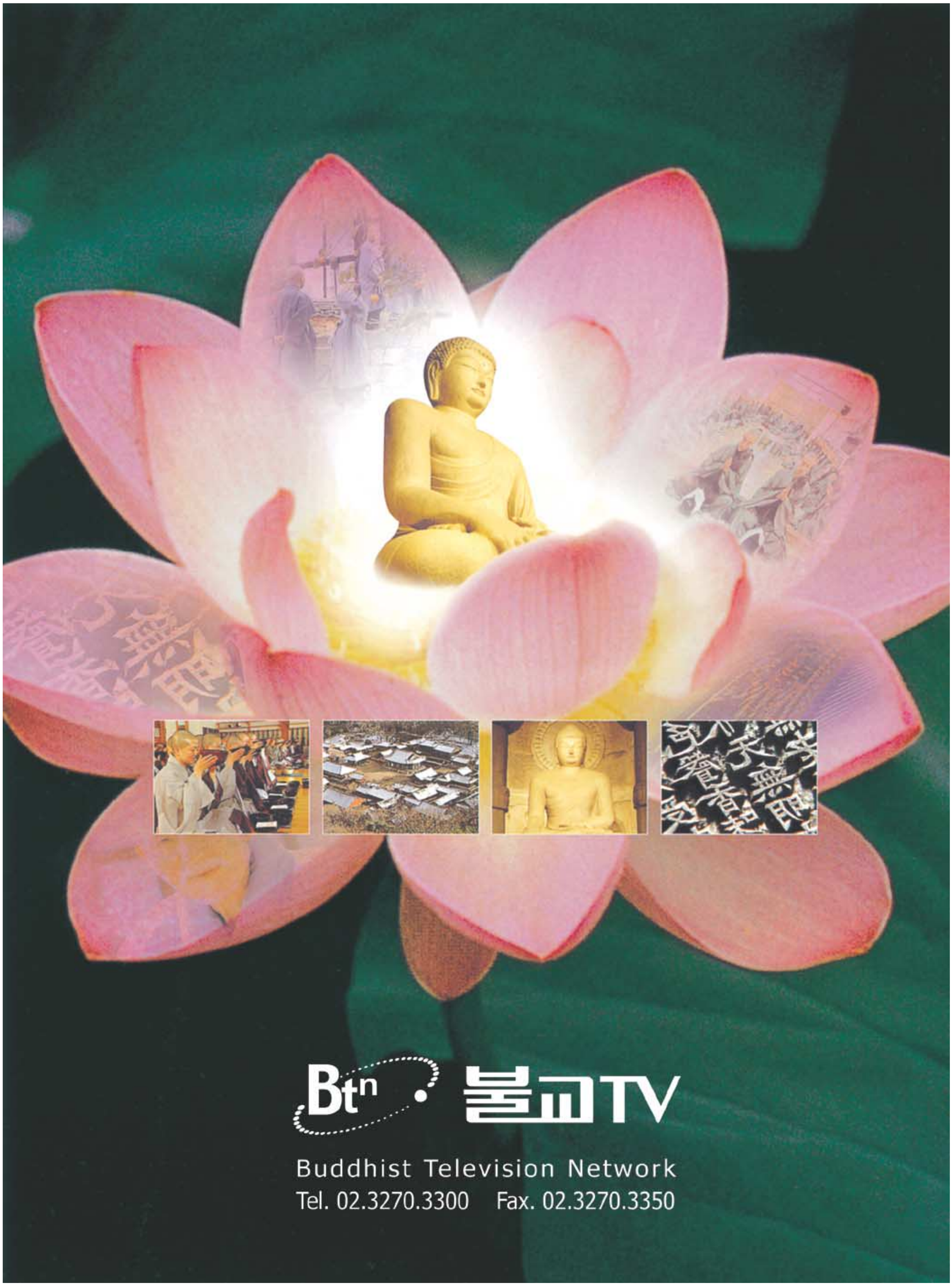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영산범음집 한문본 증정)
영남범음범패집 카세트. 비디오와 상용천도집. 영산범음집 한문본을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Btn
불교TV
Buddhist Television Network
Tel. 02.3270.3300 Fax. 02.3270.3350